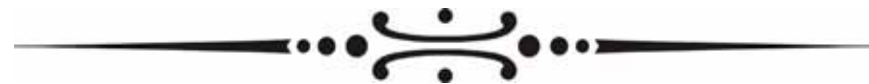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 방안

제 출 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 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년 10월 31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송 재 호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 방안

연구진



■ 연구책임자 : 류정아(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 김영순(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한경애(인천여자중학교 교사)

홍진표(구일중학교 교사)

최규갑(누리리서치 기획실장)

■ 부분집필진 : 노혜정(부평여자중학교 교사)

류장걸(인천광역시 교육연수원 연구사)

박성숙(부천문화재단 청소년 수련관 운영팀 팀장)

박지선(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심영미(원주부론중학교 교사)

심한기(청소년문화동동체 품 대표)

최은서(한성여자중학교 교사)

■ 연구보조원 : 박경숙(홍익대학교 미학과 석사)

임지연(홍익대학교 미학과 석사)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4
3. 연구방법과 범위 및 방향	5
제2장 학교 축제의 의미와 필요성	7
제1절 축제의 기원과 이론적 논의	9
1. 축제의 기원	9
2. 축제의 이론적 논의	10
3. 축제의 현대적 변용	12
제2절 학교축제의 교육적 가치	14
1. 학교축제의 개념 및 가치 재정립	14
2. 학교축제의 교육적 의미 회복	16
3. 성공적인 학교축제의 방향 모색	17
4.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 활성화의 방향	24
제3장 학교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29
제1절 교육과정과 학교축제	31
제2절 학교축제 현황 및 분석	34
1. 학교축제의 시공간적 배경	34
2. 축제의 예산	36
3. 축제의 내용과 장소	38
4. 축제의 기획과 운영	40
5. 축제의 발전과 성공여부	42
6. 축제만족도와 문제점	43
7. 축제의 성격과 형태	45
8. 학교축제의 지역연계성	46
제3절 학생들의 학교축제에 대한 의식 분석	49
1. 학교 축제 참여형태 및 흥미도	49
2. 축제에 대한 관심도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53

3. 축제기획과 조직에 대한 견해	55
4. 축제 발전의 저해요소와 문제점	59
5. 학교축제 발전의 방향성	62
6. 학교축제의 지역연계 형태	66
7.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67
제4장 학교축제 사례 분석	69
제1절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결합	72
1. 축제의 개최배경과 의미	72
2. 축제의 추진과정	73
3. 평가와 전망	82
제2절 학교축제와 지역축제의 결합	83
1. 축제동기	83
2. 전통놀이와 여가체험의 결합	84
3. 축제통합교과를 통한 표현력 증진	86
4. 축제의 효과	91
제3절 교과과정과 지역 문화콘텐츠의 활용	93
1. 음악극 수업의 개요	93
2. 세부 수업진행 내용	95
3. 음악극 경연대회	97
4. 전망과 과제	99
제4절 축제로 소통되는 학교와 지역사회	100
1. 안면 중학교 산길 축제	100
2. 의정부 송원고등학교 학교축제	103
3. 평가와 시사점	106
제5장 학교축제 발전방안 및 지원체계	107
제1절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09
1. 학교교육 시스템 개선	109
2. 학교축제 예산의 확보 지원 및 시설/기자재 확보	113
3. 학교 평가에서의 학교축제 및 특별활동 운영 우수학교 인센티브 부여	119
제2절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119
1. 학교축제 교육과정 형성의 의미와 가치	119

2.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보완	121
제3절 지역내 학교축제 담당 인력 양성체계 및 인적자원 활용방안	127
1.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128
2. 지역 내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과 방안	129
3. 지역전문인력 활용 및 재교육 해외사례	131
4. 지역축제와 학교축제의 연결	133
제4절 학교축제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	134
1. 학교축제에서의 교원의 역할	134
2. 축제담당 교사 양성 및 지원 방안	135
3.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학교축제의 전문성 향상	138
4. 교사연수프로그램의 지향점	139
5.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140
제5절 실천 지침으로서의 학교축제 매뉴얼 연구 및 작성	144
결 론	147
참고자료	151
부 록	155
부 록1 : 교사설문용 질문지	157
부 록2 : 학생설문용 질문지	165

표 차례

표 1 축제와 일상성의 비교	11
표 2 성공적인 학교축제	19
표 3 교사의 역할강화	21
표 4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지역 축제	22
표 5 방과후 학교활동 강화방안	31
표 6 학교 소재지 규모별 개최 시기	35
표 7 학교 소재지 규모별 개최 기간	36
표 8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 예산	36
표 9 학교 소재지 규모별 예산정도	38
표 10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의 내용	39
표 11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의 장소	40
표 12 학교 소재지 규모별 주관부서	41
표 13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핵심운영자	42
표 14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발전의 저해요소	43
표 15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발전의 성공요소	43
표 16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 만족도	44
표 17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별 의견분포	45
표 18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와 지역의 연계성	47
표 18 학교 소재지 규모별 지역과 연계한 축제의 형태	48
표 19 응답자 특성별 학교 축제 경험	50
표 20 응답자 특성별 재학 중인 학교 축제의 형태	51
표 21 응답자 특성별 참여했던 축제형태	51
표 22 응답자 특성별 참여했던 축제 중 가장 적극적 참여 축제 내용	52
표 23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 참여결과 흥미도	53
표 24 응답자 특성별 축제에 대한 관심도	54
표 25 응답자 특성별 축제에 관심이 적은 이유	54
표 26 응답자 특성별 축제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55
표 27 응답자 특성별 축제의 기획자	56
표 28 응답자 특성별 축제기획의 중요요소	57
표 29 응답자 특성별 축제 핵심운영자	58
표 30 응답자 특성별 축제의 기획	58

표 31 응답자 특성별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59
표 32 응답자 특성별 축제 발전의 저해요소	60
표 33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 행사에 교내 학생들의 참여도	61
표 34 응답자 특성별 축제운영의 문제점	61
표 35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 형태	63
표 36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	63
표 37 응답자 특성별 학교 축제가 지향하는 의미	64
표 38 응답자 특성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	65
표 39 응답자 특성별 축제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여부	65
표 40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의 지역연계 형태	66
표 41 응답자 특성별 지역연계 축제개최의 어려운 점	67
표 42 응답자 특성별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67
표 43 축제 내용 종합 구성표	74
표 44 사전행사	75
표 45 본 행사	75
표 46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75
표 47 별도표	76
표 48 ‘벽오동 축제의 밤’의 추진방법	77
표 49 추진위원회 조직	78
표 50 실무총괄반	78
표 51 학교운영위원회 / 서무부	78
표 52 학생추진위	79
표 53 교직원추진위	79
표 54 학부모추진위	79
표 55 각 영역별 추진소위의 역할분담	79
표 56 연간추진계획표	80
표 57 실행추진계획표	82
표 58 추진배경	83
표 59 부론중학교 지역전통문화연계학습의 특징	84
표 60 창작마당극 교수·학습 과정안(예시)	86
표 61 통합교과 관련 연간 지도 계획(예시자료 : 중2학년)	87
표 62 방과 후 특기적성 사물놀이 연간 운영 계획(예시자료 : 전교생)	88
표 63 본교 교사동아리 현황	88
표 64 협조회원 현황	89

표 65 지역 주민 협조회원	89
표 66 방과 후 특기적성 사물놀이부 교수·학습 전개안	89
표 67 사물놀이 편성표	90
표 68 월별 프로그램 진행순서도	94
표 69 수업내용	95
표 70 판소리 이해와 감상 수업내용	95
표 71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수업내용	95
표 72 뮤지컬의 이해와 감상 수업내용	96
표 73 학생제작 작품소개	99
표 74 축제 기획안	102
표 75 사전기획서	104
표 76 강의계획서 <교실꾸미기 워크숍>	105
표 78 학교축제예산 충분도 조사표	114
표 79 소속 학교 축제 만족도 조사표	114
표 80 학교축제예산 규모 조사표	114
표 81 2005년도 서울 경인중학교 축제 예산	115
표 82 2005년도 서울 상경중학교 축제 예산	116
표 83 축제예산 항목별 지출비율 비교표 / 복수응답	118
표 84 자기주도적 Project 학습의 전개	124
표 85 2004 창의적 재량활동 운영 일정	124
표 86 계발활동 운영 모형	125
표 87 행사활동 운영의 절차	126
표 88 지역사회 연계방향	128
표 89 이벤트로서의 축제의 효과	133
표 90 학교축제 지도 경험 횟수	136
표 91 축제 담당교사의 과목	137
표 92 축제 유형 분류표	140
표 93 학교축제의 의미와 가치 및 특성	141
표 94 학교축제의 기획 및 프로그램	142
표 95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평가	143
표 96 교원연수프로그램 진행 내용	144

그림 차례

그림 1 자발적인 학교축제의 모습(인천여중 축제)	16
그림 2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축제사례	18
그림 3 축제모습	18
그림 4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21
그림 5 전시모습	25
그림 6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축제	25
그림 7 전시회와 장터 프로그램	26
그림 8 일반적인 학교축제의 모습	32
그림 9 학예회 모습	33
그림 10 학생들의 학교축제모습	34
그림 11 개최 시기	35
그림 12 개최기간	35
그림 13 축제 예산	36
그림 14 축제예산의 지출 내역	37
그림 15 예산정도	37
그림 16 축제예산에 대한 지역별 충분도	38
그림 17 축제의 내용	39
그림 18 축제의 장소	40
그림 19 주관부서	41
그림 20 지역별 축제 주관부서	41
그림 21 핵심운영자	42
그림 22 축제발전의 저해요소	42
그림 23 축제발전의 성공요소	43
그림 24 축제 만족도	44
그림 25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별 의견분포	44
그림 26 축제의 지향점에 대한 지역별 응답분포	45
그림 27 축제의 형태에 대한 지역별 응답분포	46
그림 28 축제와 지역의 연계성	47
그림 29 지역과 연계한 축제의 형태	47
그림 30 지역과 연계한 축제의 진행 형태	48
그림 31 지역과 연계 시 문제점	49

그림 32 학교 축제 경험	50
그림 33 재학 중인 학교 축제의 형태	50
그림 34 참여했던 축제형태	51
그림 35 참여했던 축제 중 가장 적극적 참여 축제 내용	52
그림 36 학교축제 참여결과 흥미도	52
그림 37 축제에 대한 관심도	53
그림 38 축제에 관심이 적은 이유	54
그림 39 축제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55
그림 40 축제의 기획자	56
그림 41 축제기획의 중요요소	57
그림 42 축제 핵심운영자	57
그림 43 축제의 기획	58
그림 44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59
그림 45 축제 발전의 저해요소	60
그림 46 학교축제 행사에 교내 학생들의 참여도	60
그림 47 축제운영의 문제점	61
그림 48 학교축제 형태	62
그림 49 학교축제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	63
그림 50 학교 축제가 지향하는 의미	64
그림 51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프로그램	64
그림 52 축제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여부	65
그림 53 학교축제의 지역연계 형태	66
그림 54 지역연계 축제개최의 어려운 점	67
그림 56 느티나무제(구일중 축제모습, 왼)와 인천여중 축제모습(오른)	71
그림 57 벽오동제 모습	72
그림 58 학생들의 축제준비모습	77
그림 59 걸개그림제작모습(왼)과 공연객석배치 모습(오른)	80
그림 60 구일중학교 축제 준비모습	83
그림 61 공연모습	85
그림 62 사물놀이 연습모습	90
그림 63 전통놀이 연습모습	91
그림 64 수업진행흐름도	94
그림 65 음악극 만들기 과정	97
그림 66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구도	112

그림 67 서울시 남부교육청 기구도	112
그림 66 전시회 모습	122
그림 67 학생작품	123
그림 68 학생전시회 작품	125
그림 69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축제 매뉴얼” 본문 중에서	146

1

제 1 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형식인 학교축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색하고 학교축제에 대한 인식전환의 근거마련

- 지식기반사회의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의력이며,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주입식 지식교육이 아니라 교육전반에서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축제를 지역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즉 학교축제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학교축제가 교육과정과 내용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함

□ 본 연구의 필요성

- 첫째, 학생이 주체가 되고 담당교사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학교축제 개발을 통해 단순한 지식전수나 의무수행이 아닌 문화적 공감대가 창조·전수·소통되는 매개로서 학교축제의 적극적인 기능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킴
- 둘째, 학생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를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 함
-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축제를 매개로 하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이나 문화활동단체에 대한 상호교류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 활성화의 효과

- 첫째, 학교축제를 매개로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적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 즉 학교와 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 주민 전체의 동질성 및 공감대 형성의 기회 제공
- 둘째, 학교축제 조직을 위한 인력수요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증대를 통해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상호 교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것은 결국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 증대와 교원들의 자부심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학교 축제 매뉴얼과 연수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각 학교는 보다 수월하게 학교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는 보다 효과적인 학교 축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3 연구방법과 범위 및 방향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

- 첫째, 문헌조사에서는 학교교과과정과 관련된 교육부 자료 및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자료들을 참조하여 학교축제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 둘째,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 시행. 하나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학교의 축제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총 모집단 수는 모두 978개교, 유효설문지 총 수는 모두 480개, 조사참여율은 49.1%)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13개 학교의 14개 학급, 총 584개)로서, 양 집단의 조사 결과 분석
- 셋째, 연구기간의 한계를 감안하여 워크숍 형태로 학교축제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워크숍에서는 현재 학교축제의 실태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학교축제로 간주되는 사례, 지역사회와 학교축제의 연계방안, 학교축제담당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성, 지역 내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축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종연구결과물에 반영

2

제 2 장 학교 축제의 의미와 필요성

1 축제 기원과 이론적 논의

□ 축제의미는 사회, 역사적 발달과 현대의 문화적 지형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가능

- 첫째, 역동적인 축제의 시공간은 인간으로 하여금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통합을 경험케 함
- 둘째, 축제는 일상의 단절을 통해 일상의 전복과 반란이 허가되는 시간임. 즉, 축제란 일상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자유롭게 행하는 파괴가 허용된 해방공간임
- 셋째, 축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에너지 즉, 현재적 상태와 제 관계를 반성적으로 조망하는 에너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적 에너지 획득함
- 넷째, 유토피아적 이상향 추구. 인간은 축제 속에서 일상적 삶의 제한과 한계를 파괴하는 경험과 더불어 모든 차별을 넘어서 일체감과 유대감 체험함

□ 축제의 현대적 기능

- 축제는 지역민들에게 소속감이나 예술, 스포츠 등의 특별한 목표를 주지시킴
- 축제는 지역이나 국가의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무형의 문화 자본이자 교육자원이며, 지역주민의 총체적 삶을 반영하는 문화적 역량을 지님

2 학교축제의 교육적 가치

□ 학교축제의 개념 및 가치의 재정립

- 학생들에게 학교축제는 학업이라는 일상성으로부터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음
- 축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 많은 주체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전제와 단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통해 진정한 청소년축제, 그리고 학교축제를 만드는 기반을 만들어가야 함
- 지금까지 학교축제에서 주로 추구했던 “학교생활 속의 즐거운 에너지”, “일상의 금기 깨기”의 수단, “학교 안에서의 자발적 문화형성” 및 “교사와 학생간의 세대적 교감”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에서 더 나아가 “공부와 놀이와의 즐거운 조우(遭遇)”, “새로운 학교문화에 대한 만들기”등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함
- 그 외에도 “지역자원의 활용을 넘어선 상호 담장 허물기”, “하루 놀기에서 자주 놀기 그리고 큰 것에서 작은 과정 만들기”라든가 “일상적 삶과 일상적 교육 환경의 진화를 위한 매개” 등의 개념이 포함될 수도 있음

□ 학교 교육과정의 완성으로서의 학교축제의 의미 회복

- 국가교육과정의 실천이념은 ‘전인교육(全人敎育)’
- 국가와 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의 균형 있는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별활동과 행사활동,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과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안해야 함
- 학교 공동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과 경험 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함
- 학생들의 삶과 비전에 따른 창의적인 학생문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에서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지원을 통한 학교축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성공적인 학교축제의 방향 모색

- ‘학생축제기획단’은 축제를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기구

- 교사와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축제의 기획·운영·예산의 수립과 집행 등에서 학생축제기획단이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함
-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공감하는 주제를 놓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축제의 새로운 모형 찾기를 실천함
- 축제담당교사는 학생들과 학교장 등 학교대표와의 매개역할을 담당하면서 점진적으로 학교의 다른 교사, 학교장 등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만 함
- 나아가 성공적이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축제를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발적 의지에 의해 축제담당교사를 선정해야 하고, 둘째 축제담당 교사들 간의 정보교류와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함
- 학교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공동체의 축제를 학교축제의 콘텐츠로 이용하여 다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제안

□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 활성화의 방향

- 첫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교육계획, 활동계획, 행사계획) 속에 학교축제가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함
- 둘째, 학교 축제는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즐겁게 소통하는 놀이 공간이어야 함
- 셋째, 학교축제는 개개인 역할이 살아있는 다양한 참여의 과정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함
- 넷째, 학교축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진 특기와 적성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다섯째,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나뉠대로의 소통 방식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축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여섯째, 기록과 정리를 통한 평가의 단계도 축제의 과정이므로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의 경험과 능력에 맞는 기록과 정리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3

제 3 장 학교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교육과정과 학교축제

□ 교육부는 개선된 제7차 교육과정에 “새학교문화창조”개념을 도입

- 제7차 교육과정에는 학교 교육을 왜곡시켜 온 입시위주·교사 중심의 수업관행을 개선하고자 “새학교문화창조” 개념을 도입
- 이 개념은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 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 실천운동
- 이를 위하여 여섯 개 추진과제를 제시. 그 중의 하나가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이것은 축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
- 교육부는 물론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축제를 통해 장기간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체화되고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발판으로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와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아직 학교축제는 중학교 교과서에 다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2 학교축제 현황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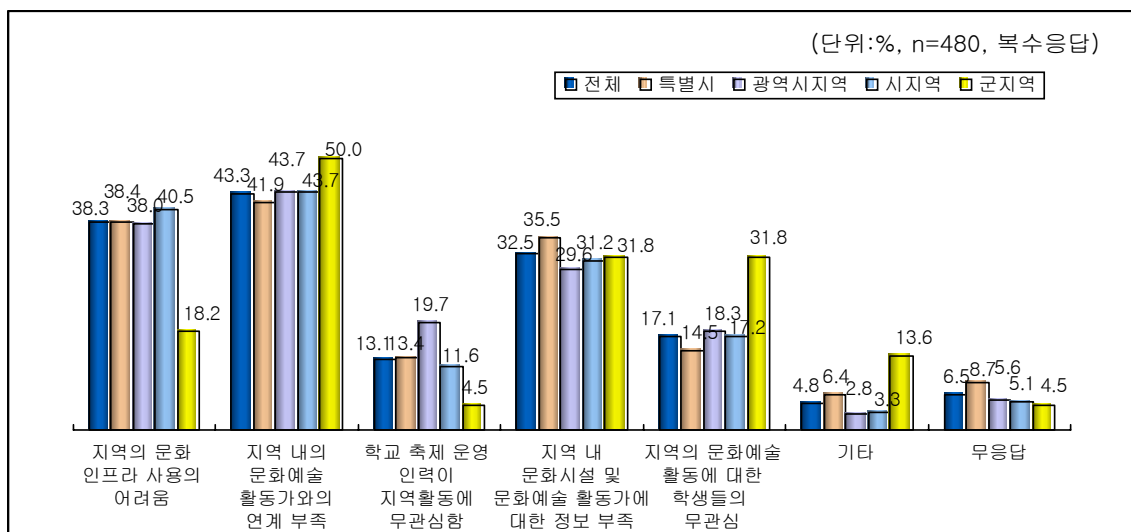
□ 설문조사방법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학교의 축제담당교사(모집단 978교)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된 유효설문지 총 480개를 바탕으로 조사된 내용을 분석(참여율은 총 49.1%)
- 설문내용은 현재 학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현황과악(축제개최횟수, 축제형태, 축제만족도), 축제의 기획의도와 기획방침, 축제발전의 저해요소, 축제의 주관부서 및 핵심운영자,

축제의 예산 및 지출현황, 축제의 시기 및 장소, 축제의 성격과 형태,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와 양태, 축제운영의 문제점 등을 묻는 항목들로 구성

□ 분석결과 분석

- 학교축제의 개최시기는 가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개최기간은 평균 1.7일
- 축제의 예산은 평균 308.1만원으로 대부분의 학교 예산이 상당히 열악
- 예산의 충분도에 대해 불충하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의 84.4%를 차지
- 축제예산의 대부분이 기자재 및 시설비, 또는 재료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
- 축제의 주관과 기획은 여전히 담당교사가 주관하는 경우가 67.5%로 편중
- 학교축제가 지향하는 바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의 실천”과 “학생들의 자기표현의 기회증진”이라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러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장애요인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축제 콘텐츠의 부족(46.7%), 학교당국의 부족한 예산지원과 무관심(43.1%), 그리고 학생들의 비적극성(42.7%) 등을 지적
- 축제프로그램의 경우 전시회가 61.7%로 가장 높은 반면, 지역연계프로그램은 3.3%로 학생들과 지역사회와의 축제를 통한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연계현황을 알기 위한 질문에, 연계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거나 노력하고는 있지만 현재는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46.7%로 나타나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
- 지역과의 연계프로그램의 제작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 내의 문화예술가에 대한 정보부족과 네트워킹 미비, 그리고 인프라활용 접근성 낮기 때문



3 학생들의 학교축제에 대한 의식 분석

□ 설문조사 방법

- 학생들의 학교축제에 대한 의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소재 중학교 중 임의로 추출한 13개교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자기기입식 표기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총 583개의 표본의 결과를 분석

□ 설문조사결과분석

- 학교축제에의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이 36.5%로, 생각보다 학교축제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그러나 응답자중 51.8%가 축제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여했던 축제유형으로는 복수응답으로 학예발표회와 계발활동(CA)전시회 형태가 가장 높고 경연대회형태가 가장 낮으나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축제는 학예발표회로 나타남. 남·여학생의 경향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공연형태에, 여학생은 전시회형태에 더 많이 참여함
- 축제 기획은 축제담당교사가 기획한다는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함. 또한 축제기획을 누가 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31.7%로 학교축제의 진행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축제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학교집행부의 예산지원 순
- 축제발전의 저해요소로는 당초 예상했던 사교육의 영향은 약하게 나타났고, 보다 직접적으로 “흥미를 끌지 못하는 축제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축제의 형태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가 35.2%, “학생자치를 통한 청소년 문화축제”가 31.9%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교축제 참여형태로 가장 높은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축제(40.8%). 그러나 그 다음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17.5%의 학생들이 지적한 것으로 보아 미약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연계형태는 지역의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는 정도
-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가 개최되기 어려운 점으로 학생들은 일반적인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4

제 4 장 학교축제 사례 분석

1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결합

□ 경인중학교의 벽오동 축제 사례

- 1997년부터 경인중학교는 ‘도농교류활동과 자매결연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알뜰장터 (실직자 자녀 및 학생 가장 돕기)’, ‘동아리 활동 발표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자연스럽게 학교축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옴
- 이를 바탕으로 개최하는 벽오동 축제는 학급자치활동에 의거한 ‘학급 이벤트’, 학생회 활동에 의거한 ‘놀이장터’, 계발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의거한 ‘공연마당’, 학부모 및 교사회에 의한 ‘알뜰장터 및 먹거리 장터’, 또한 인근학교 참여에 의한 ‘상설마당 및 특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음

□ 벽오동축제의 가장 큰 특징과 성과

- 학생회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서의 자주적 행사라는 점. 축제개최를 위해 학년별 연간학습계획에 맞추어 각 시기별로 교과수업, 동아리활동 등의 성과물들을 바탕으로 축제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
-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각각 소위원회를 만들어 실행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학생회 활동을 통해 자체 제작한 학교축제 홍보 비디오와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활력 프로젝트, 축제의 각 영역별 도우미의 활동 등을 전개
-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벽오동의 밤”이라는 공연행사를 진행함. 적은 예산임에도 전교생이 무대, 좌석배치 등 모든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한 내용을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발표

2 학교와 지역축제의 결합

□ 부론중학교의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 사례

- 부론중학교는 전교생이 25명 정도인 농촌 소규모 학교로서 이 학교가 소재한 강원도 지역은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문화, 예술분야의 체험과 교육활동은 극히 소외된 지역
- 2005년부터 자율적 교사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강원도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인, 광대패 모두골과 연계한 축제를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음
-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향후 방안을 전 교사와 분석, 논의하여, 전교생이 참여하는 '부론중학교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을 구성, 활동함으로써 부론중학교의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브랜드화해 나가게 됨

□ 창작마당극공연의 특징과 성과

- 2006년도부터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통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문화예술교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기회 마련
- 특히 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적, 신체적, 조형적 및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되고, 교사와의 유대 관계 및 협동심, 더 나아가 농촌지역에서 부족한 예술활동에 대한 새로운 학습모형을 개발하고 활용
- 부론중학교의 사례는 지역 주민이 함께 모이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축제가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지역 공동체 속에서의 축제로 확장되는 지역과 연계한 성공적인 학교축제 사례로 평가

3 교과과정과 지역 문화콘텐츠의 활용

□ 부평여자중학교의 음악극 수업과 경연대회의 교과과정 활용사례

- 부평여자중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음악교과시간을 활용하여 음악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행 그리고 평가를 1년간의 교과과정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
- 1학기에는 다양한 음악극 작품을 감상하여 음악극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음악극에 대해 쌓은 기초지식과 초청공연, 초청강연 등의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 2학기

- 부터는 조를 짜서 직접 대본을 만들어보는 기회 마련.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연극 강사나 지역의 연기자 지망생 등을 학교에 일일교사로 초빙
- 그 외에도 아이들이 직접 음악극 홍보를 위한 팜플렛, 포스터 등을 작성하도록 지도

□ 음악극 경연대회를 축제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 첫째, 3학년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
- 둘째,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연간학습계획을 통해 준비하는 생활형, 일체형 축제
- 셋째, 학생 스스로가 자기를 발견하고 표현하는 창의 표현형 축제
- 넷째, 마을교회가 공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학교가 관람을 오는 등 학생-학부모, 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되어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형 축제

4 축제로 소통되는 학교와 지역사회

□ 안면 중학교 산길 축제

- 산길축제는 학생들의 상황을 가지고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가 동참하고 여러 교과가 통합적으로 그 주제와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젝트 수업 후, 그 결과를 모아 축제로 발전시킨 사례
- 처음은 국어와 미술교과가 함께 조그만 수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지역사회가 동참하고, 교육청이 참여하면서 학교의 행사로 발전
- 학생회주최로 400만원의 비용 소요, 지역사회의 안면청년회가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도왔고, 교과로는 과학, 국어, 학생부장 담당 교사, 그리고 풍물, 연극, 영상 동아리가 함께 참여

□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학교축제

-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학교축제는 기존 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학예회 수준의 학교축제 형태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학교축제가 진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기 위한 사례
- 의정부 송현고등학교의 학교공간 꾸미기의 사례는 기존 학교 축제의 형식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즐길 수 있는 이벤트적 형식에 일상적인 활동을 연결하는 작은 과정들이 학교축제의 형식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

5

제 5 장 학교축제 발전방안 및 지원체계

1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학교교육 시스템 개선

- 학교축제에 대한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학교장 위주의 독점적 학교운영 방식이 아닌 학교주체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주적 소통구조를 확보하고, 학교축제 활성화 사업이 학교 교육력 평가의 중요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학생자치활동, 행사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이의 중요한 해법으로서 학교 운영시스템과 학교 밖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 필요
-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청과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전담부서를 배치하도록 해야 함

□ 학교축제 예산의 확보 지원 및 시설/기자재 확보

- 학교 축제 활성화로서의 유효한 지원정책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목적성 경비로서의 학교 축제 활성화 예산을 확보
- 본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축제 예산 평균은 3,081,000원이었으나, 축제를 담당했던 교사의 84.5%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응답. 이에 중학교 축제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학교의 예산을 분석해 보면 650~750만원 정도가 학교축제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이라고 판단됨. 단 학교의 학급수와 강당 확보 여부와 같은 시설규모, 지역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준안에 따라 그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학교축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재료 등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에 필요(대안으로 강서구 공향중학교나 노원구 상경중학교처럼 학교공간에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세우는 방안도 고려가능. 그 외에 서울시

- 가 지원하는 이동 무대차의 활용, 무대시설(음향, 조명, 좌석 등)을 대여하는 방안도 있음
- 학교 평가에서 학교축제 및 특별활동 운영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학교 예산증액에 반영하거나 학교장 및 교감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축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과중심→경험중심→학문중심→인간중심으로 변천

- 인간중심 교육과정이란, 학교가 개인에게 만족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 가정 아래 학교교육은 학습자가 하나의 전신(全身)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균형 있는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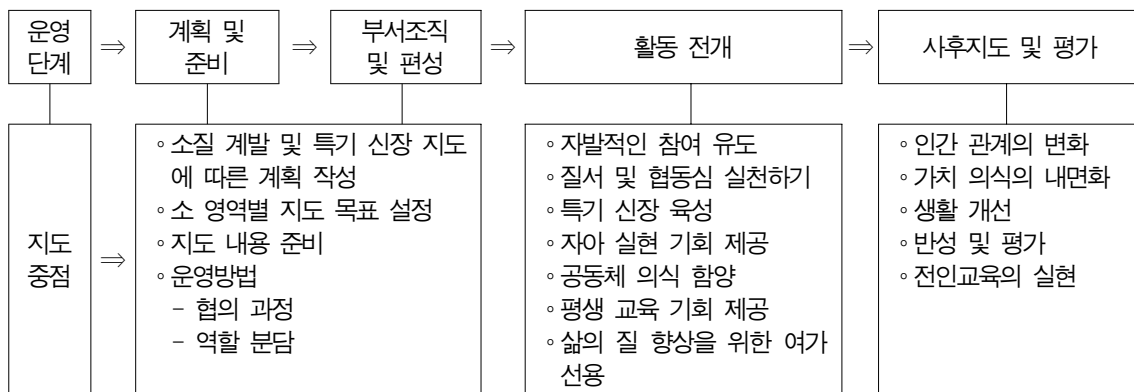
- 2002년부터 중학교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가 학교의 여건과 학교교육공동체의 바람을 토대로 학교장의 경영의지, 교풍 등 학교문화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융통성과 재량을 부여
- 학교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인 10교과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 재량활동은 선택교과 재량활동과 교과의 심화보충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의 5영역으로 구성됨. 영역 간 활동내용과 시수는 학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학교 축제는 교과학습을 기본으로 하고, 집중이수 등 유연한 편성과 운영이 가능한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영역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기획하고 추진 가능

□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통한 우수사례 : 연성중학교

- 특별활동 교육과정을 보완하여 교육과정 편성에 1인1기 개별화교육을 넣어 2002년부터 실시, 2004학년도부터는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를 운영하면서 교과학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배치하고 토요일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과와 연계된 축제 등 행사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집중도 높은 교육과 함께 축제를 통한 즐거

운 학교만들기를 추진

- 또한 2004년부터는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한 학습축제로서 2004년엔 학생들이 개인 또는 모둠별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 실천, 보고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위원과의 지도협의를 통해 학습주제를 정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도록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한 자기주도적 Project 학습을 추진하고 이를 학년말에 자기주도 학습 축제로 운영
- 마지막으로 특별활동과 연계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 진로와 연계하여 부서를 선택하고 활동작품 등을 축제 때 발표. 이러한 모든 계발활동의 운영모형을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음



3 지역 내 학교축제 담당 인력 양성체계 및 인적자원 활용방안

□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 21세기가 요구하는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의 상호적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문화적 역량 특히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양성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에는 평생 교육의 역할을 함
- ‘교육’도 놀이와 즐거움을 매개로 일어나는 소통 행위라고 가정할 때 축제와 교육은 모종의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므로 학교축제와 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 축제 문화를 교육용 콘텐츠로 전환하는 연구, 이들을 지역학습 차원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지역 내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축제를 연결하는 연구로 발전시켜나가야만 함
-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편향적 흐름에서 소외되는 ‘지역화(localization)’를 보완

□ 지역 내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과 방안

- 학교축제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은 다양한 전공과 특기를 가진 인력이며, 일반적인 축제의 인력구성은 행사기획, 홍보, 디자인, 회계와 축제의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을 생산해내는 전문가로 구성
-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①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체결, ②학부모교육 활성화, ③학교개방(운동장, 컴퓨터실 등), ④지역민을 위한 문화교실 실시(스포츠, IT, 문화교실 등), ⑤학교교육의 특성화 및 지역민 대상 특성화 교실, ⑥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학습(미디어센터, 박물관, 체육관 등)
- 공동체구성으로 형성된 인력자원에 지역관청인 동사무소, 구청 차원에서 지역인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사항을 DB화
-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봉사하려는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나 관청을 통해 전문가들이나 봉사의지가 있는 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마련해야 함

□ 지역전문인력 활용 및 재교육 해외사례

-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경우, 프랑스의 ‘학교 안 교육’은 각 교과간의 연계를 통하여 혹은 각 교과목의 통합교과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밖 교육’으로서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멀티미디어를 배우고, 제작할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함
- ECM 프로그램에 소속된 프랑스의 우수한 멀티미디어공간 중 하나인 르 큐브(Le Cube)는 디지털 창작을 위한 전용공간. 이곳은 365일 모든 이에게 문이 열려 있으며 초보에서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수준에 맞춘 입문과정과 아뜰리에를 통하여 모든 연령층의 관객, 아마추어, 전문가에게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한 문화적·예술적 실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교사들과 연합하여 학교교육활동의 일부를 진행

□ 지역축제와 학교축제의 연결

- 지역공동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들과 학교축제, 혹은 학교축제 간 연합을 통해 학교축제가 그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기한다면, 학교와 지역이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고 축제 진행 노하우를 축적하여 모두가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문화를 만들 수 있음

- 지역축제의 입장에서 학교축제와의 연계나 학교와의 공조는 축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4 학교축제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

□ 학교축제에서 교원의 역할

-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올바른 축제에 대한 인식, 특히 학교 관리자의 올바른 인식임
- 또한 동아리의 활성화와 학교에서 학생회들의 자치활동의 성숙도가 관건

□ 축제담당 교사 양성 및 지원 방안

- 축제업무의 지속성과 특별한 전문성, 그리고 축적된 경험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축제를 담당하는 교사가 보다 연속성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 문화예술교육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주저 없이 학교축제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승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만약 학교에 행정체계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다면 부장담당 교사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가능)

□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학교축제의 전문성 향상

- 교장/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의 근본적 성격과 목표에 따른 국가정책의 이해와 학교 경영능력에 대한 소양교육은 물론 전인교육의 구체적 실천근거와 방침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 반영 필요
- 각 단계별 자격연수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경력과 수준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치함으로서 교사의 인식과 수용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학교 축제 활성화에 우호적인 학교분위기조성 방안 제안

□ 교사연수프로그램의 지향점

- 축제에 대한 교사의 편견을 극복하고 특히 관리자인 교장, 교감 연수에 축제나 동아리활동 등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 주는 연수 필요
- 국내·외 우수학교축제 사례에 대한 경험자, 기획자의 강연을 통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우수 축제의 기획을 경험하는 기회 마련
- 교사들이 기획전문가로부터 축제기획과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워크숍 형태의 연수 프로그램 필요
- 학생들이 축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노하우를 길러주는 연수 프로그램 기획

□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 첫째, 강연청취 보다는 워크숍 등 활동 중심, 사례 보고 등 중시
- 둘째, 직무 연수로 개설하여 참여한 자에게 이수증과 이수시간 부여
- 셋째,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평가점수에 반영하거나 연수 참여 비용을 지불하고 축제기획력향상과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지역축제 및 학교축제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제안

5 실천 지침으로서의 학교축제 매뉴얼 연구 및 작성

□ 매뉴얼의 필요성

- 학교에서의 축제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과 목표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활동으로서 학교축제의 추진방향과 형식, 그리고 그 내용구성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기초적인 방향조차 없는 실정
- 매뉴얼은 단순한 행사진행의 지침서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학교축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절차에 의한 구체적 실천방안까지 아우르는 내용

6

제 6 장 결 론

□ 학교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학교축제

-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며 이를 위한 실천이념은 ‘전인교육’으로, 학교 교육은 기본적 지식교육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 문화적 향유능력, 공동체적 사회에 부합하는 인격형성과 가치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학교교육의 본질적 성격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 시스템과 학벌 지상주의는 학교교육을 교과교육 위주의 지식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폐해를 낳고 있는 실정
- 학교축제는 학생회, 계발활동과 상설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자치활동을 매개로, 학교 공동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역점을 두는 교육활동의 한 과정

□ 학교축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과의 연계

- 학교축제가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축제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단체에서 연구 개발 지원 필요
- 지역사회를 축으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 자생적 교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축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 모색 필요
-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지방행정과의 유기적 연계도 고려
- 축제의 내용에 있어서 교과활동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학교축제가 단순히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놀게 해주는 1회성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교과활동의 결과로서 표출되도록 구체적 방안과 내용 형식 등에 대한 연구가 절실

1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지식기반 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오히려 획일적인 사고체계의 전달방식에 의한 교육방식이 더욱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이기도 하다. 오늘날 전 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이 단순히 암기와 반복훈련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¹⁾이라는 사실임에 비추어 볼 때, 모든 국민의 ‘창의력 신장’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하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학교교육이라 할 것이다.

창의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입식 지식교육이 아니라 교육전반에서 창의적 관점의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더 한층 강조되고 있다.²⁾ 따라서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기존의 입시교과 중심의 지식교육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학교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형식이 되는 학교 축제의 새로운 당위성과 성격에 따른 인식전환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문화예술 교육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축제를 지역과 연계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학교축제를 통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이것이 결국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축제문화는 개개인의 소질의 개발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발현시킬 수 있으며, 주변인 및 주변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이를 통해 창조적 지식과 주체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효율적으로 신장될 수 있다.

학교축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체계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축제가 가지는 축제적 진정성(재미, 놀이, 창조, 자발성, 자유, 평등 등)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축제들은 학생들에게는 입시

1) 문화관광부, 「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 ‘예술의 힘」, 2004

2) 문화관광부, 「창의한국, 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2004

와 학업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소극적인 관찰자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하루 이틀 동안의 행사로 간주되고 있고, 축제를 담당하는 교원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할 과중한 업무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교사 개인의 특별한 의지가 작동하지 않은 한 대부분의 경우 그다지 달갑지 않은 ‘부담거리’에 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 학생들에게 학교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기관이며, 지역사회는 보다 심화되고 강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학원이라는 사적인 교육의 기회를 또 한번 제공하는 곳에 불과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교는 보다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 위한 경쟁의 장소로 변질되고 여기서 교사는 지식의 단순한 전수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직장에서의 만족감이 보통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하는 곳이고, 또 학교는 그것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가 타율적으로 주어져 있어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학교축제는 이러한 타자성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각각의 관계들을 활용하고 재창조하여 보다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재창조하게 하는데 대단히 효율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연회된다면 학생과 교원간의 상호 소통의 기회와 공감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 학교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및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또한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기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은 차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지역 내의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차원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생이 주체가 되고 담당교사에게 인센티브로 작용하는 학교축제 개발을 통해 단순한 지식의 전수나 의무의 수행이 아닌 문화적 공감대가 창조·전수·소통되는 매개로서 학교축제의 적극적인 기능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과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를 문화예술교육의 출발지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축제를 매개로 하여 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이나 문화활동단체에 대한 상호교류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전반적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체계와 방식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전달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창조적 발상보다는 기성의 질서를 답습하는 모순의 악순환적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화되고 통제적인 학교수업에서 벗어나 원하는 바를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며 발표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데 학교축제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교축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이 책임감을 느끼며 창조적인 방법으로 과제를 만들고 그것을 풀어가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축제는 체험학습의 실용적 가치와 창조적 사고력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과 연계하여 학교축제를 활성화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첫째, 학교축제를 매개로 지역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적 정체성 확립과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을 증대시킬 것이다. 즉 학교와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 주민 전체의 동질성 및 공감대 형성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둘째, 학교축제 조직을 위한 인력수요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증대를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상호 교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애착심 증대와 교원들의 자부심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학교 축제 매뉴얼과 연수프로그램의 시범 운영을 통해 각 학교는 보다 수월하게 학교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는 보다 효과적인 학교축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연구방법과 범위 및 방향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워크숍 등이다.

첫째, 문헌조사 부분에서는 기존의 축제의 개념과 기원에 대한 문헌 및 현대사회에서 축제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 자료들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학교축제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등을 사례중심으로 분석한 학교축제관련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이 이외에 학교교과과정과 관련된 교육부 자료 및 문화예술교육정책과 관련된 문화관광부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두 번째,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하나는 중학교 축제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학교의 축제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이메일로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중학교 총 모집단 수는 모두 978개교이고,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유효설문지 총 수는 모두 480개로 조사참여율은 49.1%였다. 다른 하나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으며, 13개 학교의 14개 학급의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여 총 584개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학교축제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현재 학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현황 파악(축제개최횟수, 축제형태, 축제만족도), 축제의 기획의도와 기획방침, 축제발전의 저해요소, 축제

의 주관부서 및 핵심운영자, 축제의 예산 및 지출현황, 축제의 시기 및 장소, 축제의 성격과 형태,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와 양태, 축제운영의 문제점 등을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축제 수요조사 설문지는 학생의 축제참여 경험과 관심도, 축제기획 주체와 내용에 대한 만족도, 축제시기와 장소의 적절성, 참여의 정도와 양태, 축제의 성격과 형태,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와 양태, 축제의 문제점과 의견수렴 정도 등에 대한 질문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세 번째로는, 연구기간의 한계를 감안하여 개별적인 전문가 면접조사를 치르지는 않고, 워크숍 형태로 학교축제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워크숍에서는 현재 학교축제의 실태와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성공적인 학교축제로 간주되는 사례의 소개가 있었고, 지역사회와 학교축제의 연계방안, 학교축제담당자들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의 내용과 방향성, 지역 내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교축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종연구결과물에 반영하였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 ‘입시’라는 문제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관문이며, 즐겁지 못한 추억이 된다. 그러나 학교축제는 숨 막히는 입시의 과열 전쟁 속에서 적어도 학업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서 잠시나마 여유와 감성을 찾을 수 있게 해줄뿐더러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선도하기 위한 장이 된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교축제를 통해 개인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축제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발견된다.

그러나 예산과 기획능력, 그리고 정보의 부족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축제 콘텐츠를 만들고 학교축제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학교는 지역의 구성요소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학교가 단지 의무교육을 이수하는 기관으로만 생각되거나 지역 사회 속의 “섬”으로 간주될 정도로 친밀성을 잃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긴밀히 연결된 학교축제는 지역주민과 학생들 간 그리고 지역의 교사들 간 화합과 이해의 폭을 넓혀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지역사회학교’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험하는 데 아주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축제를 통해 건전한 학교문화가 이루어지면 지역사회 내에 건강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를 위해 축제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학교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해보도록 하자.

2

제 2 장 학교 축제의 의미와 필요성

2

제 2 장 학교 축제의 의미와 필요성

제1절 축제의 기원과 이론적 논의

1. 축제의 기원

가장 일반적으로 축제의 기원은 신화, 제천의식, 토템 향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 신화에 서는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기원을 찾는다. 디오니소스는 풍요와 생명력, 정열과 술의 신의 상징이다. 기원전 800년경부터 주로 그리스 농부들에 의해 디오니소스 제의가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아테네의 지배자 페이시스 트라토스에 의해 아테네 도시축제가 연회되었다고 전해진다. 아테네의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졌던 디오니소스 축제는 그 성격이 폴리스적 공공질서와 문화를 정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일(1998)도 역시 축제의 시원을 신화에서 찾는다. 그는 축제란 기원적 맥락에서 ‘신성을 회복하는 작업’이며, 신화적 시간, 거룩한 장소, 천지창조의 요소를 기억하는 ‘집단적 문화기억’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구려의 10월 동맹, 부여의 정월 영고, 예의 무천 등 고대 부족국가에서 행해지던 제천행사 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제천행사는 힘든 농사일과 휴식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농경사회의 풍속이다. 씨뿌리기가 끝나는 5월과 추수가 끝난 10월에 각각 하늘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는 온 나라 사람이 축제 속에서 신과 교섭한다는 믿음을 갖고 음주가무를 즐겼다. 이것은 풍년을 기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의식으로서, 뒷날 5월 단오와 10월 상달의 풍속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프로이트(1976)는 토템향연에서 축제의 기원을 찾는다. 그는 토템을 선조이자 동시에 종족 수호자로 보고, 이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결시켜 설명한다. 즉 토템 발생의 심리적 원인을 아버지 살해의 죄의식에서 찾는다. 토템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살해와 향연은 아버지에 대한 승리의 기억을 유지함과 동시에 아버지 살해에 대한 자책과 화해의 시도이다. 죽은 토템동물에 대한 애도는 살해당한 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표시이고, 죽은 아버지의 보복에 대한 공포를 달래며 살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기도 하다. 애도가 끝난 뒤 희생된 토템동물을 종족이 나누어 먹는 행위는 아버지 대체물인 토템과 화해하는 의식이다. 프로이트에게 축제의 기원은 아버지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드러나는 토렘향연에 있다. 극적으로 죄의식의 상쇄를 위한 애도가 끝나면 “떠들썩한 축제의 기쁨이 따르고 모든 충동들의 고삐가 풀어지며 온갖 욕구 충족이 허용된다. 우리는 축제의 본질을 쉽게 통찰할 수 있다.”(Freud, 1974, 425쪽). 프로이트는 토렘향연과 축제의 연관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즉 “아마도 인류 최초의 축제였을 토렘향연은 그와 같은 기억될 만한 범죄적인 행위의 반복이며 회상의 축제였을 것이며, 그러한 범죄행위와 더불어 수많은 것들, 즉 사회조직, 도덕, 종교가 시작되었다”(Freud, 같은 쪽)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축제의 기원에 대한 지극히 원론적인 논의일 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맥락에서 축제를 설명한 여러 논의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축제의 이론적 논의

축제를 보는 이론적 관점들은 축제의 유형 분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몇몇 단일한 특성을 드러내는 축제 연구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신화적 접근이다. 이 접근법은 축제의 신화적 발생학과 의미를 탐구한다. 둘째 인간학적 접근이다. 이 접근법은 왜 인간은 축제를 만들고 향유하는가를 규명한다. 셋째, 역사적 접근인데 축제의 역사적 발생과 전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넷째 이론사적 접근인데, 이 접근은 축제의 이론사 연구와 축제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섯째, 문화인류학 및 비교민속학적 접근이 있다. 이 접근법을 기초로 문화적 다양성에 따른 축제유형과 내용분석 및 축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연구한다. 여섯째, 실천적 접근인데 이 접근은 다시 경제적 측면, 축제의 개발과 운영 효과성, 축제 상업화 등과 같은 축제경제학의 제반 문제를 다룬다. 일곱째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있다. 이 접근은 축제의 사회 기능적 측면을 축제가 어떻게 사회공동체 의식의 확산과 통합에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구체적으로 축제가 어떻게 삶의 에너지 활성화와 초월적 에너지 체험에 기여하는가에 관심이 있다.

내용적 측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축제 연구는 크게 축제 내재적 연구와 축제 외재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축제 내재적 연구는 축제이념, 축제의 종교적 측면, 유희적 측면, 예술적 측면, 축제의 기획과 실행을 포함한 축제 기술적 측면 등 축제의 내용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다. 한편, 축제 외재적 연구는 사회적응 기재로서 사회학적 관점, 정치적 상징 기재로서 정치학적 관점, 축제의 문화산업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축제분석을 생각할 수 있다.

축제를 보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메타적 차원에서 보면 축제는 크게 두 가지의 근본 입장, 즉 기존질서의 긍정적 고양으로 보는 입장과 기존 규범의 파괴로 보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축제를 기존 질서의 긍정적 고양으로 보는 시각의 대표적 인물은 뒤르켐이다. 그는 축제를 공동체적 신과 인간의 교류로 보면서 축제가 가지는 이러한 기능이 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뒤르켐에게 신은 공동체의 집합력이며, 공동체는 신에 대한 경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회의 통합적 기능과 달리 축제를 기존규범과 질서의 파괴로

보는 시각은 니체, 프로이트, 바흐친, 터너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들에게 축제는 가치의 전도와 질서의 전복을 통한 해방과 유토피아의 이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축제의 의미는 사회, 역사적 발달과 현대의 문화적 지형에 의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를 신과 만나는 ‘신성한 시간’으로 간주한다. 종교 제의에서 출발한 축제는 인간으로 하여금 제의를 통해 신성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리치³⁾에 따르면, 신성을 회복하는 과정은 축제상태에 들어가는 인간이 자신의 세속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의례를 통해 ‘신성한 인간’의 상태가 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뒤비뇨는 『축제와 문명』⁴⁾에서 축제는 더 이상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신성한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한 것으로의 의지’이며 축제 속에서 정점은 신성한 것의 통치와 유사하다고 강조한다. 이렇듯 축제의 시공간에서는 경건, 속세의 성화, 축복 환희가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다시 말하면, 역동적인 축제의 시공간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로소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화해와 통합을 경험하게 한다.

둘째, 축제를 일상성이 단절되고 해방되는 시공간으로 해석한다. 축제는 일상의 단절을 통해 일상의 전복과 반란이 허가되는 시간이다. 달리 말하면, 일상의 규범과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축제의 공간이다. 축제에서 우리는 성 역할 파괴나 지위 파괴, 지배적 규범 파괴, 금기의 파괴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축제의 본질이 일상의 단절과 전도에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우는 프로이트에게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축제란 “허용된 과잉이며 금지의 엄숙한 파괴다. 그 어떤 규정에 따라 경건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과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자체가 축제의 본질을 이룬다.” 프로이트에게 있어 축제란 일상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자유롭게 행하는 파괴가 허용된 해방공간인 것이다.

표 1 축제와 일상성의 비교

	축제기간	일상적 삶
인간의 삶	화해와 우정, 연대감	갈등, 대립, 투쟁
시간의식	신적시간, 시간의 무화	세속적 시간질서의 지속성
노동	노동으로부터 자유	노동의 존재
인간형	신성한 인간	세속적 인간
사회구조	계급과 계층의 전도	엄격한 계급과 계층
이념	자유와 평등	사익 우선
주체	공적 주체, 유기체적 주체	개별 주체
성	관용과 향유	통제와 관리
윤리, 규범, 사회적 금기	파괴	강제력에 의한 관리

3) Leach, E., 1961, "Time and False noses", in *Rethinking Anthropology*, London, Athlone

4) 장 뒤비뇨 저, 류정아 역, 1998, 『축제와 문명』, 한길사

셋째, 축제를 통해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획득한다고 본다. 축제 참여자들은 축제시간에 자아를 벗어나 타자와 동일화를 이루는 황홀경을 체험한다. 이 황홀경을 니체는 “최면에 걸린 상태에서 영혼의 모든 음계가 광란하는 디오니소스적 도취”라고 표현했다. 황홀경에 의한 타자와 나의 일체성의 지각이 다름 아닌 축제의 초월성 개념이다. 초월성의 경험은, 달리 표현하면, 자유, 평등, 해방의 축제적 재현이다. 이러한 축제경험은 세속적 현실을 부정하는 삶의 에너지, 현재적 상태와 제 관계를 반성적으로 조망하는 에너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는 공동체적 에너지를 부여한다.

넷째, 유토피아적 이상향 추구이다. 인간은 이 축제 속에서 일상적 삶의 제한과 한계를 파괴하는 경험과 더불어 모든 차별을 넘어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체험할 수 있다. 디오니소스 축제의 유토피아의 이념은 오직 현실에 대한 망각과 단절의 경험인 축제기간 내에 한정된다. 축제가 끝난 후 일상적 현실세계가 인간의 의식에 떠오르면 인간은 ‘구토’를 한다고 니체는 주장한다. 일상적 현실세계와 디오니소스적 현실세계가 현실세계의 단절을 인식하고, ‘나’를 둘러싼 공포와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구토한다는 것이다. 바흐친 역시 일상의 순환구조에서 이탈하여 끊임없이 전복을 꿈꾸는 인간의 모습에서 축제의 내재적 의미를 읽어낸다. 그는 축제 안에서 모든 사회적 계급과 계층, 금기, 규범이 해체된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축제는 기존 사회의 억압구조를 잊고 존재의 해방을 추구하는 장소가 된다. 바흐친의 이념화된 축제는 니체와는 달리 인간이 어떤 이념과 유토피아를 지향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려 한다. 그는 니체처럼 축제기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유토피아적 축제이념의 심리적, 감정적 성격을 거부한다. 바흐친에게 축제의 본질은 일시적 망각에서의 유토피아적 경험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존사회의 관념과 질서에 대한 전복과 해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3. 축제의 현대적 변용

전통사회에서 축제는 종교적,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 예술적, 오락적, 생산적인 기능을 가지며, 산업사회에서 축제는 지역사회의 소통적 기능, 정체성 확립의 기능, 전통문화 보존의 기능, 관광기능 등이 강화된다. 이를 바탕으로 축제의 5가지 현대적 기능으로는 ①원초적 제의성 보존의 기능, ②지역민의 일체감 조성의 기능, ③전통문화의 보존의 기능, ④경제적 기능, ⑤관광적 기능을 들 수 있다. 또한 축제는 지역민들에게 소속감이나 예술, 스포츠 등의 특별한 목표를 주지 시켜줄 뿐만 아니라(Getz(1996))⁵⁾, 한 지역이나 국가의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무형의 문화자본이자 교육자원이며, 지역주민의 총체적 삶을 반영하는 문화적 역할을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반복되는 일상의 틀을 깨고 놀이적 카오스의 경험을 하게 해주는 문화현상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축제는 정치적으로는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함께 지역의 문화자치를 실현함

5) 김철원·이석호(2001),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한국관광연구원.

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이다. 게다가 지역의 문화유산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의 이미지 개발에 도움을 주고,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 현대문화예술의 도약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또한 축제의 기능이다. 특히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나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살아있는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에서 실시될 수 있는 시민교육의 현장이며 학교와 지역을 교육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 행해지는 수많은 축제에서 더 이상 종교적 제의의 성격을 찾기는 힘들다. 축제 기간을 ‘신성이 부여된 시간’으로 이해하는 축제 향유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민속 문화 보존의 차원에서 거행되는 고전축제 역시 새롭게 재창조되거나 상징적 형태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신적 존재를 믿지 않으며 이들에게 축제는 신성한 의례가 아니라 일상적 의식절차가 되었기 때문이다.

축제의 의미변화는 종교적 기능의 소멸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틀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농업사회에서 축제의 주요 행위 주체였던 부르주아, 장인, 지주, 농민 등의 집단이, 산업사회에서는 이전에 차지하던 사회적 의미가 사라짐으로써 축제 행위주체로서의 의미도 축소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사회의 다원화의 증가에 따라 축제의 형식과 축제 행위주체, 축제참여의 범위도 다분화, 다층화 되고 있다.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제는 관광축제, 산업축제, 예술축제 등으로 다분화 되었으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주제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 축제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이 강하고, 순수 예술축제라 해도 상업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가나 지역자치단체에서는 축제의 관광자원화 논의와 축제지원 및 평가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축제가 오늘날 문화정책적, 관광정책적,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축제의 고전적인 의미변화를 축제 향유자들의 의식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전적인 축제의 중요한 요소였던 일상성의 단절과 일탈의 경험, 해방감은 더 이상 현대적 축제의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현대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영화, 사이버공간, 각종 레저 등을 통해 경험한다. 이벤트와 축제, 각종의 일탈경험의 폭발현상은 고전적 축제의 경험을 일상적 경험으로 치환시켜 버렸다. 축제가 일상화된 것이다. 이제 축제는 “일상과 전혀 다른 일상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보완하고 드높여 주는 것”으로서 축제와 일상의 경계는 사라졌다. 또한 사회계층의 다분화로 인해 현대인들은 축제에서 더 이상 고전 축제적 차원의 연대감, 우정, 황홀경을 가지지 못한다. 현대인들에게는 축제는 ‘하나의 축제’가 아니라 수많은 축제 중의 하나이며 축제참여의 선택의 요인은 지극히 개인화되었다.

다음으로는 축제의 스펙터클화를 들 수 있다. 축제의 스펙터클화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참여의 축제에서 관람형 축제로의 변화이며, 볼거리로서의 축제와 경제적 가치 창출로서의 변질된 축제의 양상을 일컫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축제는 프로이트, 바흐친, 니체 등이 말하는 해방적 삶의 전형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한다. 오늘날 축제의 의미는 ‘일상화의 축제화’로 인해 더 이상 축제의

고전적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축제 양상이 사회적, 경제적 조건변화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축제의 일상화, 일상의 축제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물론 자주적 참여 의식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제2절 학교축제의 교육적 가치

1. 학교축제의 개념 및 가치 재정립

학교축제는 청소년간의 만남의 장은 물론 억압으로부터의 해소, 일상성의 단절과 해방, 새로운 삶의 에너지 획득 등의 특성을 공유한다. 입시의 중압감, 성적 올리기 위한 스트레스, 동료 집단에서의 따돌림 등 여러 심리적 정서적 갈등 요인들이 축제를 통해 해소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축제는 학업이라는 일상성으로부터 잠깐이나마 해방감을 맛볼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축제는 ‘청소년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청소년은 아동과 어른 사이에 위치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덜 성숙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성인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는 중간자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헌장’에는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청소년 헌장의 정신에 따라 우리 주변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연극제, 영상제, 가요제 등 제목에 있어서 ‘청소년을 위한’이란 표현은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제목뿐이지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생활의 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학교는 축제를 통하여 청소년 헌장에도 명시된 대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누릴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축제를 그것이 소재한 지역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는 축제의 콘텐츠는 실로 다양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축제는 주로 학생들의 전시회, 경연 대회, 학예회, 음악의 밤 등 ‘보여주기’ 식 행사였다. 좀더 진보된 학교 축제의 경우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정작 그 학교가 속한 지역과의 교류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축제는 학교교육의 환경이 바뀌고 있고, 그 핵심에 학생들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의 특기, 적성을 키우고 감성 교육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을 학교라는 공간의 주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올바른 학교축제 문

화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축제는 우리가 새롭게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끌어야 할 한 가지 대안일 수 있다. 학교축제를 통해서 단순하고 경직된 물리적 학교 공간이 다양한 문화가 소통되는 살아있는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학교문화가 창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축제의 가치는 ‘축제’라는 집단적 행위 자체에 있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 즉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매개체로서 또는 건강 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결국 ‘문화론적 관점에서의 청소년축제’는 바로 청소년축제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제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축제가 단순한 학교에서의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청소년축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들을 고민하고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축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조직들이 축제에 대한 전제를 찾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합의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청소년 축제 그리고 학교축제에서는 한 사람에 의한 발상과 기획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시각들이 공유되며 함께 만들어질 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축제에 대한 정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정의, 지역사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개념정리 또는 축제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합의의 과정이 생략된 채 축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이 공유되는 사전 과정이 부족한 경우 보통 축제의 과정과 결과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많은 주체들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전제와 단서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진정한 청소년축제, 그리고 학교축제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축제에서 주로 추구했던 것이 “학교생활 속의 즐거운 에너지”, “일상의 금기 깨기”의 수단, “학교 안에서의 자발적 문화형성” 및 “교사와 학생간의 세대적 교감” 그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과 활용” 등이었다면, 여기에 “공부와 놀이와의 즐거운 조우(遭遇)”, “금기 깨기의 일상화와 새로운 학교문화에 대한 도전”, “죽어가는 자치활동과 문화활동의 확장된 심폐소생술” 등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자원의 활용을 넘어선 상호 담장 허물기”, “하루 놀기에서 자주 놀기 그리고 큰 것에서 작은 과정 만들기로”라든가 “일상적 삶과 일상적 교육 환경의 진화를 위한 매개” 등의 개념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림 1 자발적인 학교축제의 모습(인천여중 축제)

2. 학교축제의 교육적 의미 회복

1)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교육의 본질적 성격과 목표는 국가교육과정에서 말하는 ‘홍익인간’이 내포하는 의미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홍익인간’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실천이념으로 ‘전인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가는 교과편제와 특별활동 및 행사,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및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각 시대흐름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국가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가교육과정의 실천이념으로서의 ‘전인교육(全人敎育)’이란 한국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지식과 문화적 감수성, 교양 있는 인격과 가치태도,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균형 있게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원양성과정이나 연수 시스템, 학사운영시스템, 교육기관 및 학교 행정 시스템, 재정운영, 시설과 인력 투자, 재정확보 등의 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은 현실적으로 교과교육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은 부차적인 영역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기관은 학교 교육과정의 균형 있는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의 핵심 축은 특별활동과 행사활동, 방과 후 학교,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 등이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이 교과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2) 학교 교육활동의 총결산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축제 활성화

제7차 국가교육과정에서 학교교육 활동은 크게 교과교육과 특별활동(자치활동, 계발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시책에 따라 ‘방과후 학교’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학교축제는 이러한 종합적 활동의 과정과 내용이 학교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그리

고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축제는 학생회, 계발활동과 상설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자치활동을 매개로 해서 극대화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서 학교 공동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과 경험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역점을 두고 강조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의 학생들에게서 창의적인 학생문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서 체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학교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주5일 수업제의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심지어 프랑스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4일 수업제가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⁶⁾.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용의 기회 확보와 그동안 학교중심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되는 교육 역할분담에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력 신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학교교육의 담장은 빠른 속도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역할분담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학교축제는 이전과 다른 진일보한 의미를 갖게 되며 형식과 추진과정 및 내용면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교류, 참여를 요구한다.

3. 성공적인 학교축제의 방향 모색

입시교육의 체계에 묶여 있는 청소년들에게 축제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인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비일상적 역동성을 찾아내는 측면이나 문화적 감수성 확대와 창의력 개발의 장으로서 학교축제가 가지는 의미는 충분히 발현되어야 한다. 청소년축제 본연의 의미와 가치인 비일상적 역동성의 탐색이나 인간주의적 가치관의 체화, 축제의 비일상성에서 경험되는 자기 내면의 자아 찾기, 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성 경험 등을 충분히 발현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주체성, 독립성, 문화의식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감수성의 발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제 속의 일탈은 일상으로부터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일상의 변형들 속에서 삶의 무기력을 일깨우고 새로운 활력과 의지를 가지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축제에서는 무엇보다도 공동체 성원들 전부가 공감할 수 있는, 즉 기분을 통일할 수 있는 주제가 있어야 하며, 그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외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6) 2005. 전국음악교과모임 현장 답사 보고서 「독일과 프랑스 음악교육 현장을 가다」



그림 2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축제사례



그림 3 축제모습

표 2 성공적인 학교축제

구분	내용
성공적인 학교축제의 의미와 가치	• 축제본연의 의미와 가치 - 인간의 유희적 본성이 문화적으로 표현된 놀이 - 축제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놀이는 비일상적이고 비생산적임 - 축제는 일상과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일 • 청소년 축제 본연의 의미와 가치 - 비일상적 역동성의 탐색 - 인간주의적 가치관의 체화 - 자기내면의 자아찾기 - 학교공동체의 연대성 경험 - 문화적 감수성의 확대와 창의력 개발 - 자기주도적 학습의 기회
성공적인 학교축제의 조건들	• 학교장과 교사가 학교축제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기 - 학생들에게 자기발현의 기회제공 - 의례적인 인사치레 축소 등 과감한 시도의 허용 • 자기학교만의 축제 아이템 잡기 - 동아리, 학교장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학교 학생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자기 학교만의 특징과 주제정하기 • 축제주제를 표현할 외부적인 장치허용 - 일상로부터의 일탈에 대한 부분적인 허용 : 축제를 위한 공간(교실-축제공간 등), 관계(교사-학생) 등 - 정기성 확보 : 일정한 시기, 모든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시기 - 일상과는 다른 축제의 상징과 네이밍 - 홍보와 마케팅
참고	※ 학생만족도 저하요인 - 제한적인 학생참여 - 축제기획력 부족 - 학교 측의 지나친 규제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바꾸기나 교장, 교사뿐만 아니라 축제에 참가하는 모든 외부 참가자들까지 분장이나 가면 등을 통하여 하나의 기분 만들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동아리나 특기생들의 공연을 관람하거나, 짜여진 판 속에서 게임에 참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가자 전체가 주인공이 되어 축제에 몰입할 수 있는 축제기획이 필요하다.

학교축제는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만족도가 낮은 주요 요인으로 제한적인 학생 참여, 축제기획력 부족, 학교 측의 지나친 규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축제의 발전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학교축제에서 학생 참여의 확대

학생 중심의 축제운영을 위한 학생 참여조직으로 학생축제기획단의 구성과 역할·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축제기획단으로 학생회 임원과 동아리회장단을 임명하고 있다. 그

런데 학생축제기획단은 가능하면 학생회, 동아리와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학생회는 그 역할과 기능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학생보다는 학교의 대변인 역할로 더 많이 인식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으로서 학교축제에 몰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 학생회 임원들은 일상적인 학생회 활동만으로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어서 과중한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아리 회장단의 경우도 공연활동 경험이라는 점은 장점이겠지만, 이들이 기획단의 주체가 되면 일부 동아리 중심으로 축제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학교축제 지원금의 대부분이 동아리공연이나 전시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들이 일부 동아리들의 잔치로 학교축제를 인식하는 상황에서 전체 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기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학생축제기획단은 축제를 만드는 기구가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며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축제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많은 학생들에게서 학교축제가 학생축제기획단과 주변 학생의 잔치라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생축제기획단은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각 그룹(동아리그룹, 학년별 대표그룹 등)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면서 교사와의 매개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기획단은 축제의 일부 행사만 담당하는 기구가 아니다. 교사와 일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면서, 축제기획에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축제의 기획·운영·예산의 수립과 집행 등에서 학생축제기획단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학교축제에서 학생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학생회 임원이나 동아리 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거나, 부족하다”, “일부 학생들의 잔치에 머물고 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교축제가 학교별로 큰 차별성 없이 공연·전시 관람-체험마당-먹거리장터라는 판에 박힌 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학생들은 대안으로서 “학교별 특색이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여야 한다”, “학교 개방 행사여야 한다”, “학교에서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일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 많은 축제기획의 과정에서 ‘아이디어 발상’이나 ‘의식의 전환’ 같은 문제를 토론할 때조차, 결국 공연이나 전시의 관람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보완한다든지, 혹은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즐기는 타로게임이나 물풍선 떨어뜨리기 등 그때그때 프로그램의 수만 늘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근본 문제 해결 없이 프로그램을 첨삭하는 수준으로는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프로그램의 기획에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다. 학생들이 공감하는 주제를 놓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교축제의 새로운 모형 찾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2) 교사역할 강화

학생들이 제기하는 학교축제의 불만족 요인과 기대방향에는 학교의 규제와 간섭에 대한 내용

이 들어 있다. 학생들은 ‘학교 교사도 함께 어울리고, 동일하게 참여하는 – 귀신복장도 함께 하는’ 학교축제에 대한 기대가 있는 반면, 교사와 교장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전 2004년 8월, 부천 관내 고등학교 12개교, 15명의 축제담당교사와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이 함께 자리한 “2004 학생축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교사간담회”에서 개진된 교사들의 의견에서도 드러난 바가 있다.

축제담당교사는 학생들과 학교장 등 학교대표와의 매개역할을 담당하면서 점진적으로 학교의 다른 교사, 학교장 등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나아가 성공적이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축제를 기획·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표 3 교사의 역할강화

방안	내용
담당교사선정	- 축제에 관심있는 교사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선정이 바람직
권한	- 인센티브, 권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정보교류와 연계	- 학교축제라는 분야에 대한 생소함과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두려움 - 일상적인 문화동아리 등 교사모임 중요 - 학교간, 교사들 간의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

첫째, 자발적 의지에 의한 축제담당교사를 선정해야 한다. 학교축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특별히 축제에 관심이 있는 교사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하여 선정되지 않고 특별활동(CA)부장이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다. 이는 현재의 학교축제가 동아리공연이나 전시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으며, 동아리 학생들은 특별활동부서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들은 업무부담의 이유로 학교축제 담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문화에 대한 이해나 축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음으로써 두려움과 당혹감을 느끼며 학교장 등 상사의 질책을 받지 않는 수준에서 치러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림 4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따라서 축제담당교사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지도 등 기존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원자로 구성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교사들 중에는 락이나 재즈, 연극 같은 예술 활동을 선호하면서 학생들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다. 특히 문화축제기획 분야에 대한 흥미를 가진 교사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 축제담당 교사들 간의 정보교류와 연계가 필요하다. 교사들은 학교축제라는 분야에 생소함과 정보 부족을 느끼고 있다. 담당교사들 간의 정보교류나 자료교환을 통하여 교사들은 타 학교의 축제실태를 알 수 있고, 학생들의 일상 활동과 축제에 대한 요구 등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축제담당교사가 학생축제기획단과 함께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는 학교축제의 경험은 교사와 학생, 학생들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감을 높이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축제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3)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의 활용

학교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의 하나로 기존의 지역축제가 가진 축제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지역축제에 대한 내용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경우 지역 공동체 마인드 형성,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다문화 교육, 문화·정치 교육,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교교육의 장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은 기본적으로 지역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주민들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 상징의 고유성과 그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사회활동과 정서적 경험이다. 어떤 지역 사회에서 개인이 가진 풍부한 경험, 유대 관계, 지역에 대한 친숙함 등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의 특성이 주민들에게 내재화된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작용을 통하여 주민 공동의 경험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1)’ 8종 교과서 중 2종에서, 고등학교 ‘사회 문화’ 8종 교과서 중 5종에서 축제를 학습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축제는 <표4>에서 보듯이 ‘세계화’와 ‘지역화’를 설명하면서 예시로 등장한다.

표 4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지역 축제

교과서	단원	내용	축제명
교학사1	V.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 지역화에 의한 지역 구조의 변동과 생활 변화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지역행사를 참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151쪽) -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지역성이 잘 나타나는 문화제 행사를 소개하여 세계화와 지역화의 개념을 토론하고 분석하도록 함(144쪽)	- 부산국제영화제 소개 - 화성문화제 - 2000경주세계문화엑스포 - 강원국제관광엑스포 - 청주국제항공엑스포 - 이천세계도자기엑스포
	X.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 지역축제를 소개하고 지방자치제가 지역성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토론하도록 함(295-296쪽)	- 부산국제영화제 - 과천세계마당극큰잔치

교과서	단원	내용	축제명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V. 문화권과 지구 촌의 형성	- 세계화와 지역화를 다루면서 각 지역 사회의 세계화 노력 소개(165-167쪽)	- 2001세계도자기축제 - 춘천인형극제 - 백제문화제 - 안동국제페스티벌 - 자갈치문화관광축제 - 광주비엔날레
대한 교과서	IV. 인간과 문화 현상의 이해	- 문화변동과 민족 문화의 발전의 탐구활동에서 문화 민주주의와 지역주민이 이끌어가는 지역문화를 소개(174-175쪽) - 책 뒤편에 세계 속의 우리 문화라고 하여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을 사진으로 소개	- 청소소싸움축제 - 진도의 창작민요극
금성 출판사	IV. 인간과 문화현 상의 이해	- 문화변동과 민족문화의 발전에서 지역문화를 소개하면서 최근 지방자치 단체나 지역민 중심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소개(176쪽)	- 세계도자기엑스포축제
법문사	III. 공동체 생활과 지역사회	-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에서 살기 좋은 공동체 형성 방안에 지역 주민들이 소속 의식을 강화하고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113쪽)	- 남원의 춘향제 - 진주의 군향제 - 고령의 대가야제 - 공주백제문화제
	IV. 인간과 문화 현상의 이해	- 문화 변동과 민족문화의 발전에서 지역문화는 전체문화에 대해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소개(165쪽)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서는 난타 공연소개(167쪽)	- 전주의 대사습놀이 - 남원의 춘향제
지학사	IV. 인간과 문화현 상의 이해	- 문화 변동과 민족문화의 발전에서 지역문화소개(161쪽)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서 농악 소개	- 백제 문화제 - 부산 바다 축제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III. 공동체 생활과 지역사회	- 국제화에 따른 지역 이미지 형성과 경쟁력 강화(138쪽) -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노력과 반성에서 지역 공동체의 축제소개(147쪽)	- 이천세계도자기엑스포 - 제주섬문화축제 - 안동국제탈춤축제

주민들의 감정과 사고는 축제라는 집단적 상호 작용에 의해 지역의 전통으로 유지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나간다. 또한 주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공동체의식 함양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지역 주민으로서 역할을 할 학생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익히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지역학습의 중요한 과제이다.

축제에는 유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전통 의례, 관습, 언어, 무용 등도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양식의 지속적인 보전과 건강한 계승이 중요한 과제이며 축제야말로 전통 문화와 연희를 보전하는 가장 건실한 제도이다(서연호, 1994:51). 이와 같이 축제가 갖는 전통문화의 축적성은 교육적 가치를 높인다. 전통문화가 지속적으로 보존되기 위해서는 세대간에 단절 없이 계속되는 전수과정, 현대적 맥락에 따른 재창조 등의 복합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역단위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 축제는 이벤트화, 향락화, 획일화 되고 있다. 이에 각 지역 고유의 전통적 요소가 담긴 독창적인 축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거주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함께 경험을 공유한다면 지역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문화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우리의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공동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성원들의 사회·문화적 생활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과정의 자연적 단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삶의 양식이 축적되어 타 지역공동체와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지역축제는 이러한 지역의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는 장이므로 타 지역과 구별되는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가 및 문화전문가들과 자연스런 교류가 일어나고 이들과 지속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져서 지역의 인적자원의 활용도 용이해지게 될 것이다

4.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 활성화 방향

학교축제는 ‘입시’ 혹은 ‘학업’이라는 학생들의 일상성으로부터 해방과 아울러 지속적인 삶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학교축제가 기성 축제처럼 삶의 일탈성을 넘어서 퇴폐적으로 혹은 지나친 대중성만을 지향하는 측면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학교축제는 학교라는 장소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형식적으로나 체계적으로 하나의 틀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데, 바로 이것이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축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축제 집행위원회가 구성되고, 교사와 학부모들 그리고 넓게는 지역의 유지나 지자체 장들이 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학교 축제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그 학교 축제를 통해 학생과 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 축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정리해 보자.

첫째, 학교 축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는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에 대한 교육계획이 있고, 각 부별 활동계획이 있으며 월별 행사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제시된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과 각부의 계획 및 행사활동의 결과로 나오는 작품이나 성과가 바로 학교축제의 전시물과 특기·적성 발표로 이어질 때 학교축제로 인한 수업결손과 참여자의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림 5 전시모습



그림 6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만들어가는 축제

둘째, 학교 축제는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즐겁게 소통하는 놀이 공간이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은 평소에 틈틈이 갖고 닦은 자신의 작품이나 특기를 발표하고, 참관하는 사람들은 부담 없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작품을 다른 사람의 작품과 비교하면서 상호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자신과 타인, 집단과 집단, 세대와 세대간의 문화와 의견들이 소통되는 과정 속에 축제가 발전할 수 있으며, 축제의 내용도 다양한 문화적 방식으로 세상과 즐거운 소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교축제는 개개인 역할이 살아있는 다양한 참여의 과정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축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교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특성이 다르다. 따라서 축제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 이웃 학교와 똑같은 판에 박힌 축제를 배제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축제 콘텐츠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축제는 발전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축제가 다른 축제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에는 살아있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다. 시작과 끝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일상을 담아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일중 하나가 각 자에 맞는 역할 찾기이다.⁷⁾ 축제를 만들어가는 상황과 목적 등에 따라 역할의 배분은 달라질 수 있다.

넷째, 학교축제는 교육 지향적이어야 한다. 학교축제에서 한번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다면 이것은 다분히 비교육적이다. 학교축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진 특기와 적성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학교축제는 1년간의 학교교육 활동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함께 참여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는 좋은 기회이다. 학교 축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학교축제를 학교 교육과정과 별도의 행사라고 생각할 때 학교에서는 추진이 힘들어지고 학생들, 특히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참여하기 힘들다. 1년간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리하여 다른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학교축제는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큰 부담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고 무척 유익한 행사가 될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축제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작품이나 공연을 보고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지역민은 학교축제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교가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삶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축제를 통해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학교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려는 마음이 우러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이루어진 교육공동체는 이들이 적극 참여하고, 교육공동체가 나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을 가질 때 발전한다. 학교 축제를 함께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과 교사 간 상호 소통하고 깊이 있는 이해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림 7 전시회와 장터 프로그램

7) 청소년축제를 포함한 많은 축제의 운영형태는 보통 축제의 핵심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주관단체(청소년기획조직 포함)가 축제의 실행주체가 되고, 지역의 단체나 조직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이를 지원하는 지원주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역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이 오는 경우도 많다. 즉 청소년 기획단의 역할, 주관단체의 역할, 지역 네트워크의 역할 등에 대한 혼란이다. 현실적으로 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제의 운영과 예산을 담당할 수 있는 주관단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주관단체가 축제에 참여하는 네트워크와의 합의와 공유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일방적인 태도로 축제를 진행하려 했을 때는 많은 단체와 조직 간의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 때문에 축제를 만들어가는 많은 주체들의 원활한 역할분배와 축제의 방향설정과 운영을 위한 합의와 공유의 과정은 지역 네트워크 유지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학교축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축제가 교육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 중에는 청소년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실천해볼 수 있는 경험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미리 준비되고 짜여진 틀을 제공받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소통 방식을 경험하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축제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실험이 시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축제 초기의 목적을 지역 내 청소년 동아리들의 교류에 두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 내 열악한 청소년 동아리의 발굴과 지원에 목적을 두고, 또 다음 단계에서는 지역 내 모든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또는 다른 지역 동아리와의 교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 과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특성, 참여 주체들의 특성,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단계별(장기적) 성장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⁸⁾ 즐거운 놀이에서 시작하여, 청소년의 인권, 학교교육의 문제, 지역사회 환경의 문제, 청소년 시설과 공간 확충을 위한 요구 등 다양한 목적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성장과정 자체가 대안적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는 단계도 축제의 중요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나온 축제에 대한 기록과 정리는 현재의 시점부터 만들어 가야할 축제의 정체성에 근거가 된다. 축제의 과정과 진행에 대한 기록과 정리는 축제의 객관적인 평가와도 직결되며, 다음 축제의 예측을 위한 최고의 자료가 되기도 한다. 기록과 정리를 통한 평가의 단계도 축제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의미가 아닌 [기록을 근거한 정리 -정리를 근거한 평가-평가를 근거한 다음계획 세우기]로 이어지는 중요한 축제의 단계라고 말 할 수 있다. 평소 축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또한 기록과 정리의 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형화된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아닌 경험과 능력에 맞는 기록과 정리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축제가 가지는 교육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기획 과정에서의 설계자료, 홍보자료, 회의록, 모니터 보고서 등의 문서기록을 포함하여 사진과 영상 등을 담아낼 수 있다면 축제의 성과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청소년축제의 사례로서의 제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8) 보통 지역사회 청소년문화축제가 다양한 네트워크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하기까지는 5년 이상의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 자체가 지역과 주체의 성장과정이기때 결과와 성과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3

제 3 장 학교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3

제 3 장 학교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교육과정과 학교축제

1998년 10월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비전 2002-새 학교문화 창조」 계획은 그 이전까지의 계획서와는 달리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주된 것들을 정리하면, ①대학이 무시험으로 학생 선발 ②학습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체험 요청 ③학생중심의 토론 활성화 ④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보다 학생들의 참여 중시 ⑤객관식 평가에서 수행평가 중심으로 전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하여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1년도 전부터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현장 체험, 토론 활성화, 학생 참여 중시, 수행 평가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교육의 비전으로 제시함으로써 ‘새 학교문화 창조’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표 5 방과후 학교활동 강화방안

방안	그 내용
1. 교내 방과후 교육활동 지속추진	- 학생의 요구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사회 내 시민단체, 직능단체, 예술인 등을 우수 강사로 초빙
2.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	- 참여하는 학생은 학운위 심의를 통한 최소한의 경비 부담 - 인근학교 간 시설 공유 및 강사 교류
3. 학교 밖 문화활동 참여 시수인증제 시범운영	- 공공기관의 학술강좌,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에 참여한 결과를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인정
4. 체험학습의 날 운영 권장	- 전일제 특별활동 운영과 연계하여 주1일 체험학습의 날 운영권장
5. 예체능 아카데미 운영	- 지역교육청, 지역중심학교 주관
6. 지도교사 중심의 선후배 대물림 동아리 활동 활성화	
7. 향토 축제에 적극 참여	
8. 학생회 주관 축제 활성화	- 교내바자회, 학예회, 연극제, 방송제, 문학제 등 - 학교 간 연대 공동 축제 장려 - 지역 인사(인간문화재, 예술인)의 활용 - 지역사회 시설 적극 활용

이를 정리하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이제까지 청소년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여 학교 교육을 왜곡시켜 온 입시위주·교사 중심의 수업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이 개념은 학생이 자신의 학업 성취 수준과 적성을 발견하고 키우며,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것이다. 따라서 새 학교문화 창조는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삶과 배움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민주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자아실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의성 신장 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구해 나가는 일상의 교육 실천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여섯 개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다양한 체험학습 수행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방과 후 교육활동 강화가 제시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축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바로 7차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획일화된 교육에서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된 학교교육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이 제대로 실천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이다.

청소년들은 이제 당당히 그들에게 금지되어 있는 각종 특권적 행위의 유예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적 권리를 기본으로 하여 일을 통한 사회적 참여를 시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존재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청소년의 존재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예술교육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입시교육 중심의 학교교육이 음악, 미술 등 예술교육에 대한 수업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있고, 우리나라 혹은 외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감상이나 교육기회의 박탈, 대중문화에 대한 경시(심지어 문제행동으로 취급하기까지 함) 등이 맞물려서 그 종착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에 내몰린 것이 우리의 예술교육이다.



그림 8 일반적인 학교축제의 모습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요즈음은 청소년 대중스타들의 부각과 함께 굴뚝 없는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등의 구호와 함께 대중문화 산업론까지 가세하여 예술교육, 예술활동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보다는 편향성마저 가세하고 있다.

청소년의 존재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예술교육의 현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문화행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제시대부터 답습해 오던 ‘예능대회’의 반복, 전시행정에서 청소년이 동원되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사회 축제, 동아리 발표회나 학생·학부모 작품전시회로 일관하는 학교축제 등에서 변화한 청소년의 존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당연히 청소년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만족도가 떨어지며, 행사 자체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축제란 이름으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꿈과 사랑의 축제’ 등의 이름으로 학부모를 초대하여 반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예능 특기학생의 공연 관람을 하는 정도이고 중·고교의 경우 동아리발표회, 풍선 터뜨리기 같은 놀이마당, 체육행사 등의 내용들로 구성된 학교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9 학예회 모습

고교생들은 학교축제의 한계로 흔히 학교라는 장소의 문제와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들의 축제에 대한 물이해를 꼽는다.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학교라는 장소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극히 비문화적인 공간이다.(청소년들은 가장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감옥을 들기도 한다)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와 학교장의 축제기피 의식, 업무과다로 시달리는 학예부장이나 교무부장 등 담당교사의 어려움이 학교축제가 학생들의 진정한 축제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축제란 장기간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체화되는 것이고, 이런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발판으로 하여 그 관심의 강도가 커져가고 창의성도 발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축제가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다음에 제시될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최소한 중등학교의 경우에 축제담당교사와 학생들이 현재 자신들이 참여하고 기획하는 축제에 대한 견해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학교축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학생들의 학교축제모습

제2절 학교축제 현황 및 분석

학교축제의 현황은 중학교 축제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서울, 인천, 경기지역 소재 학교의 축제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메일을 통해서 실시하였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중학교 총 모집단 수는 모두 978개교이고,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유효설문지 총 수는 모두 480개로 조사참여율은 49.1%였다.

학교축제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현재 학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현황과악(축제개최횟수, 축제형태, 축제만족도), 축제의 기획의도와 기획방침, 축제발전의 저해요소, 축제의 주관부서 및 핵심운영자, 축제의 예산 및 지출현황, 축제의 시기 및 장소, 축제의 성격과 형태, 지역사회와의 연계정도와 양태, 축제운영의 문제점 등을 묻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결과 분석은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군지역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1. 학교축제의 시공간적 배경

축제의 시기는 가을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개최기간은 평균 1.7일로 나타났으나 이것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의 경우 3일 동안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평균 축제일수가 1.9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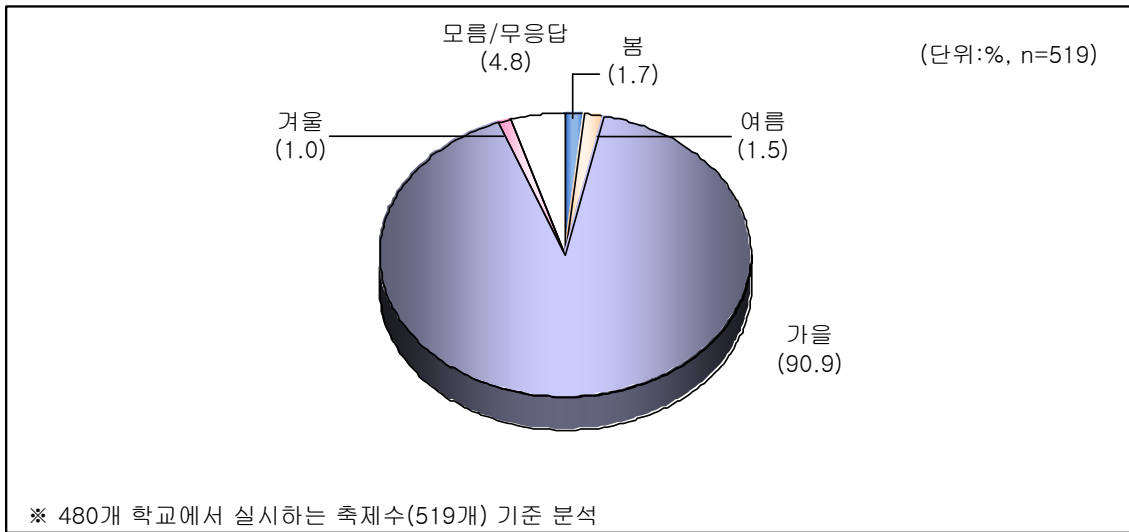


그림 11 개최 시기

표 6 학교 소재지 규모별 개최 시기 (단위:%, n=519)

	사례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름/무응답
특별시	(172)	1.5	1.5	93.2	1.0	2.9
광역시지역	(71)	0.0	0.0	97.2	0.0	2.8
시지역	(215)	2.3	1.8	87.7	1.4	6.8
군지역	(22)	4.5	4.5	81.8	0.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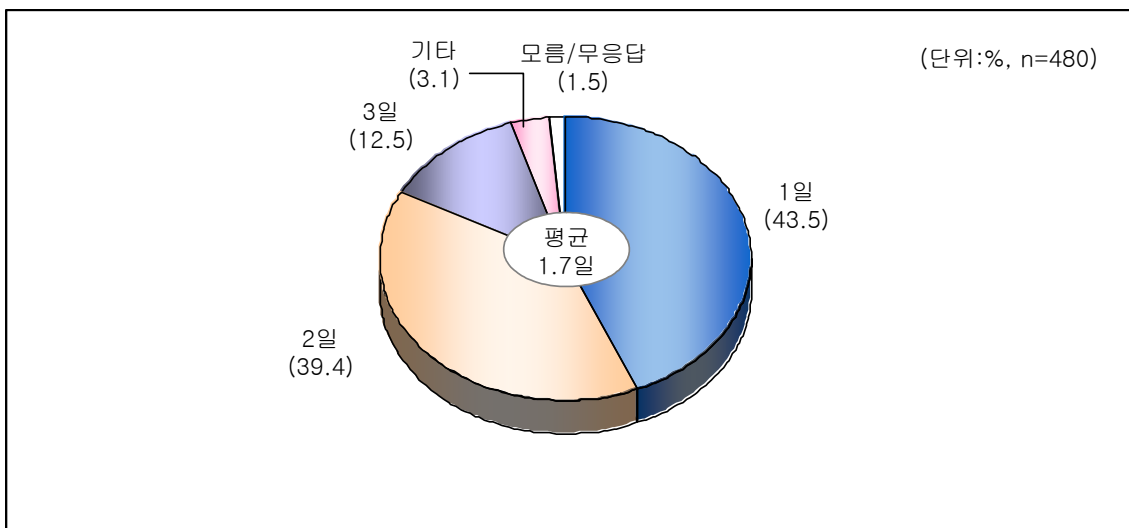


그림 12 개최기간

표 7 학교 소재지 규모별 개최 기간

(단위:%, n=480)

	사례수	1일	2일	3일	기타	무응답	평균
특별시	(172)	34.9	28.5	29.1	5.8	1.7	1.9
광역시지역	(71)	45.1	47.9	4.2	1.4	1.4	1.6
시지역	(215)	49.8	45.1	2.3	1.4	1.4	1.5
군지역	(22)	45.5	40.9	9.1	4.5	0.0	1.6

2. 축제의 예산

축제의 예산은 평균 308.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시가 322.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군지역은 23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학교는 8.5%에 불과하고, 300만원 이하의 예산으로 학교축제가 운영되는 학교가 63.8%를 보여서 대부분의 학교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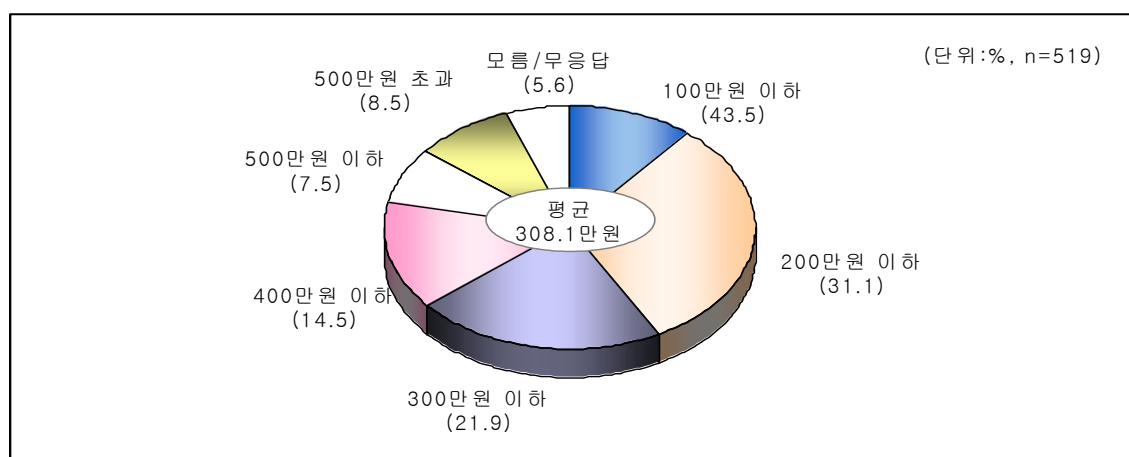


그림 13 축제 예산

표 8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 예산

(단위:%, n=519)

	사례수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600만원 이하	모름/무응답	평균 (만원)
특별시	(172)	14.2	32.8	22.1	12.3	4.9	8.8	4.9	298.2
광역시지역	(71)	6.9	23.6	20.8	29.2	9.7	4.2	5.6	310.4
시지역	(215)	8.7	30.6	22.4	12.3	9.6	10.0	6.4	322.5
군지역	(22)	13.6	45.5	18.2	9.1	4.5	4.5	4.5	239.0

또한 축제예산의 대부분이 기자재 및 시설비, 또는 재료 및 운영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서 축제의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과 관련된 항목으로 지출되는 것은 거의 없었고, 단지 동

아리 활동비 명목으로 19.2%가 지원된 것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의 내용은 담당교사의 개인적인 노력과 아이디어 개발, 그리고 개별 학생들의 개별적 발표 등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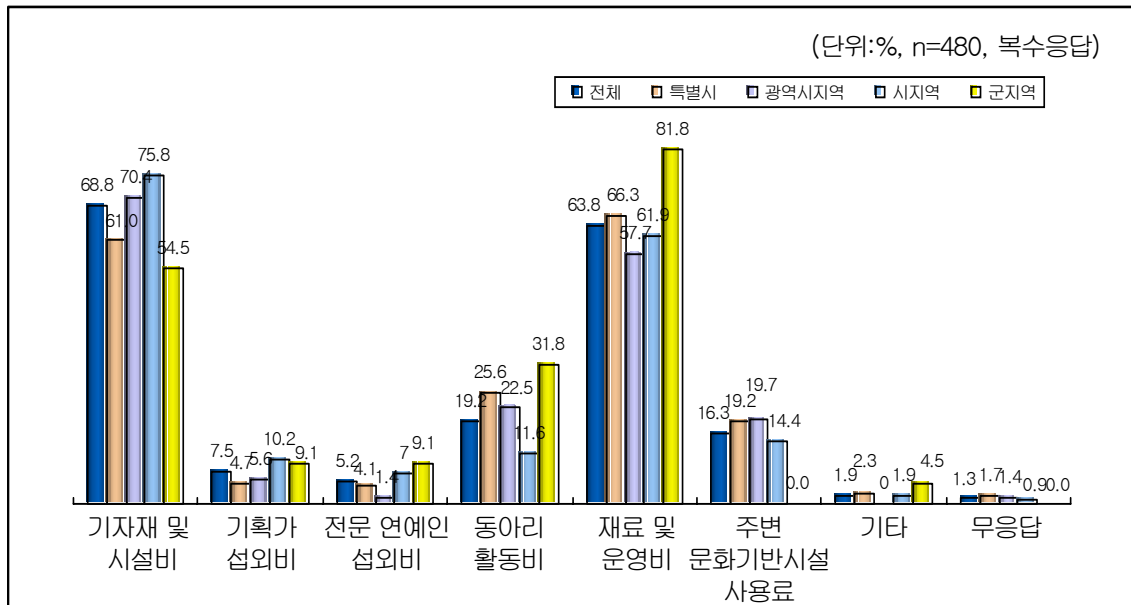


그림 14 축제예산의 지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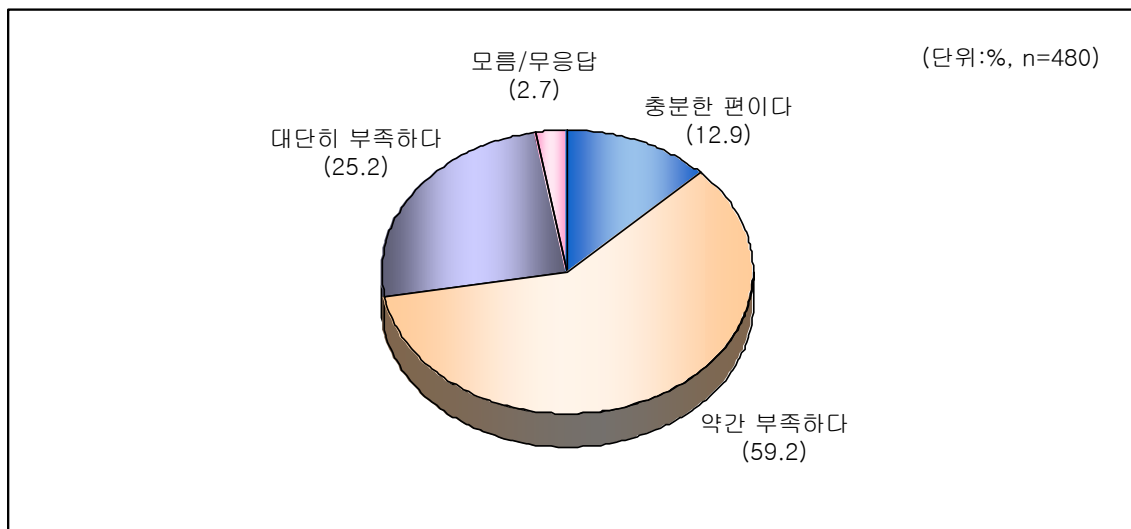


그림 15 예산정도

표 9 학교 소재지 규모별 예산정도

(단위:%, n=480)

	사례수	충분한 편이다	약간 부족하다	대단히 부족하다	무응답
특별시	(172)	15.7	67.4	13.4	3.5
광역시지역	(71)	5.6	60.6	29.6	4.2
시지역	(215)	13.0	54.4	31.6	0.9
군지역	(22)	13.6	36.4	40.9	9.1

축제예산의 열악성 정도에 비해서 예산의 충분도를 묻는 항목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대답한 비율인 25.2%이고, 약간 부족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59.2%로 나타나서 조심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축제담당교사들이 상당한 예산을 운영하게 될 때 가중되는 부담이 고려된 대답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충분하다고 대답한 비율도 12.9%로 나타나서 예산의 부족 정도가 모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제의 내용과 규모가 달라질 경우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축제의 예산으로 적당한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500~700만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예산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때, 현재의 축제예산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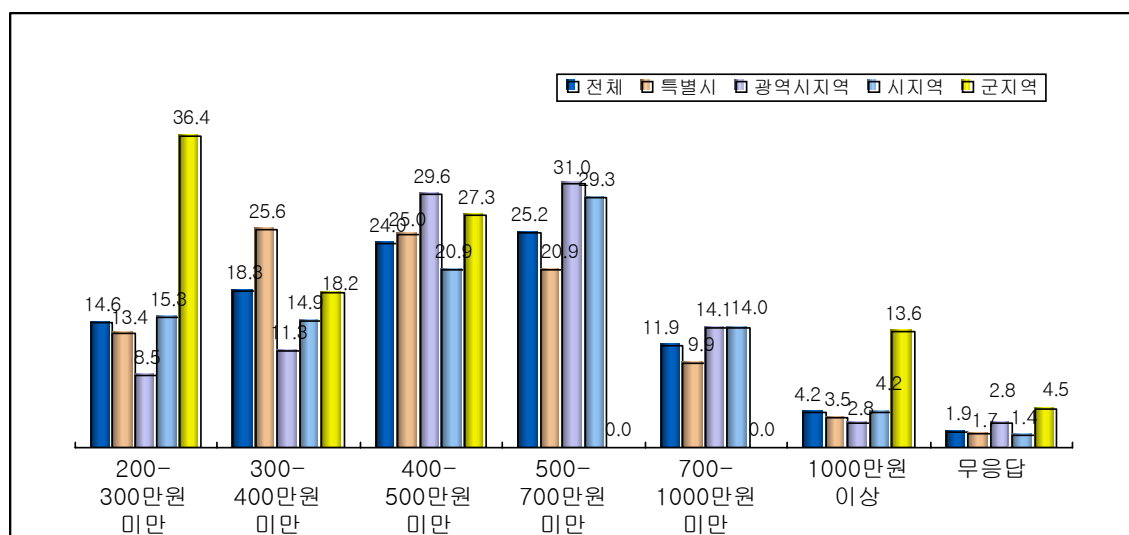


그림 16 축제예산에 대한 지역별 충분도

3. 축제의 내용과 장소

복수 응답을 요구했던 축제의 내용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전시회가 61.7%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그 다음이 각종발표회로 45.6%를 보였다. 그러나 지역연계프로그램은 3.3%, 바자회 등 참여프로그램은 10.8%를 보여서 학생들의 직접참여와 지역사회와의 축제를 통한 교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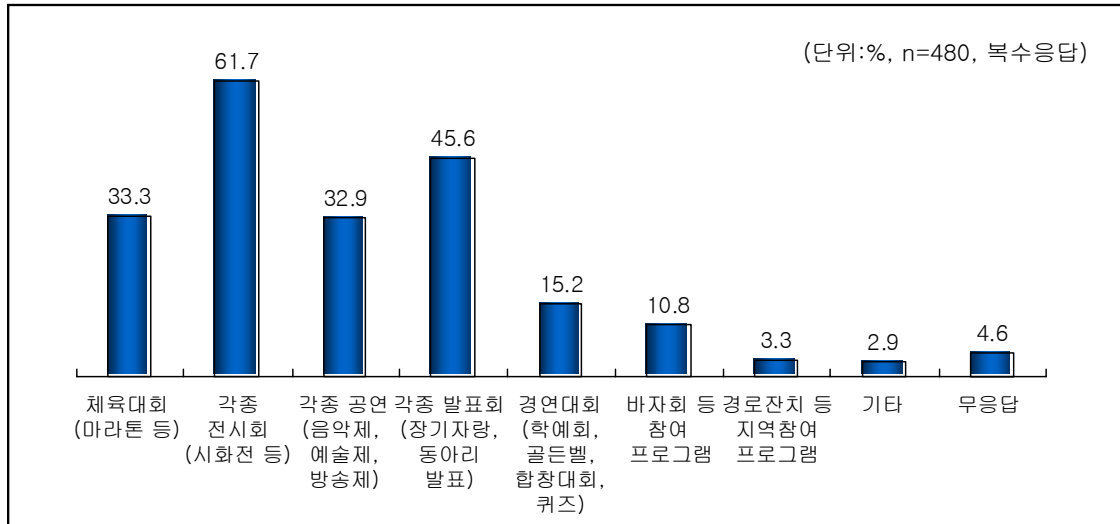


그림 17 축제의 내용

표 10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의 내용

(단위:%, n=519)

	사례수	체육대회 (마라톤 등)	각종 전시회 (시화전 등)	각종 공연 (음악제, 예술제, 방송제)	각종 발표회 (장기자랑, 동아리 발표)	경연대회 (학예회, 골든벨, 합창대회, 퀴즈)	바자회 등 참여 프로그램	경로잔치 등 지역참여 프로그램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24.4	65.7	34.3	50.6	10.5	14.0	4.7	1.7	4.1
광역시지역	(71)	29.6	64.8	40.8	42.3	11.3	19.7	1.4	1.4	2.8
시지역	(215)	39.1	56.1	28.8	43.3	20.5	6.0	3.3	3.7	5.6
군지역	(22)	59.1	54.5	36.4	40.9	13.6	4.5	0.0	9.1	4.5

이러한 설문결과는 축제의 장소로서 전체의 63.8%가 학교 안에서 축제가 진행된다고 대답한 것과 관련을 가진다고 본다. 학교외부의 특정시설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학교는 12.3%에 불과하였다. 즉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시설이용정도도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학교축제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고 지역민들과는 배타적인 관계에서 연회되는 단순한 행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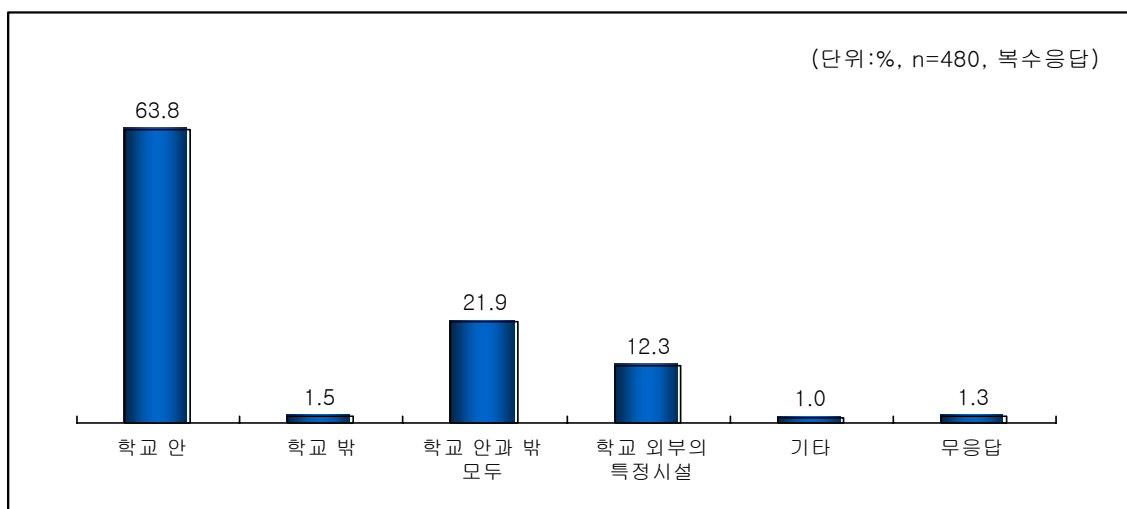


그림 18 축제의 장소

표 11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의 장소 (단위:%, n=480, 복수응답)

	사례수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안과 밖 모두	학교 외부의 특정시설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59.3	1.2	23.3	16.3	0.6	1.2
광역시지역	(71)	71.8	0.0	16.9	16.9	0.0	1.4
시지역	(215)	63.3	1.9	23.7	8.8	0.9	1.4
군지역	(22)	77.3	4.5	9.1	0.0	9.1	0.0

4. 축제의 기획과 운영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학생생활부가 45.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기타가 44.2%로 나타났다. 이 대답에서는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교과담당교사가 주관하는 학교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축제의 핵심운영자가 지도교사라고 대답한 비율이 57.1%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축제기획단에서 운영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24.6%로 나타나서 아직까지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축제기획단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67.5%의 학교에서 축제담당교사가 주축이 되어 축제가 운영된다고 대답한 것으로 봐서 여전히 학교축제는 체계적인 운영체에 의해서 조직되기보다는 축제담당교사의 개인적인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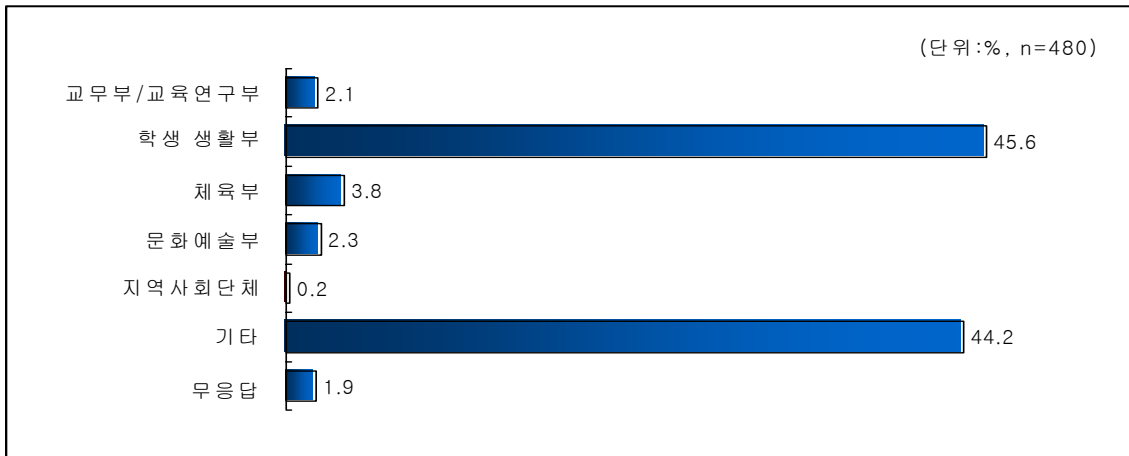


그림 19 주관부서

표 12 학교 소재지 규모별 주관부서 (단위:%, n=480)

	사례수	교무부/ 교육연구부	학생 생활부	체육부	문화 예술부	지역사회 단체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0.0	4.1	2.3	2.3	0.6	86.6	4.1
광역시지역	(71)	2.8	87.3	0.0	2.8	0.0	7.0	0.0
시지역	(215)	2.8	61.9	6.0	2.3	0.0	26.0	0.9
군지역	(22)	9.1	77.3	4.5	0.0	0.0	9.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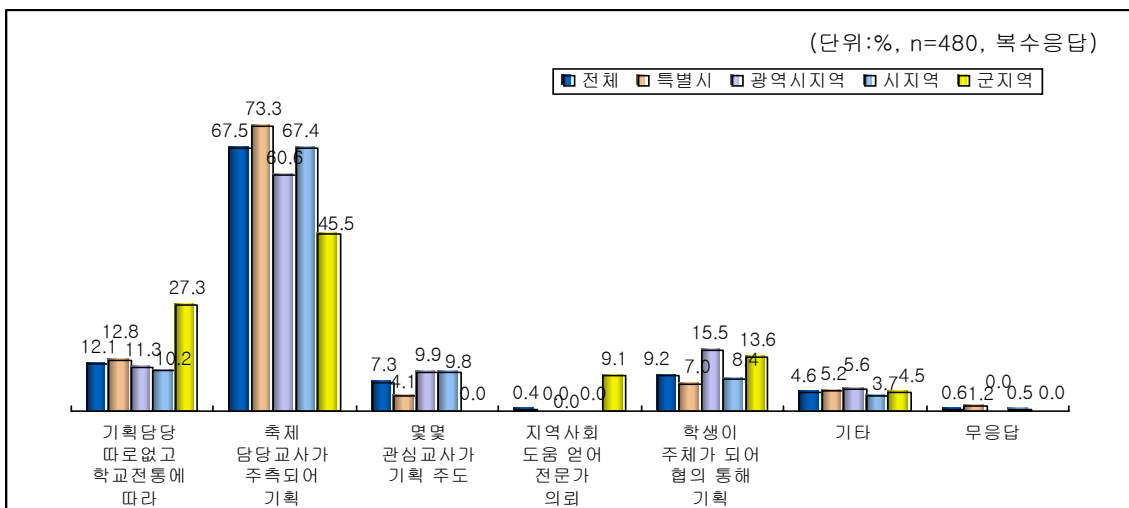


그림 20 지역별 축제 주관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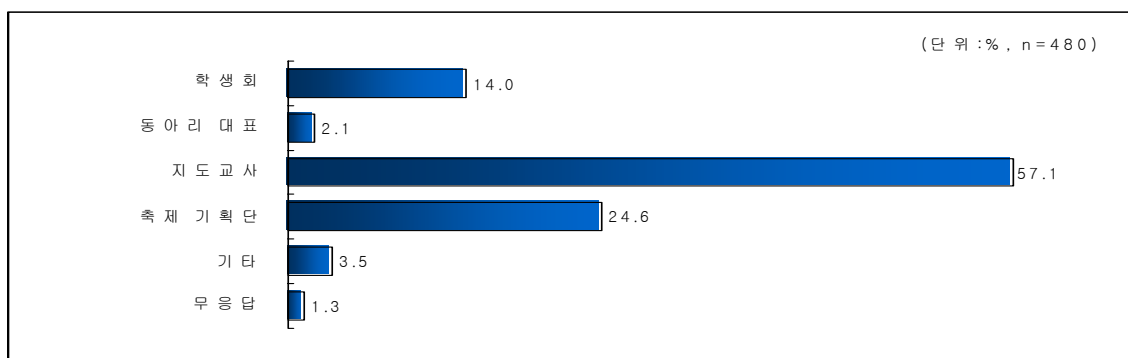


그림 21 핵심운영자

표 13 학교 소재지 규모별 핵심운영자

(단위: %, n=480)

	사례수	학생회	동아리대표	지도교사	축제기획단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11.6	3.5	59.9	20.9	5.8	1.7
광역시지역	(71)	25.4	1.4	42.3	33.8	2.8	0.0
시지역	(215)	11.6	1.4	59.1	25.6	1.9	1.4
군지역	(22)	18.2	0.0	63.6	13.6	4.5	0.0

5. 축제의 발전과 성공여부

축제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된 것이 콘텐츠의 부족(46.7%), 학교당국의 부족한 예산지원과 무관심(43.1%), 그리고 학생들의 비적극성(42.7%) 등이었다. 이와 함께 학교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73.5%), 학교집행부의 충분한 예산지원(60.0%) 등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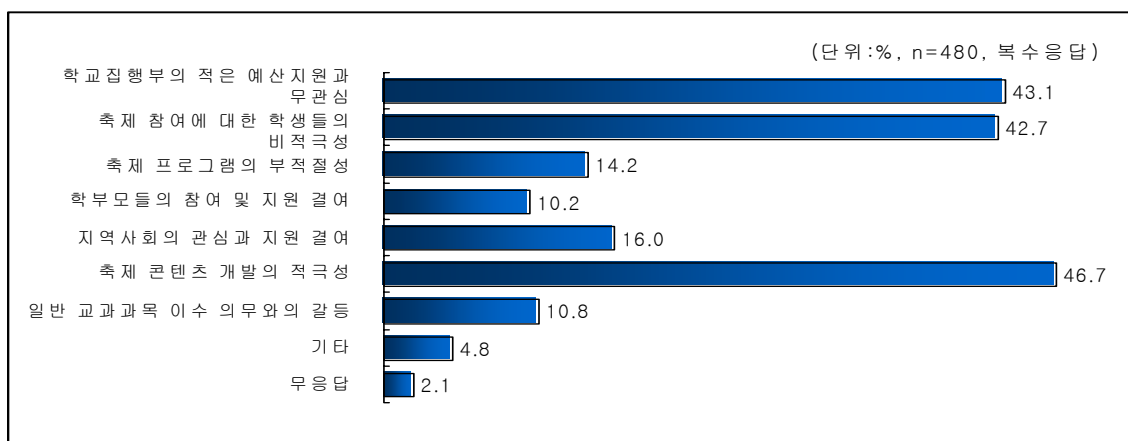


그림 22 축제발전의 저해요소

표 14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발전의 저해요소

(단위:%, n=480, 복수응답)

	사례수	학교 집행부의 적은 예산지원 과 무관심	축제참여 에 대한 학생들의 비적극성	축제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결여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결여	축제 콘텐츠 개발의 적극성	일반 교과과목 이수 의무와의 갈등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41.9	46.5	12.8	11.6	9.9	42.4	13.4	5.8	4.1
광역시지역	(71)	46.5	46.5	14.1	4.2	14.1	53.5	8.5	2.8	0.0
시지역	(215)	41.9	41.4	15.3	10.2	21.9	46.5	8.8	4.7	1.4
군지역	(22)	54.5	13.6	13.6	18.2	13.6	59.1	18.2	4.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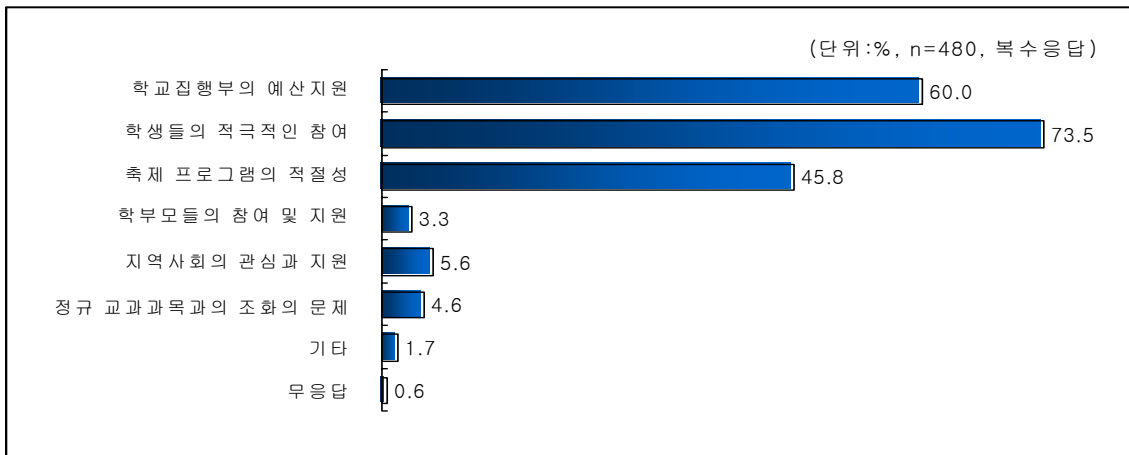


그림 23 축제발전의 성공요소

표 15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발전의 성공요소

(단위:%, n=480, 복수응답)

	사례수	학교 집행부의 예산지원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축제 프로그램의 적절성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정규교과 과목과의 조화의 문제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58.7	77.3	43.0	4.1	1.7	5.2	1.7	1.2
광역시지역	(71)	66.2	87.3	38.0	0.0	4.2	0.0	1.4	0.0
시지역	(215)	59.1	66.5	50.7	3.7	8.4	5.6	1.4	0.5
군지역	(22)	59.1	68.2	45.5	4.5	13.6	4.5	4.5	0.0

6. 축제만족도와 문제점

축제담당교사들 중의 58.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축제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대답하였고, 불만족스럽다거나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교사가 21.1%였다. 물론 이것은 평균치이지만, 불만족을 느껴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의지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축제담당교사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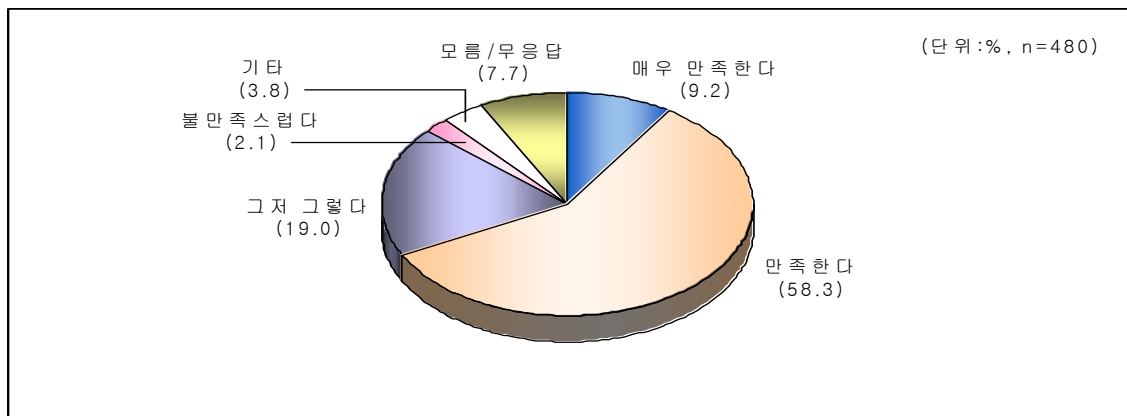


그림 24 축제 만족도

표 16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 만족도 (단위: %, n=480)

	사례수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스럽다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12.8	62.8	12.8	1.7	2.3	7.6
광역시지역	(71)	8.5	64.8	25.4	0.0	0.0	1.4
시지역	(215)	7.0	53.5	20.5	2.8	6.0	10.2
군지역	(22)	4.5	50.0	31.8	4.5	4.5	4.5

축제 진행 상에 제기된 문제점들로 가장 많이 지적된(복수응답) 항목이 축제기획의 전문적 소양이 부족한 것(51.9%)이었다. 예산의 부족은 35.8%가 지적되었고, 이 이외에도 축제에 대한 개념 공유부족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 문제는 축제담당교사에 대한 축제연수프로그램의 참여,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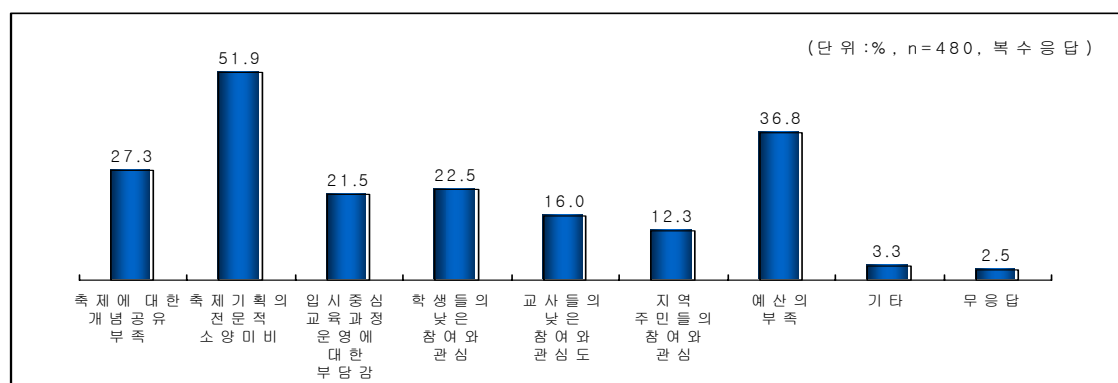


그림 25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별 의견분포

표 17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별 의견분포

(단위:%, n=480, 복수응답)

	사례수	축제에 대한 개념공유 부족	축제 기획의 전문적 소양미비	입시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	학생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교사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지역 주민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예산의 부족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28.5	48.8	24.4	23.8	20.9	11.6	29.7	3.5	3.5
광역시지역	(71)	29.6	59.2	15.5	28.2	14.1	9.9	32.4	2.8	2.8
시지역	(215)	26.0	51.6	21.4	19.5	13.0	14.0	39.5	3.3	1.9
군지역	(22)	22.7	54.5	18.2	22.7	13.6	9.1	59.1	4.5	0.0

7. 축제의 성격과 형태

학교축제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질문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과 학생들의 자기표현의 기회증진과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대답이 각각 78.5%와, 66.7%를 보여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군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의 기초로서 학교축제를 개최한다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비교적 소규모 지역단위 속에 학교가 위치하면서 타 대도시에 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가 비교적 활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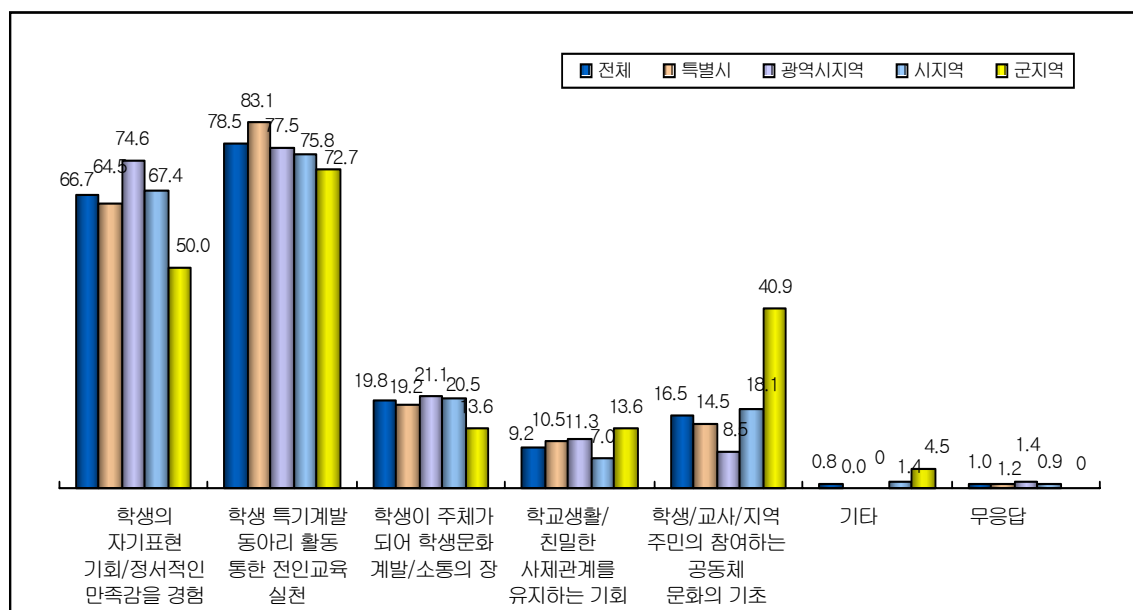


그림 26 축제의 지향점에 대한 지역별 응답분포

축제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어울림마당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문화를 즐기는 축제라고 대답한 비율이 32.5%였다.

그러나 군 지역에서는 역시 학생, 교사, 지역주민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축제라는 대답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서 위의 축제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된 대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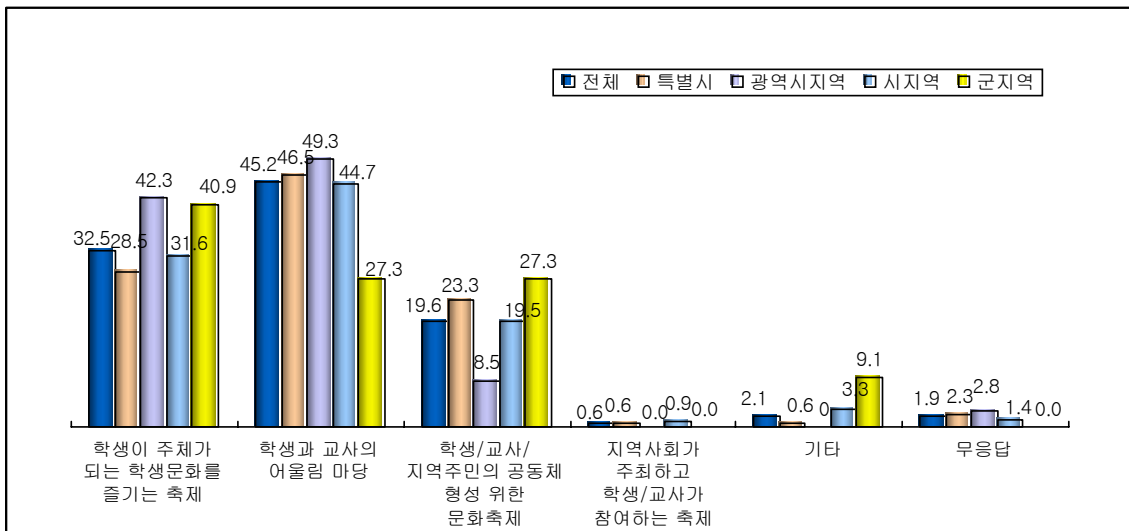


그림 27 축제의 형태에 대한 지역별 응답분포

8. 학교축제의 지역연계성

학교축제가 지역과 어느 정도 연계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한 질문 항목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이 연관되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49.0%였고, 연계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거나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는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46.7%로 나타나서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연회나 전시회를 공동주최하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축제가 주가 되고 지역민이 관람자 정도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학교축제의 지역연계성은 그 정도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보다 적극적인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설정이 중요하며, 이것이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에게 질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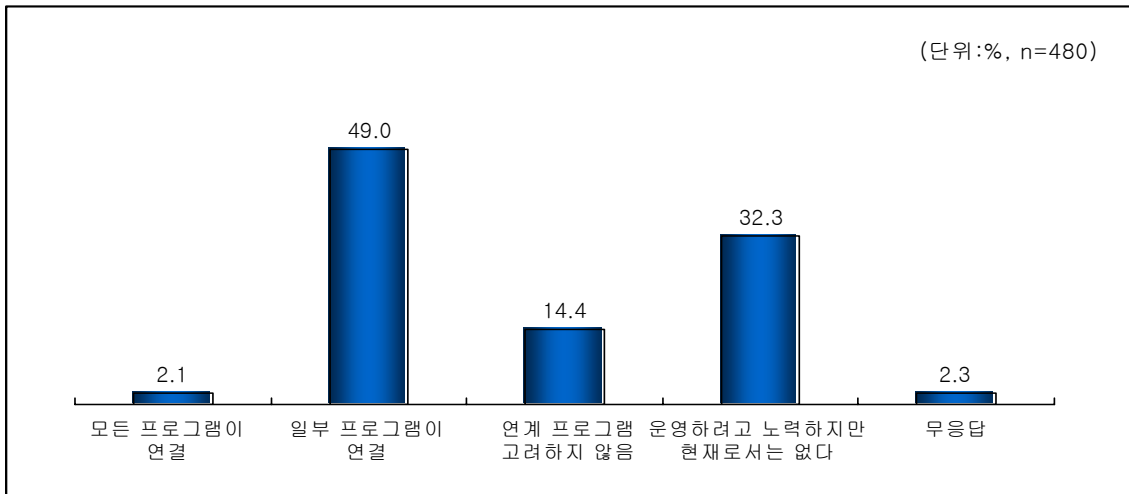


그림 28 축제와 지역의 연계성

표 18 학교 소재지 규모별 축제와 지역의 연계성

(단위: %, n=480)

	사례수	모든 프로그램이 연관	일부 프로그램이 연관	연계 프로그램 고려하지 않음	운영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재로서는 없다	무응답
특별시	(172)	4.1	48.3	14.0	30.8	2.9
광역시지역	(71)	1.4	56.3	8.5	32.4	1.4
시지역	(215)	0.9	47.0	15.8	34.9	1.4
군지역	(22)	0.0	50.0	22.7	18.2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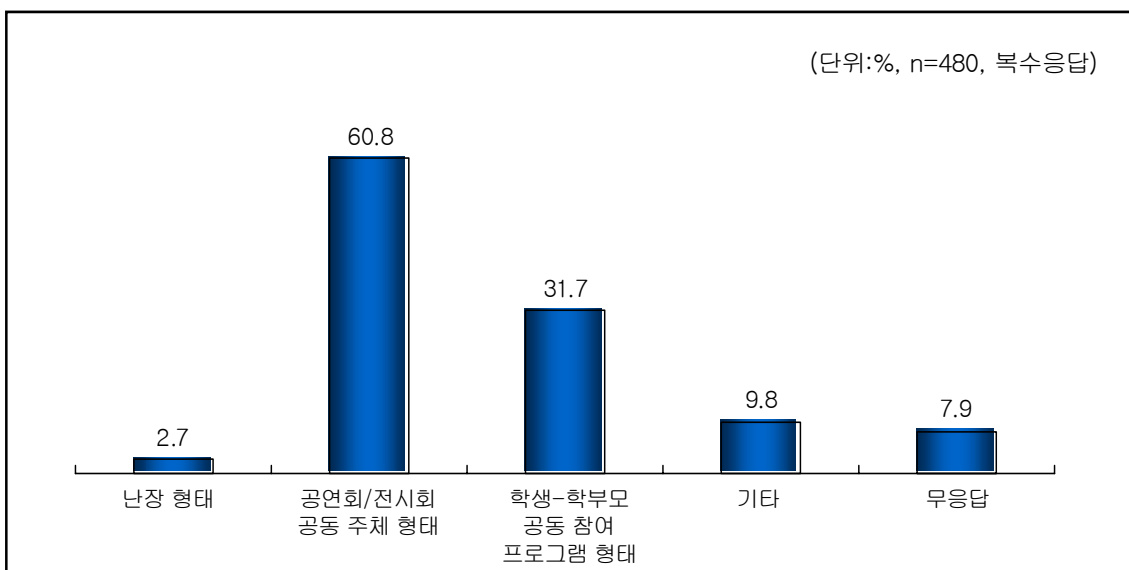


그림 29 지역과 연계한 축제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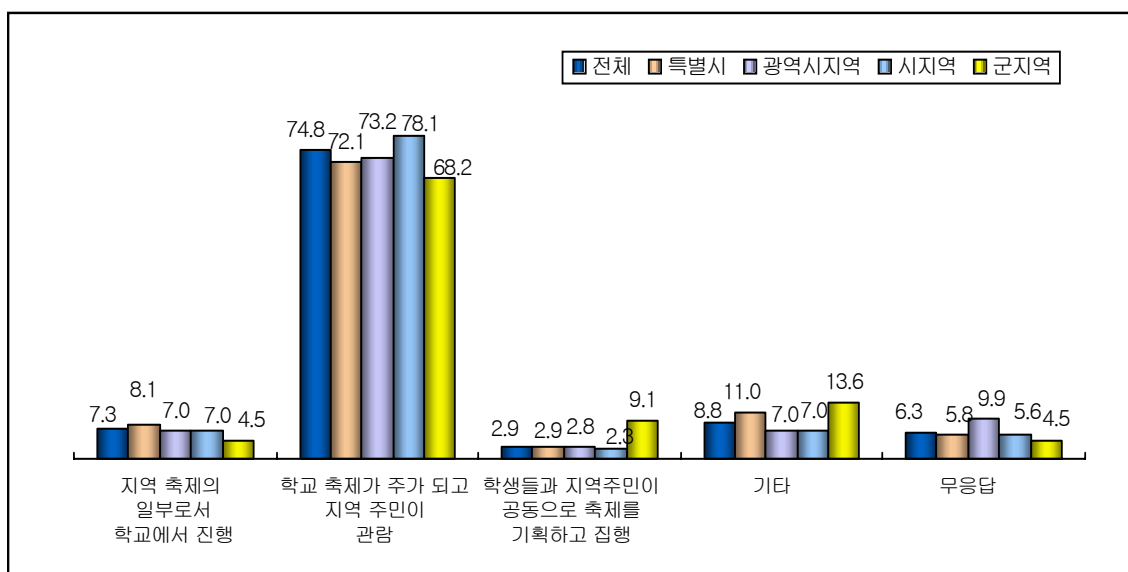


그림 30 지역과 연계한 축제의 진행 형태

표 18 학교 소재지 규모별 지역과 연계한 축제의 형태

(단위: %, n=480, 복수응답)

	사례수	난장 형태	공연회/전시회 공동주최 형태	학생/학부모공동 참여 프로그램 형태	기타	무응답
특별시	(172)	3.5	59.9	32.0	11.0	8.1
광역시지역	(71)	0.0	66.2	31.0	12.7	7.0
시지역	(215)	3.3	59.5	33.5	6.5	8.4
군지역	(22)	0.0	63.6	13.6	32.7	4.5

이와 같이 학교축제와 지역과의 연계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가와의 연계부족이 43.3%로 가장 많은 대답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지역의 문화 인프라 사용의 어려움(38.3%), 문화예술활동가에 대한 정보부족(32.5%) 등을 들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력 및 문화예술활동실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들이 학교에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력이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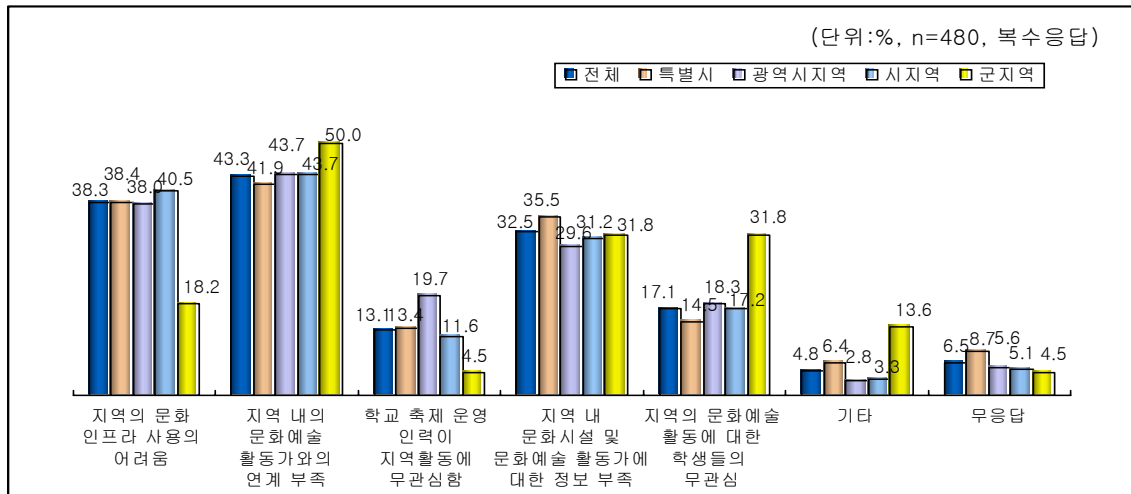


그림 31 지역과 연계 시 문제점

제3절 학생들의 학교축제에 대한 인식 분석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교축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총 583개의 표본을 확보하였다. 조사방법은 학교를 임의로 추출하여 설문지에 자기기입식 표기를 하는 것이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10월 17일에서 10월 23일까지였다.

1. 학교 축제 참여형태 및 흥미도

학교축제에 참여한 경험은 참여경험이 없는 학생이 36.5%이고, 1회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25.9%인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교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했던 축제유형으로는 복수응답으로 학예발표회와 계발활동(CA)전시회 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경연대회형태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축제는 학예발표회 공연으로 나타났다. 남·여학생의 경향을 비교해보면, 남학생은 공연형태에, 여학생은 전시회형태에 더 많은 참여를 보였으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학교축제에 대한 흥미도에서는 매우 재미있음과 약간 재미있음이라고 대답한 학생이 모두 51.8%로 반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축제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공연, 놀이, 전시 형태가 합쳐진 축제라는 대답이 42.9%로 나타난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연 쪽에 치중하는 축제에는 남학생이, 전시 쪽에 치중하는 축제에는 여학생의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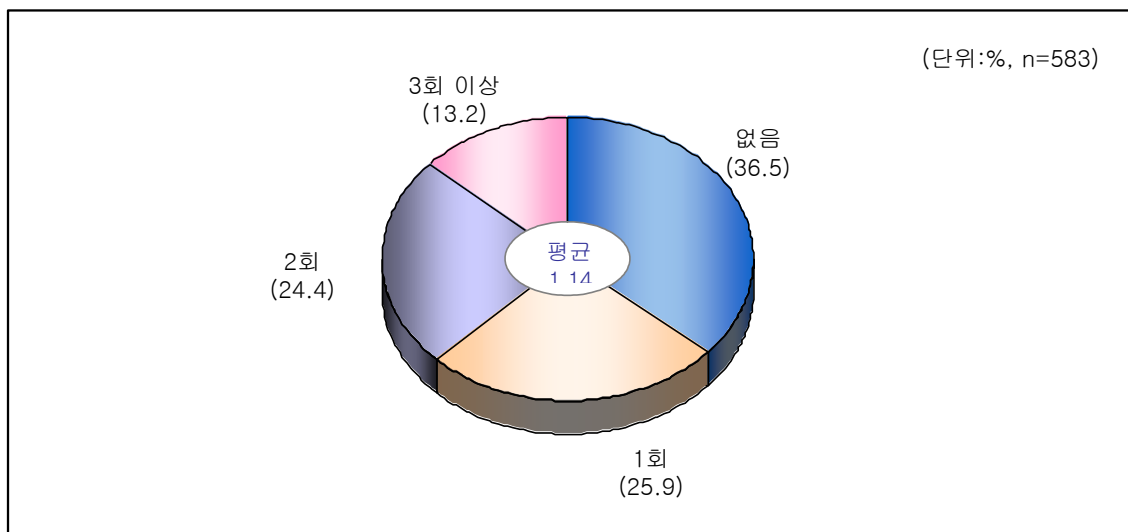


그림 32 학교 축제 경험

표 19 응답자 특성별 학교 축제 경험 (단위:%, n=583)

		사례수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평균
■ 전 체 ■		(583)	36.5	25.9	24.4	13.2	1.14
지역별	서울	(169)	40.2	19.5	30.8	9.5	1.09
	인천	(301)	36.5	26.9	26.2	10.3	1.10
	경기	(113)	31.0	32.7	9.7	26.5	1.32
성별	남학생	(218)	35.3	23.9	28.0	12.8	1.18
	여학생	(365)	37.3	27.1	22.2	13.4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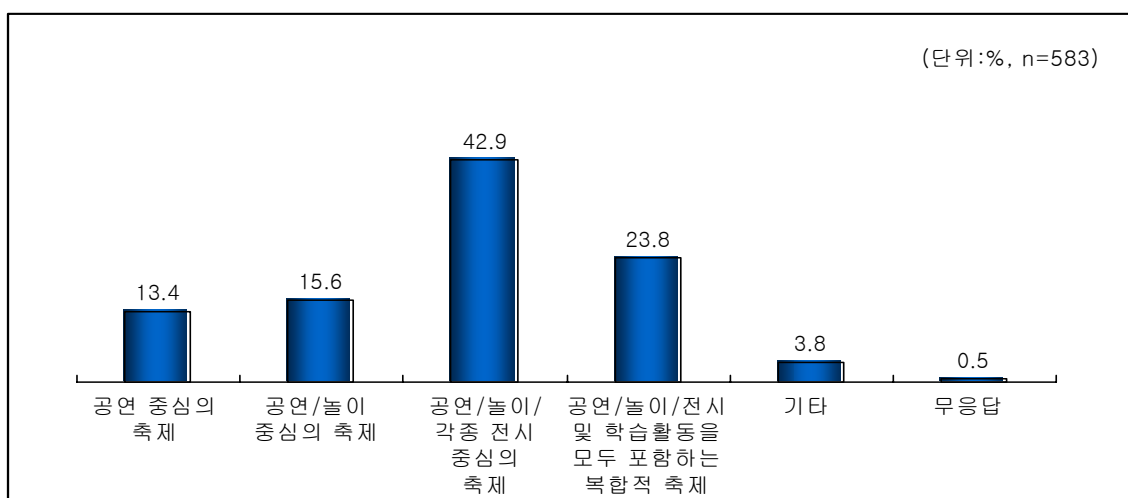


그림 33 재학 중인 학교 축제의 형태

표 20 응답자 특성별 재학 중인 학교 축제의 형태

(단위:%, n=583)

		사례수	공연 중심의 축제	공연/놀이 중심의 축제	공연/놀이/ 각종 전시 중심의 축제	공연/놀이/전시 및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축제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13.4	15.6	42.9	23.8	3.8	0.5
지역별	서울	(169)	17.8	16.0	40.2	23.7	2.4	0.0
	인천	(301)	13.3	14.3	39.2	28.2	4.0	1.0
	경기	(113)	7.1	18.6	56.6	12.4	5.3	0.0
성별	남학생	(218)	18.8	25.2	30.3	20.6	3.7	1.4
	여학생	(365)	10.1	9.9	50.4	25.8	3.8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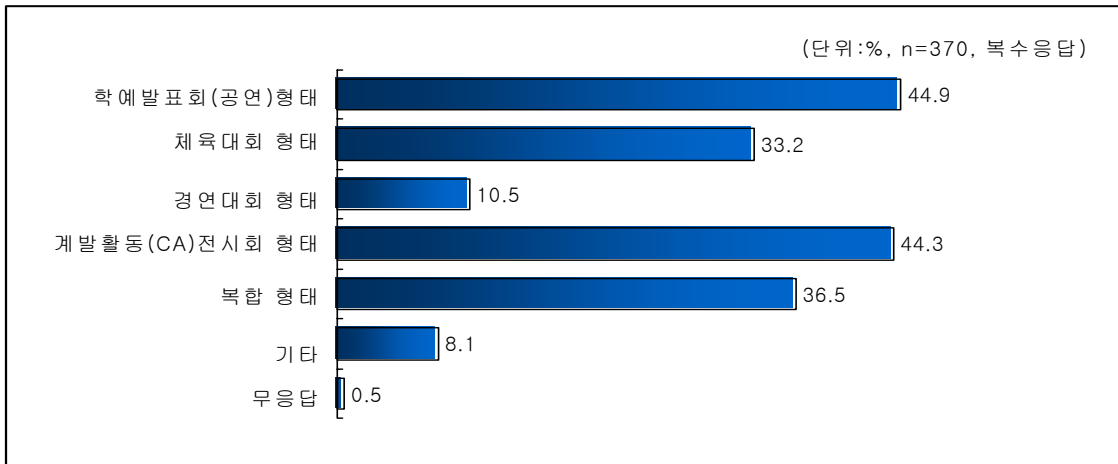


그림 34 참여했던 축제형태

표 21 응답자 특성별 참여했던 축제형태

(단위:%, n=370, 복수응답)

		사례수	학예발표회 (공연) 형태	체육 대회 형태	경연 대회 형태	계발활동 (CA) 전시회 형태	복합 형태	기타	무응답
■ 전 체 ■		(370)	44.9	33.2	10.5	44.3	36.5	8.1	0.5
지역별	서울	(101)	39.6	32.7	10.9	34.7	49.5	7.9	1.0
	인천	(191)	39.8	30.9	12.6	33.5	37.7	11.5	0.5
	경기	(78)	64.1	39.7	5.1	83.3	16.7	0.0	0.0
성별	남학생	(141)	47.5	37.6	10.6	37.6	27.0	7.8	0.7
	여학생	(229)	43.2	30.6	10.5	48.5	42.4	8.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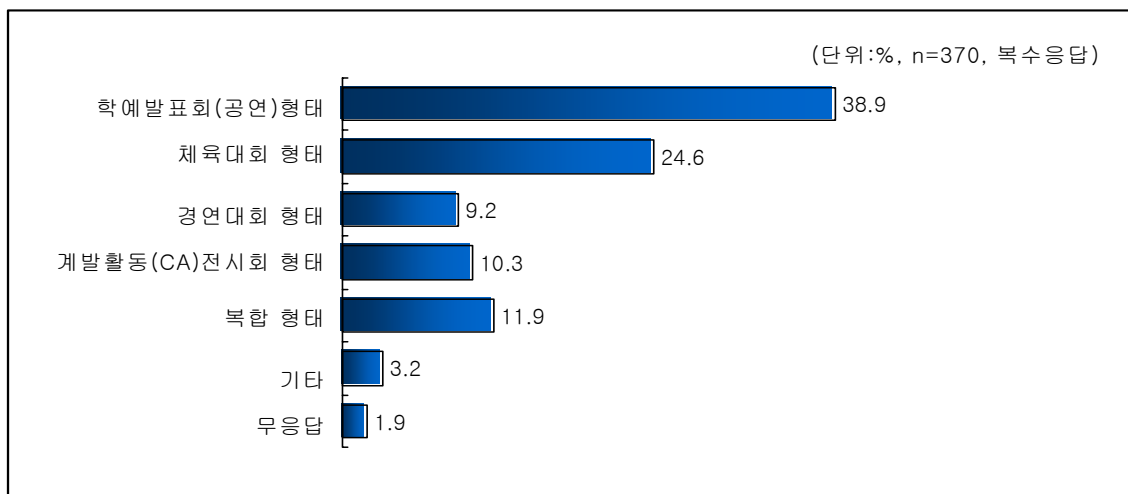


그림 35 참여했던 축제 중 가장 적극적 참여 축제 내용

표 22 응답자 특성별 참여했던 축제 중 가장 적극적 참여 축제 내용 (단위:%, n=370, 복수응답)

		사례수	학예발표회 (공연) 형태	체육 대회 형태	경연 대회 형태	계발활동 (CA) 전시회 형태	복합 형태	기타	무응답
■ 전 체 ■		(370)	38.9	24.6	9.2	10.3	11.9	3.2	1.9
지역별	서울	(101)	49.5	15.8	7.9	3.0	15.8	5.0	3.0
	인천	(191)	32.5	30.4	11.5	9.9	12.0	3.1	0.5
	경기	(78)	41.0	21.8	5.1	20.5	6.4	1.3	3.8
성별	남학생	(141)	35.5	24.8	10.6	12.8	10.6	1.4	4.3
	여학생	(229)	41.0	24.5	8.3	8.7	12.7	4.4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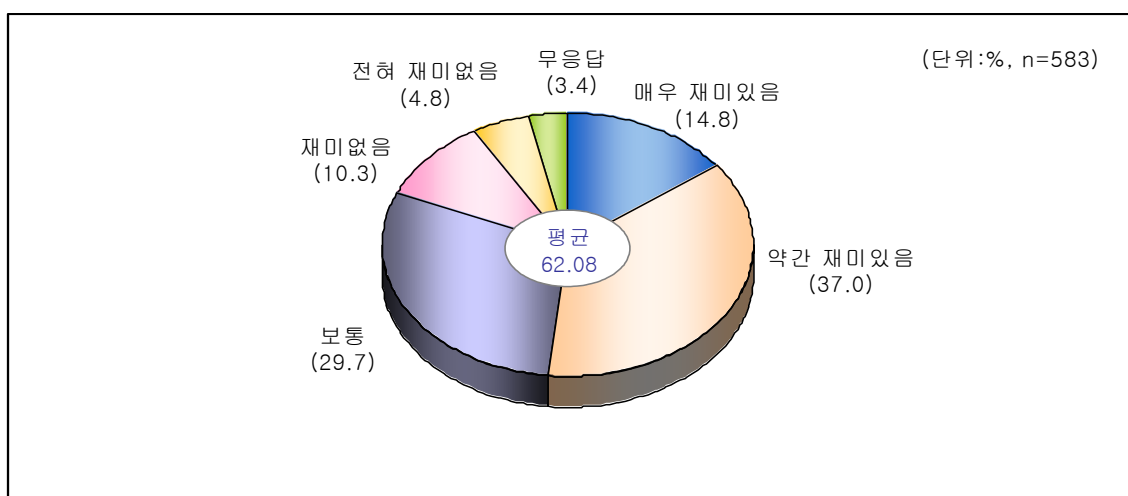


그림 36 학교축제 참여결과 흥미도

표 23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 참여결과 흥미도

(단위:%, n=583)

		사례수	(100) 매우 재미있음	(75) 약간 재미있음	(50) 보통	(25) 재미 없음	(0) 전혀 재미없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583)	14.8	37.0	29.7	10.3	4.8	3.4	62.08
지역별	서울	(169)	17.8	45.0	23.1	4.7	4.1	5.3	67.81
	인천	(301)	12.0	33.6	33.6	12.6	5.3	3.0	58.82
	경기	(113)	17.7	34.5	29.2	12.4	4.4	1.8	62.39
성별	남학생	(218)	14.2	37.6	33.9	7.3	4.6	2.3	62.68
	여학생	(365)	15.1	36.7	27.1	12.1	4.9	4.1	61.71

2. 축제에 대한 관심도 및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51.8%의 학생들이 학교축제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에 반해서 학교축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수는 ‘많음’과 ‘매우 많음’이 64.3%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에 대한 관심 정도에 비해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학교축제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결과로 판단된다. 학교축제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관심도가 낮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축제의 프로그램이 낙후되었고 학교의 일방적인 축제기획을 그 주요 이유로 제시하였다.

축제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통이 43.2%를 나타낸 것으로 봐서 학교생활에서 축제가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우 많음과 많음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모두 35.5%로 나타나서 앞으로 축제내용과 방식이 개선된다면 학교생활에서 축제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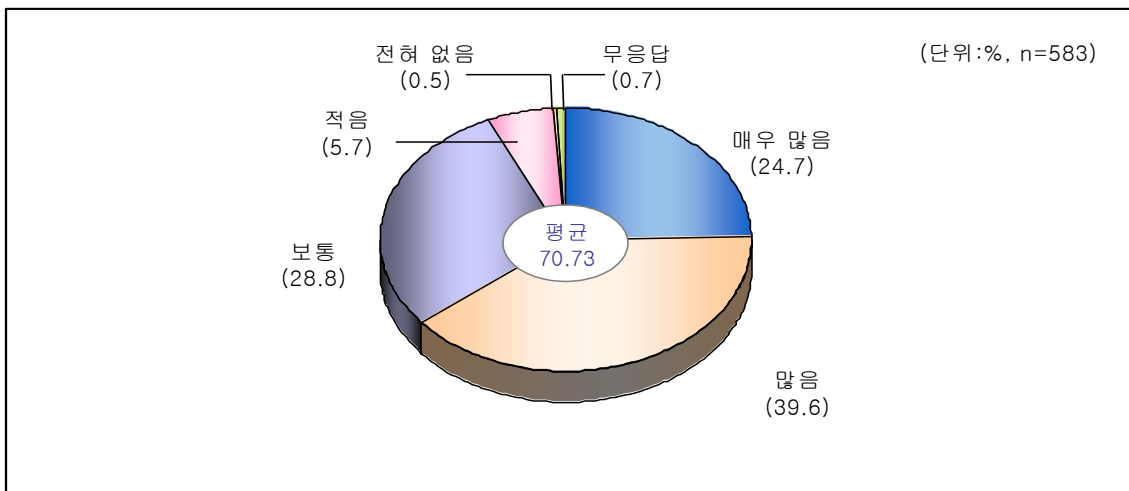


그림 37 축제에 대한 관심도

표 24 응답자 특성별 축제에 대한 관심도

(단위:%, n=583)

	사례수	(100) 매우 많음	(75) 많음	(50) 보통	(25) 적음	(0) 매우 적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583)	24.7	39.6	28.8	5.7	0.5	0.7	70.73
지역별	서울	(169)	25.4	46.7	23.7	3.6	0.6	73.22
	인천	(301)	23.9	35.9	31.9	6.6	0.3	69.36
	경기	(113)	25.7	38.9	28.3	6.2	0.9	70.58
성별	남학생	(218)	19.3	42.2	30.3	6.9	0.9	68.09
	여학생	(365)	27.9	38.1	27.9	4.9	0.3	7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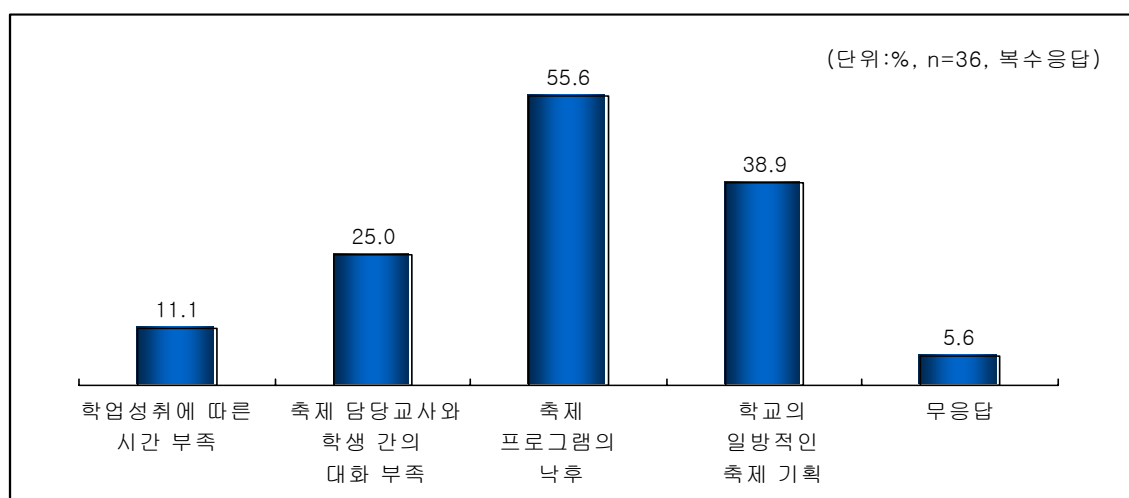


그림 38 축제에 관심이 적은 이유

표 25 응답자 특성별 축제에 관심이 적은 이유

(단위:%, n=36, 복수응답)

		사례수	학업 성취에 따른 시간 부족	축제 담당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부족	축제 프로그램의 낙후	학교의 일방적인 축제 기획	무응답
■ 전 체 ■		(36)	11.1	25.0	55.6	38.9	5.6
지역별	서울	(7)	28.6	57.1	42.9	0.0	0.0
	인천	(21)	4.8	19.0	47.6	57.1	9.5
	경기	(8)	12.5	12.5	87.5	25.0	0.0
성별	남학생	(17)	5.9	41.2	52.9	35.3	5.9
	여학생	(19)	15.8	10.5	57.9	42.1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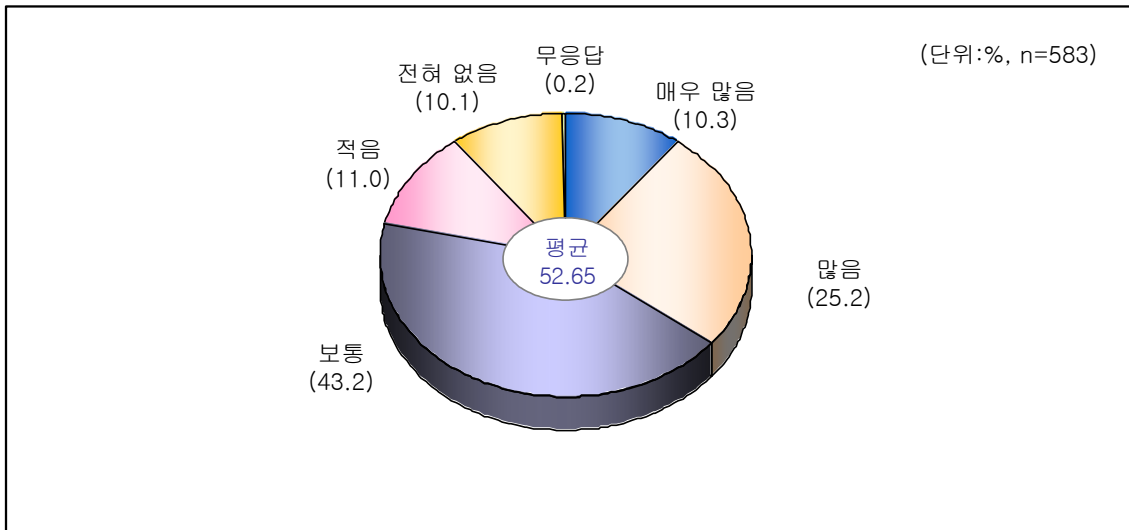


그림 39 축제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표 26 응답자 특성별 축제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단위:%, n=583)

		사례수	(100) 매우 많음	(75) 많음	(50) 보통	(25) 적음	(0) 전혀 없음	무응답	평균
■ 전 체 ■		(583)	10.3	25.2	43.2	11.0	10.1	0.2	53.65
지역별	서울	(169)	12.4	29.6	37.9	11.2	8.9	0.0	56.36
	인천	(301)	10.3	23.9	43.9	11.0	10.6	0.3	53.08
	경기	(113)	7.1	22.1	49.6	10.6	10.6	0.0	51.11
성별	남학생	(218)	7.8	22.9	45.0	13.8	10.6	0.0	50.92
	여학생	(365)	11.8	26.6	42.2	9.3	9.9	0.3	55.29

3. 축제기획과 조직에 대한 견해

축제 기획은 축제담당교사가 기획한다는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생들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비율은 13.6%에 불과하였다. 또한 축제기획을 누가 하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학생들이 31.7%가 되어 학교축제의 진행과정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축제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학교집행부의 예산지원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이 부분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의 핵심운영자는 학생회와 담당교사라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 학생회에서 축제를 중점적으로 조직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서 학교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정도가 양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축제의 기획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행사준비와 진행에 치중해 있다고 대답

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소수의 학생만이 기획, 평가, 예산집행에 참여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학생들은 행사준비와 진행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견해가 반영되는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42.5%가 대표학생들의 견해만 반영된다고 대답했고, 23.2%의 학생들이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의 견해는 대부분 반영된다고 대답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축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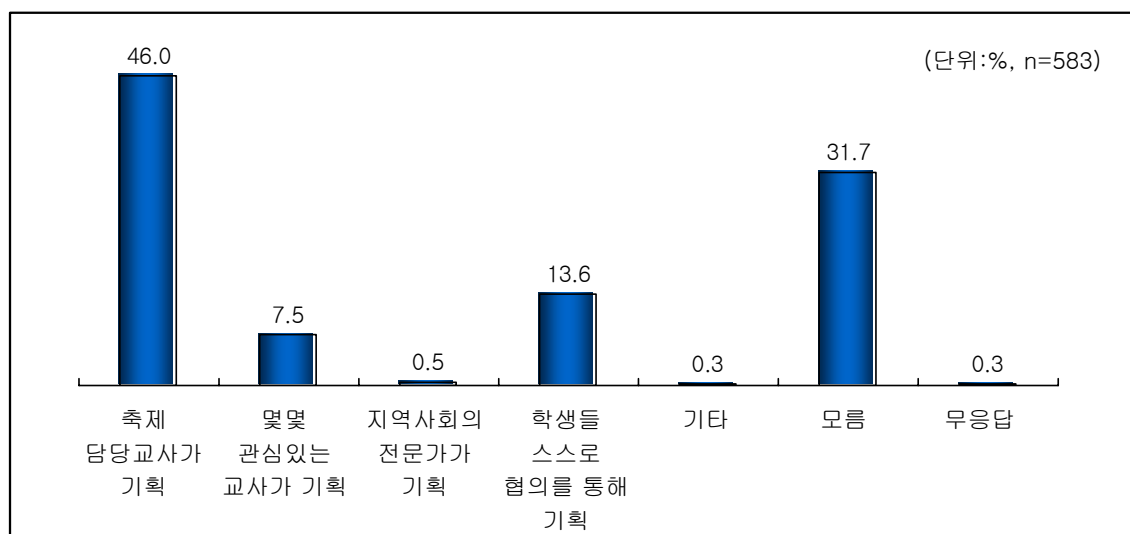


그림 40 축제 기획자

표 27 응답자 특성별 축제의 기획자

(단위:%, n=583)

	사례수	축제 담당교사가 기획	몇몇 관심 있는 교사가 기획	지역 사회의 전문가가 기획	학생들 스스로 협의를 통해 기획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583)	46.0	7.5	0.5	13.6	0.3	31.7	0.3
지역별	서울 (169)	54.4	5.9	0.0	21.9	0.0	17.8	0.0
	인천 (301)	34.9	10.0	0.7	12.6	0.3	40.9	0.7
	경기 (113)	62.8	3.5	0.9	3.5	0.9	28.3	0.0
성별	남학생 (218)	42.7	8.3	0.9	13.8	0.5	33.5	0.5
	여학생 (365)	47.9	7.1	0.3	13.4	0.3	30.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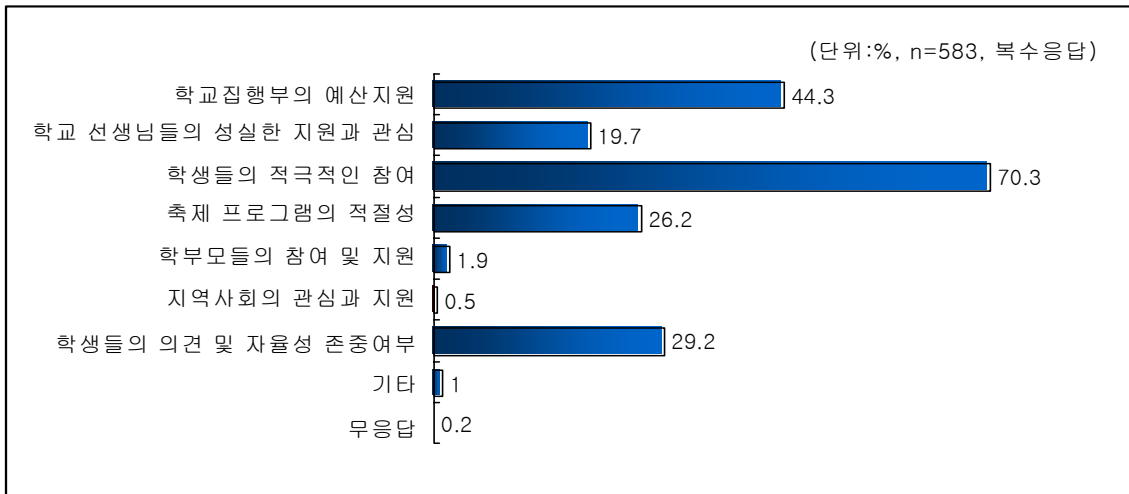


그림 41 축제기획의 중요요소

표 28 응답자 특성별 축제기획의 중요요소

(단위:%, n=583, 복수응답)

		사례수	학교의 충분한 예산 지원과 관심	학교 선생님들의 성실한 지원과 관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축제 프로그램의 적절성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지역 사회의 관심과 지원	학생들의 의견 및 자율성 존중 여부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44.3	19.7	70.3	26.2	1.9	0.5	29.2	1.0	0.2
지역별	서울	(169)	40.8	20.1	81.1	20.1	3.6	1.2	19.5	1.2	0.0
	인천	(301)	42.2	21.9	64.8	29.6	1.7	0.3	33.2	1.0	0.3
	경기	(113)	54.9	13.3	69.0	26.5	0.0	0.0	32.7	0.9	0.0
성별	남학생	(218)	40.4	21.6	69.3	26.6	2.8	0.5	25.7	1.8	0.5
	여학생	(365)	46.6	18.6	71.0	26.0	1.4	0.5	31.2	0.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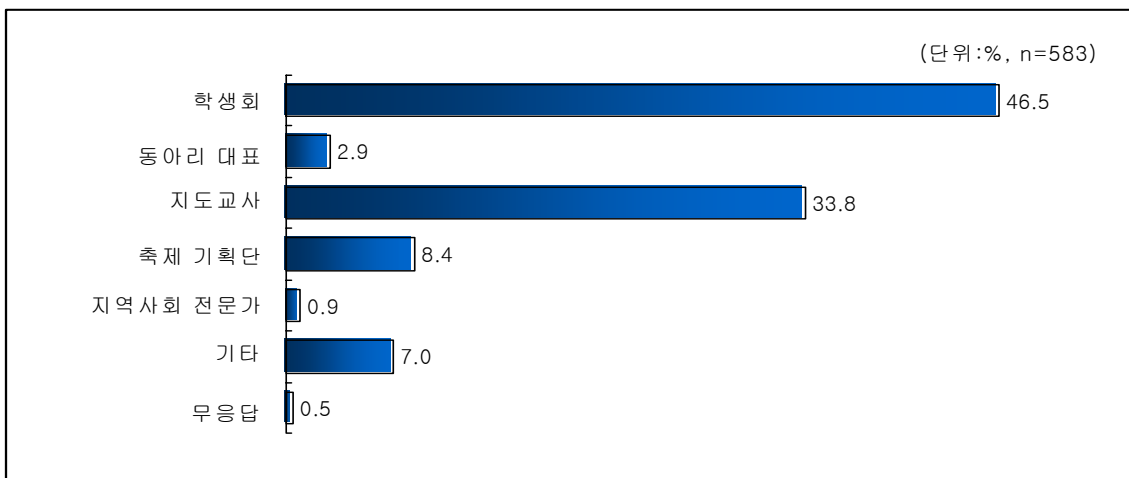


그림 42 축제 핵심운영자

표 29 응답자 특성별 축제 핵심운영자

(단위:%, n=583)

		사례수	학생회	동아리대표	지도교사	축제 기획단	지역사회 전문가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46.5	2.9	33.8	8.4	0.9	7.0	0.5
지역별	서울	(169)	54.4	3.6	23.1	13.6	1.8	3.6	0.0
	인천	(301)	51.2	3.7	25.9	8.3	0.7	9.6	0.7
	경기	(113)	22.1	0.0	70.8	0.9	0.0	5.3	0.9
성별	남학생	(218)	40.4	2.8	36.2	11.5	0.9	7.8	0.5
	여학생	(365)	50.1	3.0	32.3	6.6	0.8	6.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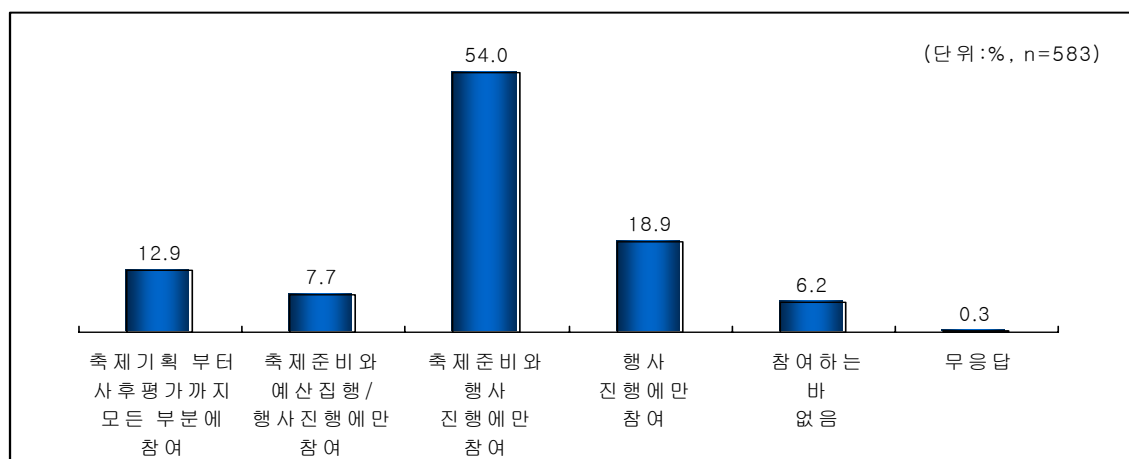


그림 43 축제의 기획

표 30 응답자 특성별 축제의 기획

(단위:%, n=583)

		사례수	축제기획부터 사후평가까지 모든 부분에 참여	축제 준비와 예산집행/행사 진행에만 참여	축제 준비와 행사 진행에만 참여	행사 진행에만 참여	참여 하는 바 없음	무응답
■ 전 체 ■		(583)	12.9	7.7	54.0	18.9	6.2	0.3
지역별	서울	(169)	25.4	8.9	45.6	14.2	5.9	0.0
	인천	(301)	9.0	8.0	58.5	16.3	7.6	0.7
	경기	(113)	4.4	5.3	54.9	32.7	2.7	0.0
성별	남학생	(218)	13.3	8.3	47.2	22.5	7.8	0.9
	여학생	(365)	12.6	7.4	58.1	16.7	5.2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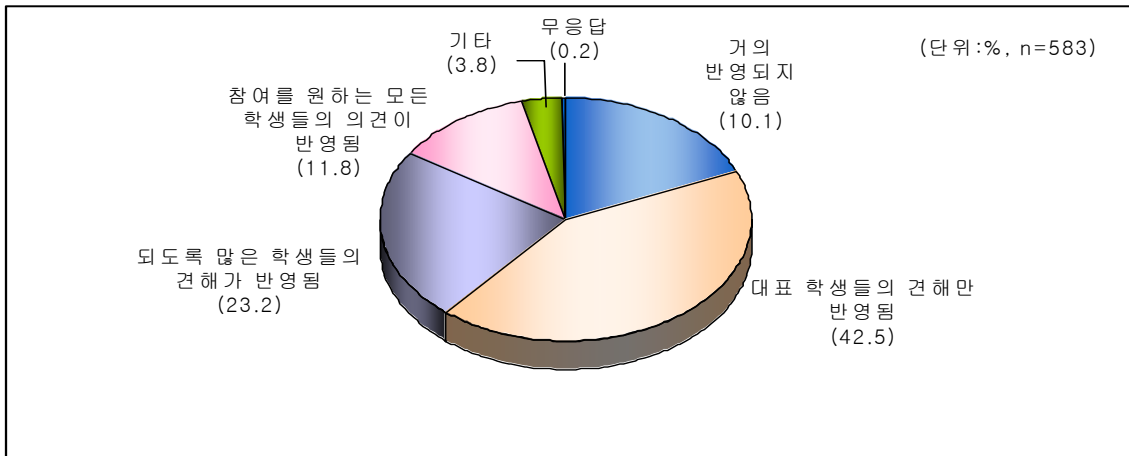


그림 44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표 31 응답자 특성별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단위: %, n=583)

		사례수	거의 반영되지 않음	대표 학생들의 견해만 반영됨	되도록 많은 학생들의 견해가 반영됨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됨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18.5	42.5	23.2	11.8	3.8	0.2
지역별	서울	(169)	10.1	34.9	31.4	17.2	6.5	0.0
	인천	(301)	16.6	49.8	21.9	9.6	1.7	0.3
	경기	(113)	36.3	34.5	14.2	9.7	5.3	0.0
성별	남학생	(218)	21.1	34.4	28.9	11.0	4.1	0.5
	여학생	(365)	17.0	47.4	19.7	12.3	3.6	0.0

4. 축제 발전의 저해요소와 문제점

축제발전의 저해요소로는 당초 예상했던 사교육의 영향은 약하게 나타났고, 보다 직접적인 요소인 “흥미를 끌지 못하는 축제 프로그램”, “축제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 학교집행부의 적은 예산지원과 무관심 등의 순으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65.2%의 학생들이 일부학생들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관람하는 형태의 축제라고 말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참여의 경향은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축제운영의 문제점으로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예산부족, 학생들의 참여 부족, 조급한 준비기간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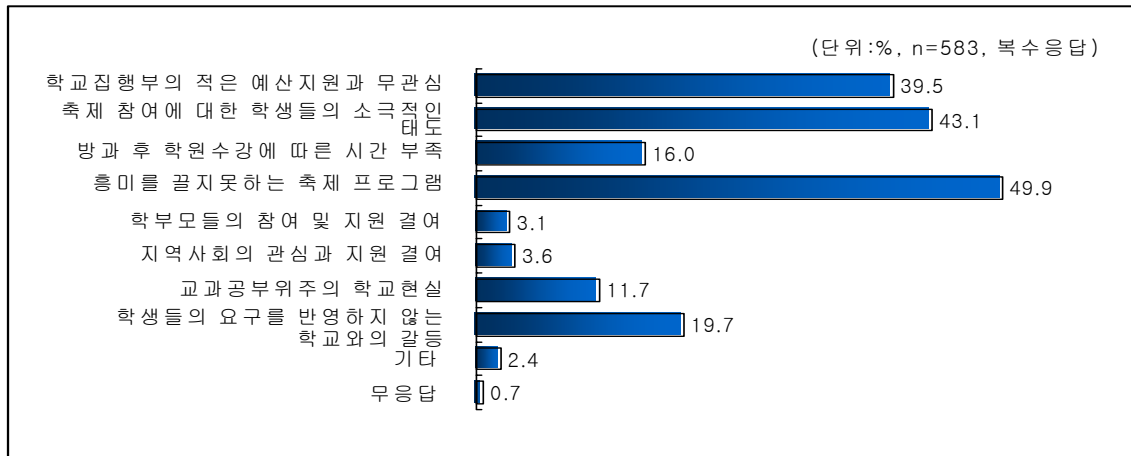


그림 45 축제 발전의 저해요소

표 32 응답자 특성별 축제 발전의 저해요소 (단위:%, n=583, 복수응답)

	사례수	학교의 적은 예산지원과 무관심	축제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 태도	방과 후 학원수강에 따른 시간부족	흥미를 끌지 못하는 축제 프로그램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결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결여	교과 공부 위주의 학교 현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와의 갈등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39.5	43.1	16.0	49.9	3.1	3.6	11.7	19.7	2.4	0.7
지역별	서울	(169)	41.4	53.3	21.3	33.7	3.0	3.6	10.1	11.2	1.2
	인천	(301)	35.2	36.9	15.0	57.5	3.7	4.3	12.6	23.6	0.7
	경기	(113)	47.8	44.2	10.6	54.0	1.8	1.8	11.5	22.1	0.0
성별	남학생	(218)	31.7	44.0	17.9	45.0	4.6	3.7	15.1	16.5	1.4
	여학생	(365)	44.1	42.5	14.8	52.9	2.2	3.6	9.6	21.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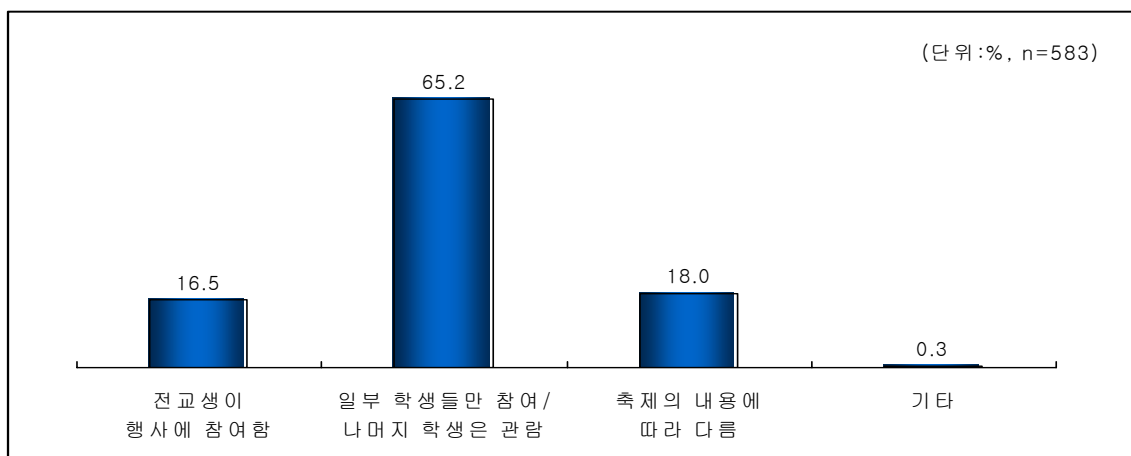


그림 46 학교축제 행사에 교내 학생들의 참여도

표 33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 행사에 교내 학생들의 참여도

(단위:%, n=583)

		사례수	전교생이 행사에 참여함	일부 학생들만 참여/나머지 학생은 관람	축제의 내용에 따라 다름	기타
■ 전 체 ■		(583)	16.5	65.2	18.0	0.3
지역별	서울	(169)	18.3	62.7	18.3	0.6
	인천	(301)	18.6	62.5	18.6	0.3
	경기	(113)	8.0	76.1	15.9	0.0
성별	남학생	(218)	17.4	58.7	22.9	0.9
	여학생	(365)	15.9	69.0	15.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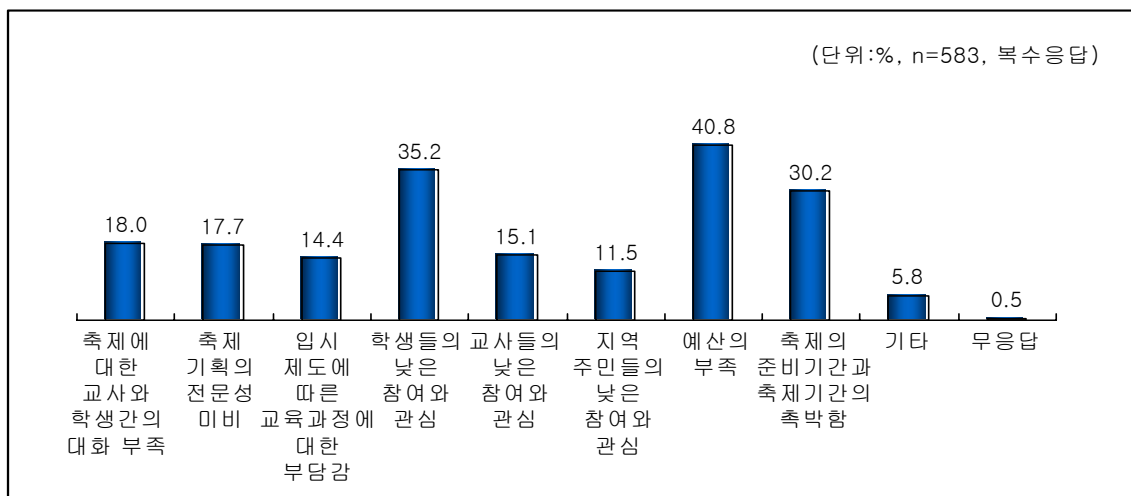


그림 47 축제운영의 문제점

표 34 응답자 특성별 축제운영의 문제점

(단위:%, n=583, 복수응답)

	사례수	축제에 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부족	축제 기획의 전문성 미비	입시제도에 따른 교육 과정에 대한 부담감	학생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교사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지역주민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예산의 부족	축제준비기간과 축제기간의 축박함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18.0	17.7	14.4	35.2	15.1	11.5	40.8	30.2	5.8	0.5
지역별	서울	(169)	14.2	14.8	17.8	40.2	13.6	18.3	34.3	24.3	6.5
	인천	(301)	21.3	19.9	11.6	31.9	15.9	10.0	38.5	34.6	5.0
	경기	(113)	15.0	15.9	16.8	36.3	15.0	5.3	56.6	27.4	7.1
성별	남학생	(218)	14.7	19.3	19.3	39.4	15.1	14.2	28.0	25.2	6.9
	여학생	(365)	20.0	16.7	11.5	32.6	15.1	9.9	48.5	33.2	5.2

5. 학교축제 발전의 방향성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축제의 형태로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가 35.2%, “학생 자치를 통한 청소년 문화축제”가 31.9%로 나타났고,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는 11.8%로 나타나서 현재 학교축제가 지역과 연계되어서 개최되는 정도는 상당히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축제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형태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축제가 40.8%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17.5%의 학생들이 지적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전통적인 축제형태를 넘어서는 양태는 미약하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축제가 지향하는 의미로 55.9%의 학생들이 “휴식과 학교생활의 즐거움 제공”을 들어서 “특기적성 개발 및 동아리 활동”과 “자기표현의 기회제공” 등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학교축제는 놀이나 휴식의 시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생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복수응답을 요구했을 때 “숨씨 및 장기자랑”이 63.6%, “타 학교 학생 및 연예인 초청”이 49.2%로 나타난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었다. 학교축제의 바람직한 형태에서 생각하는 것과 개별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학교축제의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성 그리고 내용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개념, 학교축제의 의미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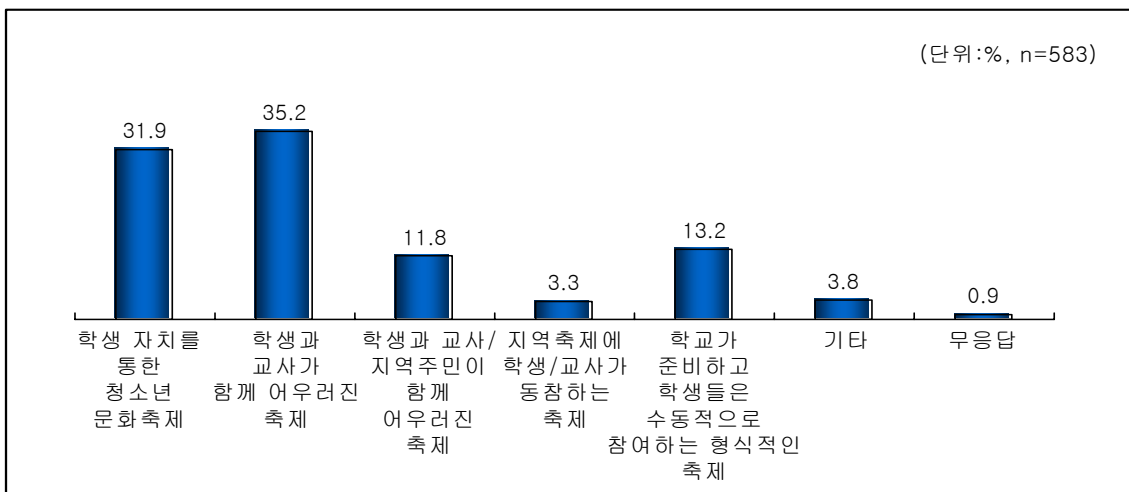


그림 48 학교축제 형태

표 35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 형태

(단위:%, n=583)

		사례수	학생 자치를 통한 청소년 문화축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	학생과 교사/지역주 민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	지역축제에 학생/교사가 동참하는 축제	학교가 준비하고 학생들은 수동적 으로 참여하는 형식적인 축제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31.9	35.2	11.8	3.3	13.2	3.8	0.9
지역별	서울	(169)	28.4	33.1	21.9	7.1	7.1	2.4	0.0
	인천	(301)	35.9	34.6	8.0	1.7	14.6	4.3	1.0
	경기	(113)	26.5	39.8	7.1	1.8	18.6	4.4	1.8
성별	남학생	(218)	33.9	33.5	14.7	4.1	10.6	2.8	0.5
	여학생	(365)	30.7	36.2	10.1	2.7	14.8	4.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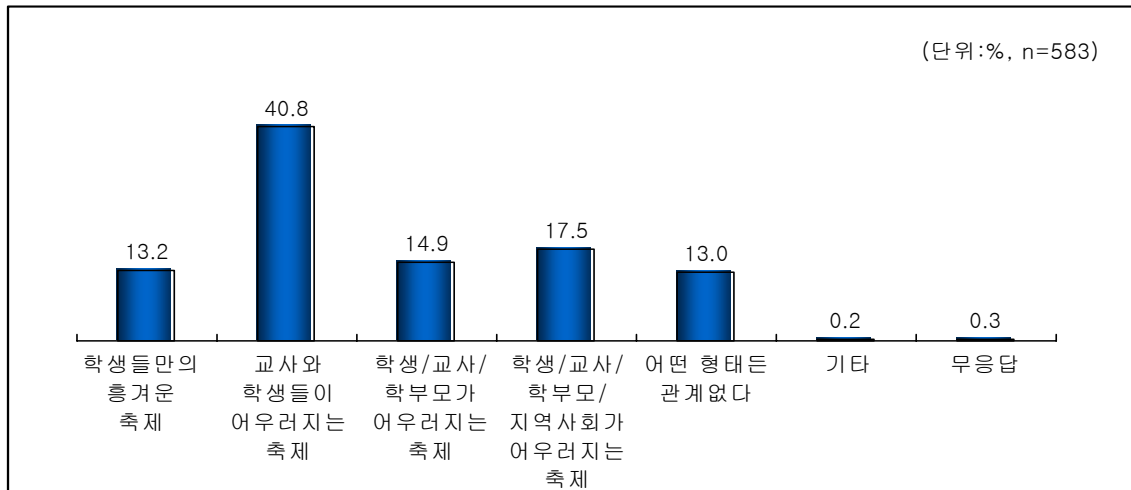


그림 49 학교축제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

표 36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

(단위:%, n=583)

		사례수	학생들만의 흥겨운 축제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축제	학생/교사/ 학부모가 어우러지는 축제	학생/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축제	어떤 형태든 관계없다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13.2	40.8	14.9	17.5	13.0	0.2	0.3
지역별	서울	(169)	10.7	37.3	13.6	24.9	12.4	0.0	1.2
	인천	(301)	15.9	41.9	14.3	15.3	12.3	0.3	0.0
	경기	(113)	9.7	43.4	18.6	12.4	15.9	0.0	0.0
성별	남학생	(218)	12.4	34.9	15.6	20.2	16.5	0.0	0.5
	여학생	(365)	13.7	44.4	14.5	15.9	11.0	0.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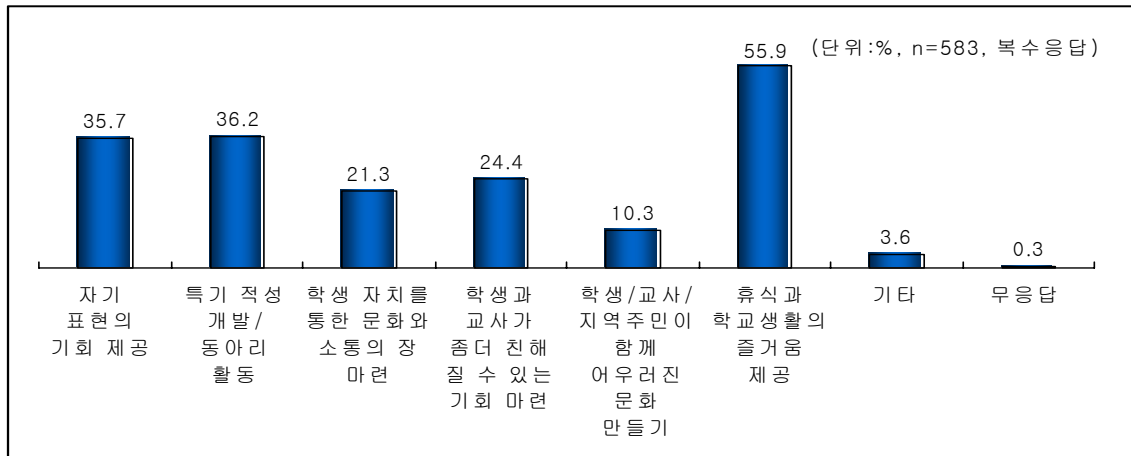


그림 50 학교 축제가 지향하는 의미

표 37 응답자 특성별 학교 축제가 지향하는 의미

(단위: %, n=583, 복수응답)

	사례수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	특기 적성 개발 / 동아리 활동	학생 자치를 통한 문화와 소통의 장 마련	학생과 교사가 좀 더 친해 질 수 있는 기회 마련	학생/교사/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 만들기	휴식과 학교 생활의 즐거움 제공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35.7	36.2	21.3	24.4	10.3	55.9	3.6	0.3
지역별	서울 (169)	34.3	32.5	25.4	21.3	20.1	44.4	4.1	0.6
	인천 (301)	33.2	40.2	20.6	23.9	7.3	58.1	3.3	0.3
	경기 (113)	44.2	31.0	16.8	30.1	3.5	67.3	3.5	0.0
성별	남학생 (218)	37.6	29.8	26.6	25.2	11.5	47.7	2.8	0.5
	여학생 (365)	34.5	40.0	18.1	23.8	9.6	60.8	4.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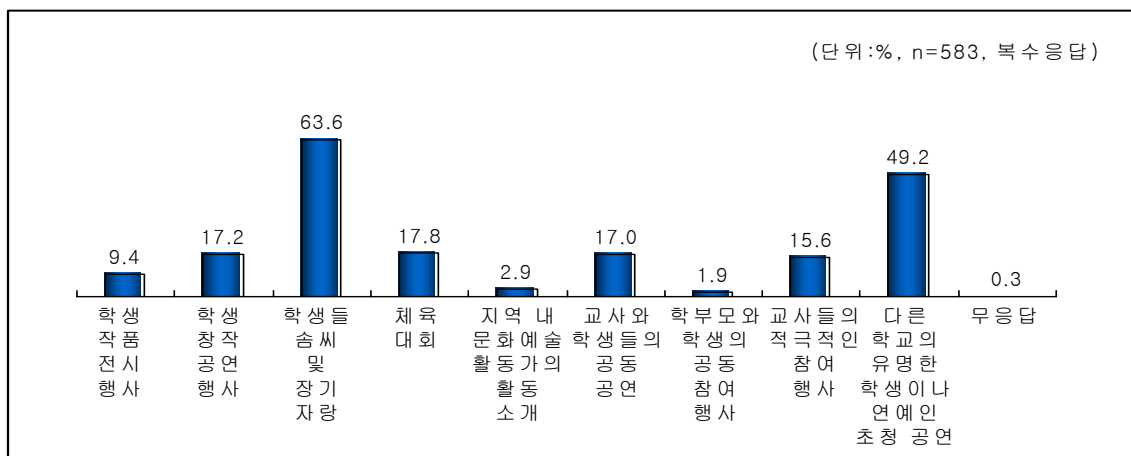


그림 51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

표 38 응답자 특성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프로그램

(단위:%, n=583, 복수응답)

		사례수	학생 작품 전시 행사	학생 창작 공연 행사	학생들 숨씨 및 장기자랑	체육 대회	지역 내 문화 예술 활동가의 활동 소개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 공연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 참여행사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행사	다른학교의 유명한 학생이나 연예인 초청공연	무응 답
■ 전 체 ■		(583)	9.4	17.2	63.6	17.8	2.9	17.0	1.9	15.6	49.2	0.3
지역별	서울	(169)	6.5	23.1	68.6	26.0	4.1	11.2	3.6	15.4	35.5	0.6
	인천	(301)	9.6	17.3	62.8	15.9	2.7	18.9	1.3	13.3	51.5	0.3
	경기	(113)	13.3	8.0	58.4	10.6	1.8	20.4	0.9	22.1	63.7	0.0
성별	남학생	(218)	11.5	19.7	60.1	24.8	4.1	15.1	3.2	11.9	38.5	0.9
	여학생	(365)	8.2	15.6	65.8	13.7	2.2	18.1	1.1	17.8	55.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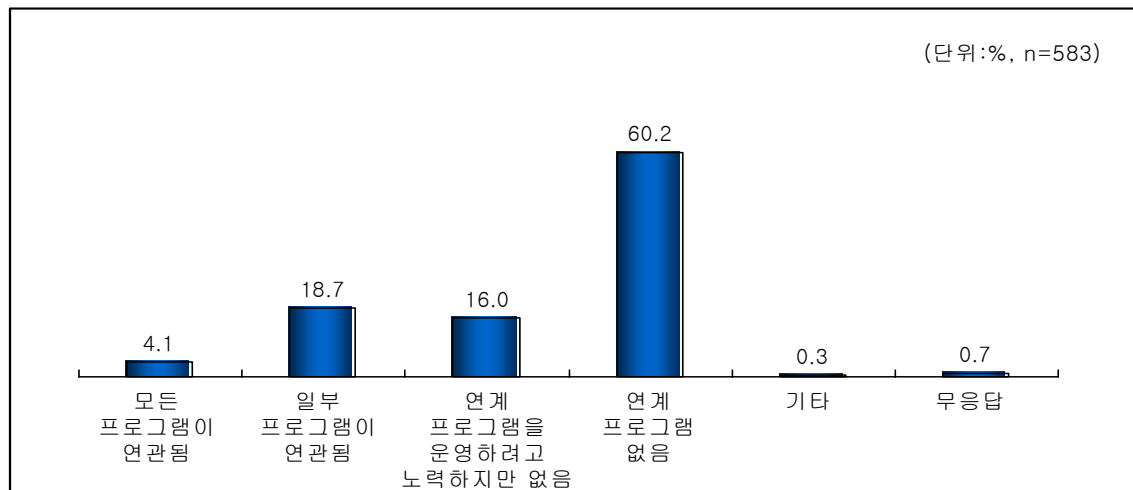


그림 52 축제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여부

표 39 응답자 특성별 축제의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여부

(단위:%, n=583)

		사례수	모든 프로그램이 연관됨	일부 프로그램이 연관됨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없음	연계 프로그램 없음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4.1	18.7	16.0	60.2	0.3	0.7
지역별	서울	(169)	5.3	26.0	23.1	44.4	0.6	0.6
	인천	(301)	4.3	19.6	16.3	58.8	0.3	0.7
	경기	(113)	1.8	5.3	4.4	87.6	0.0	0.9
성별	남학생	(218)	6.9	18.8	20.6	52.3	0.9	0.5
	여학생	(365)	2.5	18.6	13.2	64.9	0.0	0.8

6. 학교축제의 지역연계 형태

학교축제를 지역과 연계하여 개최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무엇보다도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 개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연계형태도 지역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가 개최되기 어려운 점으로 학생들은 일반적인 차원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축제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내는 교육내용이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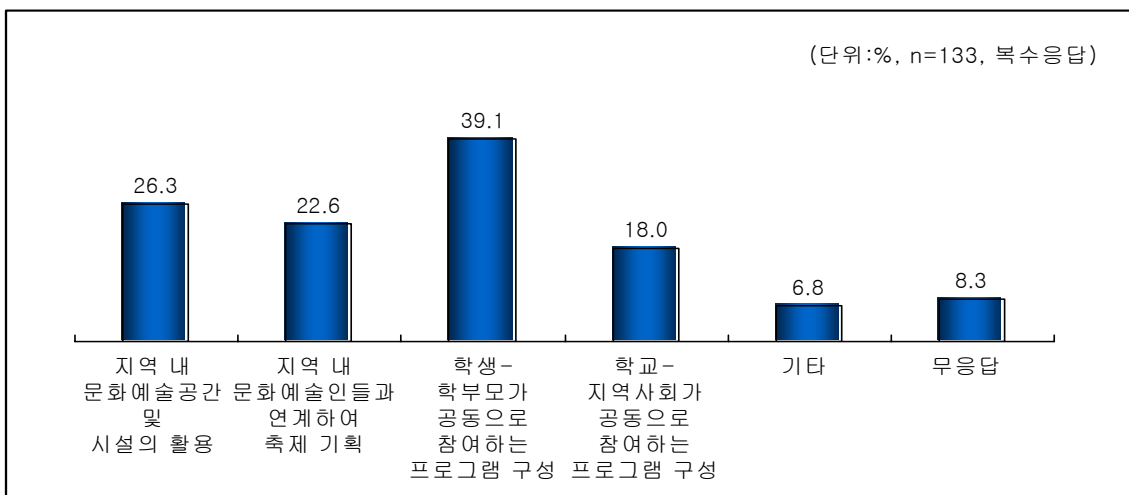


그림 53 학교축제의 지역연계 형태

표 40 응답자 특성별 학교축제의 지역연계 형태

(단위:%, n=133, 복수응답)

	사례수	지역 내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활용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연계하여 축제 기획	학생-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학교-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기타	무응답
■ 전 체 ■	(133)	26.3	22.6	39.1	18.0	6.8	8.3
지역별	서울 (53)	15.1	24.5	34.0	20.8	11.3	13.2
	인천 (72)	30.6	23.6	40.3	18.1	4.2	4.2
	경기 (8)	62.5	0.0	62.5	0.0	0.0	12.5
성별	남학생 (56)	25.0	28.6	37.5	14.3	7.1	5.4
	여학생 (77)	27.3	18.2	40.3	20.8	6.5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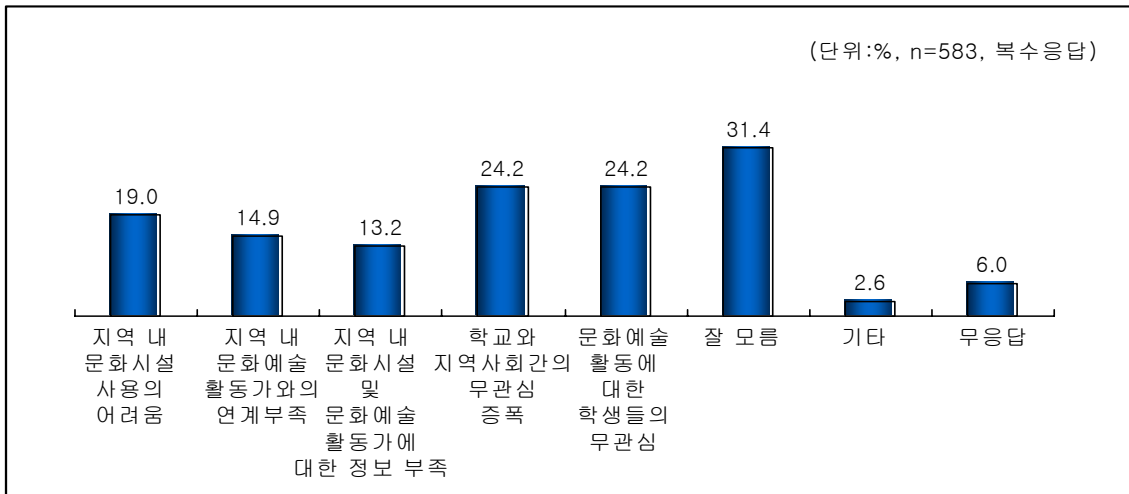


그림 54 지역연계 축제기획의 어려운 점

표 41 응답자 특성별 지역연계 축제기획의 어려운 점

(단위:%, n=583, 복수응답)

		사례수	지역 내 문화시설 사용의 어려움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가와 연계 부족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한 정보 부족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무관심 증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잘 모름	기타	무응답
■ 전 체 ■		(583)	19.0	14.9	13.2	24.2	24.2	31.4	2.6	6.0
지역별	서울	(169)	17.8	11.2	15.4	28.4	20.1	26.0	3.6	8.3
	인천	(301)	20.6	16.6	14.6	22.3	26.6	30.6	2.7	5.6
	경기	(113)	16.8	15.9	6.2	23.0	23.9	41.6	0.9	3.5
성별	남학생	(218)	19.3	12.8	13.8	26.1	22.5	30.7	2.8	6.4
	여학생	(365)	18.9	16.2	12.9	23.0	25.2	31.8	2.5	5.8

7.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표 42 응답자 특성별 축제기획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정도

(단위:%, n=583)

	사례수	조사지역별			성별	
		서울	인천	경기	남학생	여학생
■ 사 례 수 ■	(583)	(169)	(301)	(113)	(218)	(365)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27.3	24.3	31.2	21.2	25.2	28.5
학교축제기간 연장(횟수 연장)	16.3	10.1	15.6	27.4	8.7	20.8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운영	15.6	14.2	14.3	21.2	12.8	17.3
연예인 초청	12.0	7.1	13.3	15.9	8.7	14.0
충분한 예산책정	11.8	13.6	7.6	20.4	8.3	14.0
학생의견 반영 바람	9.4	3.0	11.3	14.2	7.3	10.7

	사례수	조사지역별			성별	
		서울	인천	경기	남학생	여학생
좋은 축제시설 사용	7.7	5.9	6.6	13.3	5.5	9.0
선생님과 함께 하는 축제(선생님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	6.2	5.3	6.0	8.0	7.3	5.5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	5.3	0.6	3.0	18.6	0.5	8.2
공연이 많았으면 좋겠다(다른 학교 공연 포함)	4.6	1.8	5.3	7.1	5.5	4.1
다양하고 저렴한 먹거리 판매	4.5	1.8	6.3	3.5	4.6	4.4
자유로운 축제	4.3	1.2	7.0	1.8	3.2	4.9
축제준비기간 충분히	2.4	2.4	2.0	3.5	2.8	2.2
모두 함께 공연뒷정리하고 질서 지키기	1.7	1.8	2.0	0.9	0.5	2.5
저녁행사생략	1.2	0.0	2.0	0.9	2.3	0.5
학생장기자랑 반영	1.2	1.2	1.0	1.8	1.4	1.1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원	1.2	0.6	1.3	1.8	0.0	1.9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	1.0	0.0	2.0	0.0	0.5	1.4
축제기간과 시험기간 중복 피하기	1.0	0.6	0.3	3.5	0.0	1.6
선생님 장기자랑	1.0	1.2	1.0	0.9	1.8	0.5
스타개인전 프로그램 원함	0.5	0.0	0.7	0.9	1.4	0.0
관람예절 지키기	0.5	1.2	0.0	0.9	0.5	0.5
축제 일찍 끝내기	0.3	0.0	0.7	0.0	0.5	0.3
체육대회 때 천막설치	0.3	0.6	0.3	0.0	0.9	0.0
시간 배분 잘하기	0.3	0.6	0.3	0.0	0.5	0.3
우천 시 행사 연기	0.3	0.0	0.7	0.0	0.5	0.3
불꽃놀이 프로그램 원함	0.2	0.0	0.3	0.0	0.5	0.0
안전사고 없는 축제	0.2	0.0	0.3	0.0	0.0	0.3
없음	28.0	42.6	25.2	13.3	38.5	21.6

4

제 4 장 학교축제 사례 분석

4

제 4 장 학교축제 사례 분석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장기자랑, 공예품전시, 공연, 체육대회 등 천편일률적인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이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장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던 중학교 축제들 중에서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던 축제사례들을 선정하여, 축제의 추진목적, 기획의도, 준비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학교축제와 지역간의 긴밀한 연결고리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



그림 56 느티나무제(구일중 축제모습, 왼)와 인천여중 축제모습(오른)

이 사례들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보다 분명히 설명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리라 판단된다.

제1절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결합⁹⁾

1. 축제의 개최배경과 의미

‘벽오동 축제’가 활성화 되게 된 배경에는 1997년부터 있었던 ‘도농교류활동과 자매결연 사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알뜰장터(실직자 자녀 및 학생 가장 돕기)’, ‘동아리 활동 발표회’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학교축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의 특기적성교육 지원 및 축제 활성화 지침에 따른 영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학교 차원의 아낌없는 축제지원이 뒷받침 되었다.



그림 57 벽오동제 모습

기존에 해왔던 중학교 축제의 일반적인 모습은 주로 전시회를 중심으로 한 학년반별 순서에 따른 줄 세우기 관람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인중학교 축제는 학급자치활동에 의거한 ‘학급 이벤트’, 학생회 활동에 의거한 ‘놀이장터’, 계발활동 및 동아리 활동에 의거한 ‘공연마당’, 학부모 및 교사회에 의한 ‘알뜰장터 및 먹거리 장터’ 인근학교 참여에 의한 ‘상설마당 및 특별 이벤트’ 등으로 중학교 축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벽오동축제의 가장 큰 특징과 성과는 학생회 활동의 과정과 결과로서의 자주적 행사였다는 점에 있다. 학생회에서 자체 제작한 학교 축제 홍보 비디오와 축제에 대한 설문조사, 활력 프로젝트(여름 방학 중 실시되는 중, 고등학교 학생회 담당자들의 축제기획 캠프), 축제의 각 영역별 도우미의 활동 등은 학생회가 주도하는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반면에 축제가 학교교육활동의 결산으로서 의미가 있다 할 때 내용면에서 기성 대중문화의 모방과 외부초청 공연에 의존하는 모습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학교축제의 모습이

9) 2004년도 서울 구로구 경인중학교의 “벽오동 축제” 사례

학교 내에서 소통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인근학교,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됨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이 필요할 때이다.

2. 축제의 추진과정

축제의 주제는 “우리들의 당당한 학생문화!”로 정하였고, 이것은 학교교육이념과 목적, 축제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따른 지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공모해서 선정한 것이었다.

1) 축제의 목표

- ① 경인중학교 교육활동의 총결산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학생문화를 보여준다.
- ② 학생회가 주축이 되고 학부모, 학교가 함께 이를 지원함으로써 학생회의 자주적 자치활동으로서의 학생문화 형성에 기여한다.
- ③ 함께 준비하고 추진하는 축제활동을 통해 공동체 사회에서의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와 가치 태도를 갖는다.
- ④ 학부모 및 가족, 인근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중학교 축제의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축제의 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 ⑤ 교과교육, 계발활동,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학교 교육활동의 성과를 축제를 통해 보여줌으로서 학교문화의 전통을 세울 수 있다.
- ⑥ 학생의 특기와 소질을 발휘함으로써 창의력과 자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축제 추진방침

- ① 축제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벽오동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학생추진위, 교직원추진위, 학부모추진위로 구성해서 준비한다.
- ② 학생, 학부모 및 가족, 인근학교,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과교육, 계발활동, 자치활동, 상설 동아리 활동 등의 성과를 축제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학교교육의 목표와 과정 및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축제의 내용과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영역과 내용을 정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계획과 목표가 학교축제를 통해 충실히 구현될 수 있다.
- ⑤ 벽오동의 밤은 교직원,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 ⑥ 기본적으로 축제가 신명나면서도 자율적인 질서 속에서 치러질 수 있게 사전 교육에 힘쓰며 지역단체나 행정기관의 협조를 구한다.

3) 축제의 내용 및 추진방법

가. 축제 내용 종합 구성표(예시)

표 43 축제 내용 종합 구성표

영역	주제	내 용
체육대회		자체계획
전시	교과활동	국어과
		영어과
		수학과
		사회과
		도덕과
		과학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기술/가정과
		한문과
		재량활동
	계발활동	도서반
		리본공예
		만화
		비즈공예
		생활소품
		수채화
		아트풍선
		제과제빵
		칼라믹스
		케익데코레이션
		테디베어
		프라모델
		환경탐사
		기타
	학생자치 및 학년활동	
	교사/학부모 솜씨전	
학급행사	학급별 주제	공모를 통해 선발된 5개 학급의 다채로운 행사
기획행사	놀이체험마당	미니 올림픽, 민속전래놀이 등 각종 놀이 문화를 자유롭게 체험하는 행사
	먹거리 장터	각종 분식과 민속음식을 파는 행사
	알뜰 장터	재활용 생활용품을 교환하거나 살 수 있는 행사
초청행사		페이스페인팅 등 외부초청 행사
경연대회	예능경연대회	독창, 중창, 기악, 무용, 댄스, 유머극, 미술 등 학생경연 대회
	난타경연대회	사물놀이 요소를 활용한 리듬 퍼포먼스 작품 만들기
벽오동의 밤	학생	노래, 기악, 무용(댄스), 연극, 미술 등
	교사/학부모/주민	교사중창(또는 댄스) 등
	외부초청	교사노래패, 사물놀이, 모듬북, 관악대

나. 축제 행사 진행 일정표

표 44 사전행사

[예능경연대회]	1) 일시 : 2005. 9. 13(화) 15:30~17:00 2) 부문 : 노래(독창, 중창), 기악(독주, 중주), 무용 및 댄스, 유머극, 미술 등 3) 장소 : 제1, 2 음악실 4) 선발 방법 : 교사, 학생 심사위원 심사에 따른 각 부분별 우수학생 선발, 최우수 학생 및 작품은 '벽오동의 밤'에 출연함 5) 특전 : 입상한 학생은 교과(음악, 체육 등) 특기사항에 내용 기록 및 수행평가 가점부여(태도 점수)
[이야기 음악 만들기 경연대회]	1) 일시 : 2005. 10. 10(월) ~ 15(토) 2) 내용 : 간단한 주제에 따른 이야기 음악 창작 및 발표 3) 장소 : 제1, 2 음악실 4) 선발 방법 : 3학년 음악 수행평가를 통해서 1개 모둠을 선발함 5) 특전 : 입상한 학생은 음악교과 특기사항에 기록 및 수행평가 가점부여

표 45 본 행사

날짜 시간	첫째 날	둘째 날
09:00	• 체육대회	• 개막식(실내방송) - 출석확인 및 안내사항 전달 • 전시회장, 학급행사, 알뜰장터, 먹거리 장터, 놀이체험마당 개장 ※ 외부초청 행사(인근학교, 지역 시민단체 참여)
10:00		
11:00		
12:00		• 점심식사-급식 도시락
13:00	• 전시회장 준비 • 학급행사 준비 • 기획행사 준비 • 공연팀 리허설	• 벽오동의 밤 무대설치 - 무대, 조명, 음향, 빔, 스크린, 좌석배치
14:00		• 전시회장, 학급행사, 알뜰장터, 초청 행사 정리 및 의자배치
15:00		• 벽오동의 밤 공연 리허설 - 스태프, 공연팀 남고 전교생 귀가
16:00		- 사회진행, 음향 및 조명상태 점검, 출연진 무대연습 등
17:00		- 공연 안내 도우미 및 행사장 주변 안전 유지 도우미 배치
17:30		• 저녁식사-스텝, 출연자, 지도교사 / 김밥과 음료수
18:00		• 공연장 좌석배치 완료 및 입장 - 공연 입장권 확인 및 객석 정리 • 풍물패 길놀이-학교→개봉사거리→개봉역→학교→운동장→무대
18:30		• 벽오동의 밤 1부 - 개막축하 공연(사물놀이), 학생, 학부모 초청
19:30		• 벽오동의 밤 2부 - 연극, 학생 초청, 교사 출연
20:30		• 폐막식 - 귀가 및 정리

4)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표 46 세부내용 및 추진방법

행사명	행사주관	행사내용	추진방법
체육대회			
전시회	전시회 추진소위	• 각 교과별 교수학습 활동에 따른 연구 자료, 학생작품 전시 • 각 계발활동에 따른 작품 전시 • 학생회 및 학급활동에 따른 자료 전시	• 교과의 특성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학교 교육과정 관련한 종합자료는 연구부에서 추진 • 전시회 추진소위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

행사명	행사주관	행사내용	추진방법
		교사, 학부모 작품 전시	립하고 추진 - 계발활동 영역은 1년간 수행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작품을 선발해서 전시하거나 활동내용을 소개하는 판넬, 리플렛 등을 전시 - 학생자치 영역은 학생회의 홍보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학년활동은 학년별 행사(수련회, 사생대회, 백일장, 과학행사, 음악공연 체험의 날 등)자료를 전시 - 학부모 및 교사 작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준비
학급 행사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각 학급 학생회 및 담임	놀이(물총 서바이벌 게임, 인간 두더지, 물 풍선 던져 터뜨리기, 풍선 다트, 스트레스 팍팍, 물먹는 하마, 유령소굴 등), 미니 올림픽(홀라후프 오래 돌리기, 음료 마시기 대회, 애견 달리기 대회, 제기 많이 차기, 물풍선 멀리 던지기, 워드 빨리 치기 경연 대회), 테마카페(콜라텍, 뮤직비디오 카페, 인기드라마 카페, 귀신 카페, 공포의 캐릭터 바, 추억의 카페), 장터(바자회, 악세사리 판매, 추억 속의 뽑기, 분장 사진관 등.), 기타(펌프, 페이스 페인팅, 점 보드립니다, 선생님 옛날 사진전 등)	- 학급별 행사계획서를 응모한 학급 중에서 5개 학급을 선발하여 실시 - 행사 주제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여타 행사와의 내용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전 조율
기획 행사	학생회,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	- 놀이체험마당 - 민속놀이 : 널뛰기, 제기차기, 투호 놀이, 비석치기 등 - 협동놀이 : 손으로 말해요, 믿음 쌓기, 스피드 퀴즈, 빨래줄 길게 잇기, 기차놀이, 신발게임(신발 원 안에 많이 넣기, 신발로 탑 쌓기), 다리수 줄이기, 탁구공 나 무젓가락으로 전달하기, 미니 올림픽 등 - 먹거리 장터 향토음식과 각종 분식, 음료수, 파전, 김밥 등을 저렴하게 판매 - 알뜰 장터 : 각자 기증한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서로 물물교환하거나 판매	- 놀이체험마당 : 학생회의 벽오동 축제 추진위원회 중에서 놀이체험 마당 준비소위를 구성. 다양한 놀이주제를 선정해서 익힌 다음 추진. 원활하고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교사 및 학부모회에서 놀이체험마당 준비소위를 구성하고 함께 참여. 참여자에게는 채점기록표를 나눠주고 코스별로 이동하여 각 놀이장터에 참여한 결과에 따라 상품 증정 - 먹거리 장터는 학부모 추진위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급식여부에 따라 규모를 정해 준비 - 알뜰장터는 교사, 학부모, 학생 추진위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추진
초청 행사	초청단체 (학교 및 지역단체)	- 진로정보전 :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정보 및 홍보활동 - 직거래장터농수산물 직거래 판매(학교 성격에 맞는 목적이 있어야 함) - 문화생활체험페이스페인팅, 각종공예, 짚풀공예, 종이접기 등	- 축제 확정안에 의거 관련단체에 협조 요청한 후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추진 - 상급학교 진로체험이나 문화생활 체험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내용은 따로 선정

표 47 별도표

벽오동 축제의밤	벽오동 축제추진위	- 개막축하공연(사물놀이) - 연극 - 학생, 학부모초청, 교사출연	
----------	-----------	---	--

표 48 '벽오동 축제의 밤'의 추진방법

일 시	2005년 10월 21일 오후 18시30분~오후 20시30분
주 관	벽오동 축제추진위원회
협 조	구로구청 및 관내 파출소, 지역기업 등
대 상	경인중학교 학생 및 가족, 인근학교 학생회, 지역주민(노인회 초청) 등
추진방법	• 공연의 수준과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무대에 올릴만한 주제를 담당할 계발활동, 상설동아리 활동을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고 준비한다. • 학생들의 특기를 장려하기 위해 경연대회 등을 통해 입상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 교과활동과 관련해서 보여줄 만한 작품을 선정해서 무대에 올린다. • 본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 인근학교 학생회(초청), 지역주민(초청)을 대상으로 사전에 참여 희망조사를 통해 입장권(좌석표 지정)을 배부한다(최대 2,000석). ※ 축제추진위를 제외한 교직원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입장권 배부). • 오후 2시까지 무대와 조명/음향장치, 스크린, 빔 등을 설치한다. • 오후 2시까지 좌석 배치선을 그리고 좌석임대를 통해 500석의 좌석을 우선 배치한다. • 벽오동 축제의 밤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오후 2시 30분에 종료하고 정리한다. • 전교생은 각 교실에서 개인 의자를 학급별 정해진 좌석배치표에 따라 배치한다. • 오후 3시에 축제추진위를 제외한 모든 학생, 교사들은 영역별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후 저녁식사를 한 후 입장한다. 입장 시작은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하여 6시20분에 완료한다. • 입장권이 없는 외부 관람객의 경우 교내 학생의 좌석배치가 모두 끝난 이후 입장을 시킨다. 별도의 좌석 없이 자율적으로 관람한다. • 관할 파출소 및 지역단체 등에 협조를 얻어 장내 외 안전유지를 꾀한다. • 벽오동축제의 밤이 끝나는 오후 8시30분 이후 장내 정리(교실의자, 쓰레기 수거 등.)를 하고 귀가한다.

5) 실행위원회 조직



그림 58 학생들의 축제준비모임

표 49 추진위원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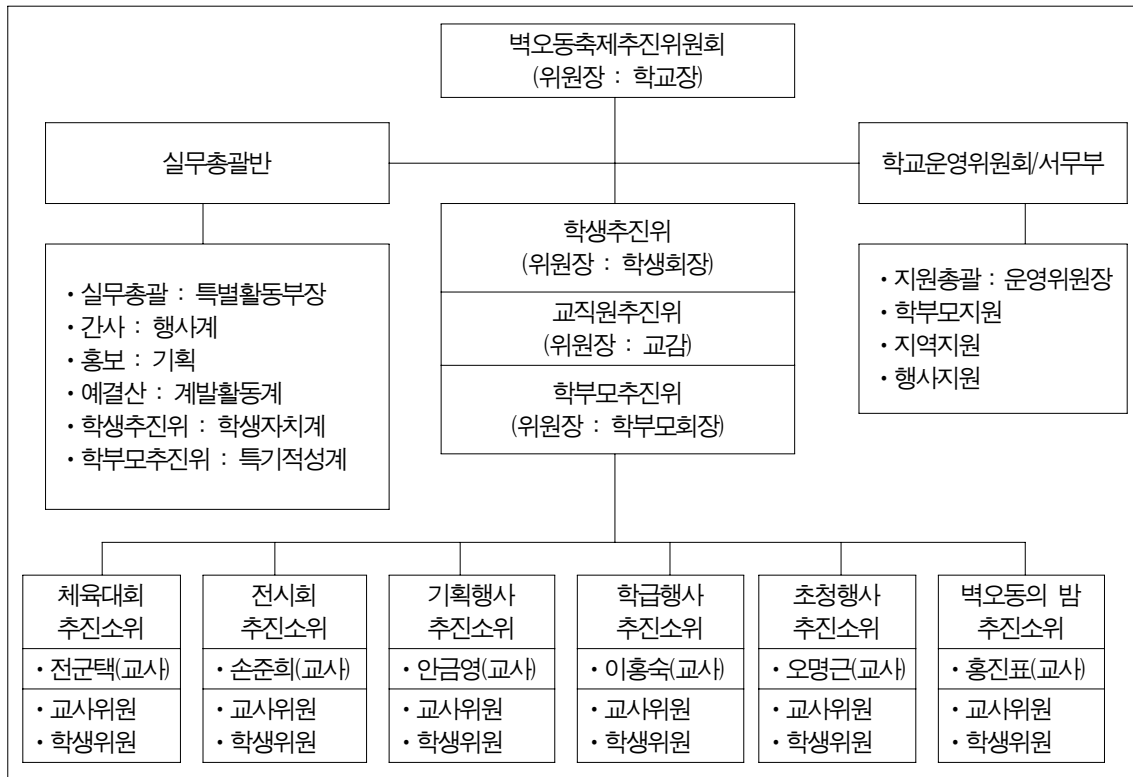


표 50 실무총괄반

구분		담당
구성		특별활동부장 및 기획, 특별활동 담당계
역할	총괄	축제 추진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 총괄업무
	간사	축제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행사내용의 기획, 추진, 운영을 위한 실무담당
	홍보	축제 홍보를 위한 공문처리, 각종 홍보물 담당
	예결산	축제 추진 중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처리, 영수증 정리
	학생추진위	학생 추진위 지도 및 지원활동
	학부모추진위	학부모 추진위 협조 및 실무지원(진로상담부와 협조)

표 51 학교운영위원회 / 사무부

구분		담당
구성		학교운영위원 및 사무부
역할	지원총괄	학부모 및 지역협조를 위한 업무
	학부모 지원	학부모추진위 조직 및 참여와 홍보 지원
	지역 지원	지역관청(구로구청, 경찰서)과 지역자치단체 및 주민 협조와 홍보 지원
	행사지원	축제 추진중에 필요한 예산 집행 및 시설 설치, 철거, 관리 지원

표 52 학생추진위

구분		담당
구성		학생회장단과 각 부서장, 학생회에서 모집한 추진위원
역할	학생추진위원장 (학생회장)	벽오동축제 학생추진위 활동의 대표 및 회의소집
	학생추진 부위원장 (학생회부회장)	벽오동축제 학생추진위의 활동에 따른 구체적 실무를 기획하고 총괄하며 각 영역별 소위활동을 책임지고 집행, 축제운영에 따른 진행위원(도우미-영역별 진행위원, 좌석배치 및 벽오동의 밤 입장권 관리, 행사장 안전 및 질서유지 등) 업무 총괄
	홍보운영	학생회지, 홈페이지, 교내 방송, 교내게시물 부착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축제의 홍보 및 안내, 교외홍보 활동, 축제운영 및 안내 도우미 ※ 학생회 편집부, 전산부, 방송부장, 학생생활부장과 협조
	각 영역별 소위	축제의 각 영역별 활동에 따른 계획수립 및 집행

표 53 교직원추진위

구분		담당
구성		교감 및 특별활동부를 비롯한 각 영역별 교사 추진위원
역할	교직원추진 위원장(교감)	벽오동축제 교직원추진위 활동의 대표 및 회의소집
	실무총괄 (특별활동부장)	벽오동축제에 따른 구체적 실무를 담당하며 학생추진위, 교직원추진위, 학부모추진위의 활동을 지원함. 실무총괄반(특별활동부)의 업무를 책임 집행함
	지역 지원	지역관청(구로구청, 경찰서)과 지역사회단체 및 주민 협조와 홍보 지원
	각 영역별 소위	축제의 각 영역별 활동에 따른 계획수립 및 집행

표 54 학부모추진위

구분		담당
구성		학부모회
역할	학부모추진 위원장(학부모회장)	벽오동축제 학부모추진위 활동의 대표 및 회의소집
	각 영역별 소위	축제의 각 영역별 활동에 따른 학부모회의 참여 및 지원활동

6) 각 영역별 추진소위

표 55 각 영역별 추진소위의 역할분담

구분	역할
체육대회추진소위	• 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활동 담당 - 체육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체육대회의 내용과 진행을 계획하고 실행 - 학생회에서 체육대회추진소위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협력
전시회추진소위	• 전시회 추진에 따른 활동 담당 - 전시에 참가하는 교과목과 계발활동반을 중심으로 구성 - 1년 동안의 교육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을 수집, 관리하고 효율적인 전시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계획하고 진행

구분	역할
	- 학생회에서 전시회추진소위를 구성해서 지원하고 협력 - 예체능교육부 및 연구부에서 협조
기획행사추진소위	• 기획행사 추진에 따른 활동 담당 - 진로상담부 및 학부모회, 학생추진위에서 '놀이체험마당'을 준비하고 진행할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 - 먹거리장터, 알뜰장터 등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수집하고 판매 - '놀이체험마당'을 준비하고 진행
학급행사추진소위	• 학급행사 추진에 따른 활동 담당 - 학급행사에 채택된 학급임원과 담임교사로 구성 - 학급별 행사가 질서 있게 실행되기 위한 준비과정 점검 및 효율적인 교실배치 모의
벽오동의 밤 추진소위	• 벽오동의 밤 추진에 따른 활동 담당 - 공연에 참가하는 계발활동부서 및 상설동아리를 중심으로 구성 - 학생공연, 교사 및 학부모 공연, 외부초청공연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 무대, 음향, 조명, 객석배치, 안전유지, 주차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그림 59 결개그림제작모습(왼)과 공연객석배치 모습(오른)

7) 연간 추진계획표

표 56 연간추진계획표

항목	월/주 내용	5					6					7					8					9					10					비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기획	축제계획 내부 논의	○	○	○	○	○	○	○	○	○	○	○	○	○							○	○	○									
	추진계획서 확정 결재	○	○																													
	운영계획서 확정 결재																					○	○									
조직	특활부 추진위 구성	○	○																													
	학생 추진위 구성	○	○	○																												
	교사 추진위 구성				○	○																										
	학부모 추진위 구성				○	○																										
연수	학생회 연수 및 평가회				○	○								○	○	○	○	○								○	○		○			
-	출연자 간담회		○	○									○													○	○					
정리	교사 연수 및 평가회				○	○																				○	○		○			

항목	월/주 내용	5					6					7					8					9					10					비고
		1	2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5	1	2	3	4	1	2	3	4					
	학부모 연수 및 평가회					○ ○																		○ ○		○						
	학교운영위원회					○ ○																		○ ○		○						
	설문조사 및 분석			○ ○	○ ○	○ ○																			○ ○							
	전체 평가회의																									○						
홍보	추진내용 홍보(전체)				○ ○																		○ ○	○ ○								
	가정통신문 홍보																							○ ○								
	소식지 홍보				○ ○						○ ○									○ ○												
	방송 홍보																			○ ○												
	추진위 영역별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현수막 부착																							○								
	포스터 부착 및 배부																							○								
	팜플렛 제작 및 배부																								○							
	외부 참가 희망자 조사																								○ ○							
	입장권(초대권) 배부																									○						
	체육	추진안 확정																							○							
		대회 진행																									○					
전시	전시목록 및 작품 수합																							○ ○								
	전시실 설치 및 부착																								○ ○							
	전시회 진행 및 철거																										○					
학급행사	학급행사 공모																		○ ○													
	학급별 준비(이동수업)																								○							
	학급행사 진행 및 철거																									○ ○						
기획행사	영역별 내용 확정																						○ ○									
	놀이체험마당 진행연수											○ ○	○ ○	○ ○	○ ○										○							
	영역별 준비																						○ ○	○ ○								
초청행사	영역별 진행 및 철거																									○ ○						
	외부학교 협조 공문																								○							
	영역별 준비																								○ ○							
대회	영역별 진행 및 철거																									○ ○						
	예능경연대회																		○ ○													
벽오동의 밤	난타경연대회																							○ ○								
	진행안/사회자 준비																							○ ○								
	좌석배치표 확정																								○							
	무대 및 음향조명 설치																									○						
	리허설																								○ ○							
	행사 진행 및 철거																								○ ○							

표 57 실행추진계획표

월	주	일시	내용	참여대상
9	1	5~11	축제홍보동영상제작완료 축제표어 및 캐릭터 접수 완료 예능경연대회 참가자 접수 완료	방송부 추진위 추진위
	2	12~18 *추석연휴 17~19	축제표어 및 캐릭터 공모 입상자 선정 예능경연대회 시행 및 입상자 선정(벽오동의 밤 출연자 선정) 학생회 소식지 제작 완료 및 배포 축제동영상 홍보(방송부) 학급행사(이벤트) 공모 / 추진소위별 홍보 걸개그림 제작 프로젝트 추진	추진위/학생전체 추진위 편집부 방송부 추진위/학급전체 만화동아리
	3	19~25	벽오동의 밤 출연자 간담회 전시 동아리 학생대표 간담회 학급행사(이벤트) 선정 및 학급별 대표 간담회	추진위/출연자 추진위/동아리 대표 추진위/해당학급
	4	26~10/2	기획행사 계획 완료 및 행사추진 (놀이체험마당 준비)	추진위/학교운영위
10	1	3~9 *개천절 연휴2~3 *중간고사 5~8	전시마당 작품 수합 및 준비 난타/몸타경연대회(3학년 학급별) 추진위 영역별 홍보 현수막 부착 및 포스터 제작해서 부착 축제 팸플렛 제작 디자인 벽오동의 밤 참가 희망자 조사(좌석배정)	추진위/전시 동아리 3학년 전체 추진위/홍보부 추진위/홍보부 추진위/편집부 추진위/학급회장
	2	10~16	전시실 설치 시작 및 작품부착 학급행사 학급별 추진 및 이동수업 축제종합홍보(학급회의 및 방송과 안내자료집) 벽오동축제의 밤 출연자 최종 간담회 놀이체험마당 진행연수 및 최종 점검(준비물 확보) 벽오동축제의 밤 진행 시나리오 작성 축제 팸플렛 및 벽오동의 밤 입장권 배부 ※ 벽오동의 밤 입장권은 학급회의에 따라 판매 추진 벽오동축제의 밤 좌석 배치표 작성 벽오동축제의 밤 출연자 1차 리허설	전시 동아리 해당학급 추진위/학생전체 추진위/출연자 추진위/운영 도우미 추진위 추진위/학급회장 추진위 추진위/출연자
	3	17~22	전시마당 설치 및 철거 좌석배치 및 선 그리기 벽오동축제의 밤 출연자 2차 리허설(사회자 포함) 벽오동축제의 밤 음향무대조명설치 및 철거	전시 동아리 추진위/자유음향 추진위/동아리 자유음향/추진위
	4	24~30	축제추진위 종합 평가회	추진위

3. 평가와 전망

이 사례는 무엇보다도 축제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축제추진주체들의 의지와 추진력이 돋보인다. 축제준비과정의 치밀함과 섬세함이 더해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준비하고 추진하면서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 교사, 학생, 지역주민의 협조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0 구일중학교 축제 준비모습

제2절 학교축제와 지역축제의 결합

1. 축제동기

부론중학교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원주시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강을 경계로 하여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3도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농촌 소규모 학교이다. 학교의 규모는 교장을 비롯한 9명의 교사와 1학년 9명, 2학년 6명, 3학년 10명, 전체 25명의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본 지역은 다양한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환경이 열악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문화, 예술분야의 체험과 교육활동은 극히 소외된 지역이었다.

그러던 중, 2005년부터는 본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인, 광대패 모두 골과 연계하여 몇몇 교사의 자율 연구 모임으로 시작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향후 방안을 전 교사와 분석논의 하던 중, 전교생이 참여하는 '부론중학교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을 구성, 활동함으로써 부론중학교 특색교육으로 브랜드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 58 추진배경

- ※ 2005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최
교사자율 연구모임 지원사업 선정
- ※ 기무악극(歌謠樂劇)활용을 통한 문화예술교과 및
장르 간 통합적 교수안 교육과정 편성 운영
- ※ 통합적 체험 활동을 통한 건전한 놀이 문화 전달
- ※ 소인수 학급에서의 교수·학습개선 및 표현력 신장
- ※ 지역 예술단체(광대패 모두 골)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2006년도부터는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광대패 모두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歌(가).舞(무).樂(악).劇(극) 활용을 통한 문화예술 교과 및 장르 간 통합적 교수 학습 안>을 마련하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문화예술교육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학습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부론중학교 창작마당극 공연 예술단을 학교 특색 교육으로 정착시키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학교 축제가 학교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의 축제로 진화한 것이다. 지역 주민이 함께 모이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의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있다고 생각, 학교 축제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의 축제로 만들어지는 실험을 농촌의 작은 학교에서 실현해낸 것이다.

2. 전통놀이와 여가체험의 결합

농촌 면 지역에 소재하는 부론중학교는, 1, 2, 3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모두골 광대패와 연계학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통합적 체험교과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하고 2학년 국어에서 전통시가 향가에 대한 소재를 찾아 체험교과학습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축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전통시가인 향가와 가무악극과 친숙해질 수 있는 여건과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방안을 연구하였다.

표 59 부론중학교 지역전통문화연계학습의 특징

- ※ 지역에 정착한 예술단체 자원과 유기적인 관계로 문화예술 교육활동 질적 향상
- ※ 농촌지역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의 특성화 모색
- ※ 가무악극(歌謠樂劇)을 활용한 창작마당극 공연예술단의 본교 특성화
- ※ 지역 문화 일꾼으로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창의성 신장

정기적인 마음열기를 위하여 ‘부론중학교창작마당극연구회’와 연구에 참여할 지역 예술가들이 2006년 3월(1차), 4월(2차)에 모임을 갖고 연구 목적과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자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였다. 그리고 창작마당극 소재 탐색과 주제를 선정하여 2006년 5월 ~ 2006년 7월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고 공연예술 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연예술단’ 교육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교사와 참여 예술가 간의 3차 워크숍에서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의 교육 활동에 대한 진행의 원활함과 목적 및 목표에 대한 접근도를 점검하고 방학 중 활동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여 2차 교육활동과 공연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 7월 ~ 2006년 8월 방학 기간에 집중적인 활동을 시도함으로써 연구회 구성원간의 인간적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고 예술분야의 특성상 갖추어야 할 기능의 숙련도와 자기 분야의 예술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공연예술단원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갖추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6년 9월 ~ 2006년

10월에는 방학 중에 실시한 집중적인 교육활동을 이어 받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교육을 받도록 하며 지역행사의 참여 및 다양한 공연활동을 실시한다. 따라서 창의적인 표현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2006년 10월부터 학교 예술제 및 지역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006년 12월 중 1년간 ‘부론중학교창작마당극연구회’ 활동이 애초의 사업 목적과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는지 평가하고, 1년간의 사업 결과로 얻어진 교육효과와 지역 예술가와의 유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 연구에 참여한 지역 예술가들이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를 통하여 연구과제 실천 정도를 평가 분석한다.



그림 61 공연모습

표 60 창작마당극 교수·학습 과정안(예시)

제 2 학년		주제 : 호흡과 걸음 알아보기 (3 / 34)	준비물	
수업활동 (창작마당(연극) 영역)			막 대	
학습목표	다양한 종류의 호흡과 걸음에 대해 알아본다.			
활동흐름	학습내용	활 동 내 용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마음열기 학습목표확인	▶학습 분위기 조성하기 손뼉치기 ▶학습 목표 확인하기 다양한 종류의 호흡과 걸음에 대해 알아 보자.	5'	▷교차하는 손대신 다른 방법도사용 해본다.
전 개	연극놀이	놀이1. ▶고양이 호흡 - 허리를 고양이처럼 구부려 앉는다. 등을 평평하게 수평으로 한다. 이때 엉덩이와 머리는 수평이 되어야 한다. 그 후 허리는 구부려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얼굴과 엉덩이는 아래로 내린다. 이 때에는 호흡을 내뿜는다. 그 다음에는 배를 땅을 향하게 내리고 머리와 엉덩이는 하늘을 향해 높게 올린다. 이때 호흡은 들이 마신다. 놀이2. ▶땡칠이 호흡 - 허를 최대한 내민다. 호흡을 하며 공기가 배로 들어가는 것을 느껴본다. 놀이3. ▶한 숨에 노래부르기 - 숨을 한번에 많이 들이마시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불러본다.	40'	▷지시어에 잘 따르도록 지도한다.

3. 축제통합교과를 통한 표현력 증진

본교가 축제를 이벤트로 보지 않고 통합교과의 차원에서 ‘부론중학교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을 만들어 냈다. 예술단은 국어과 내용에 나오는 국문학(향가나 전래문학 등)에서 소재(작년의 경우 ‘서동요¹⁰⁾’)를 선택하여 음악, 미술, 국어 등이 통합된 학습안을 바탕으로 창작 마당극 작품으로 각색하고 공연했다. 전교생 25명이 무대 위에서 마당극을 공연하고 모듬북 연주를 하는 것이다. 통합교과 운영에 대해 모든 교사는 “처음에는 학생들도 힘들어하고 어려움이 많았으나, 창의적인 자기 표현력이 신장되고 교사와 학생들이 협동하여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교과의 교육적인 상승효과가 커졌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력에 만족하게 되었다.”고 상당한 만족감을 드

10) 서동요 학생작품 사례 1 : 부론중학교 재학생

“내가 선화공주가 되어 서동에게 고백한다면,

가사 : 얼리리요 플레리요 굵디고운 선화공주 / 맛둥 도련님과 사랑에 빠졌네 얼리리요 플레리요
그들사랑 아무도 몰래 부엉이도 박쥐도 / 하늘의 별들도 아무도 몰래
얼리리요 플레리 그들의 사랑이야기

서동요 학생작품 사례 1 : 부론중학교 재학생

“내가 서동이 되어서 선화공주에게 고백한다면

가사 : 새도 시슴도 마음대로 넘나드는데 / 사람의 마음 국경을 왜 못넘나
서동은 고백하고 선화공주와 몰래 만나네 / 남이 알면 어쩌나 아이고야 어쩌나
해와달이 아시면 아이고야 어쩌나

러냈다.

부론중학교는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로,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대부분 인근 시내 학교로 전학을 가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학습 의욕과 경쟁심이 낮아 대체로 기초 학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학습부진 현상을 보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정서장애나 기본적인 학습 결손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서도 학습 성취도가 매우 낮은 학생들이 있다. 또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과학습 성취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창의성도 부족한 편이다.

표 61 통합교과 관련 연간 지도 계획(예시자료 : 중2학년)

월	일	제 재	학 습 내 용	장 소	자기표현력			
					음 악	신 체	조 형	언 어
3	6	신나는 연극반	연극놀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열고 자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음악실	○	○		○
	21	무얼 잘하나?	단순한 이름소개보다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놀이로 자신의 장점을 키울 수 있다.			○		○
4	11	상상의 세계	상상력을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		
	25	모두 마음을 모아	서로의 마음을 모아 즉흥극을 꾸밀 수 있다.			○		
5	16	감각을 깨우자	나타내려는 것을 몸짓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	○		
	30	숨쉬기와 소리내기	복식호흡에 의한 발성 연습을 한다.		○	○		
6	13	말이 필요 없는 연극	나타내려는 것을 몸짓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			○		○
	27	연기 훈련	신체를 긴장, 이완하여 자신의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운동장		○		
7	11	연기 훈련	자신의 경험에 따라 스스로 믿는 연기를 할 수 있다.	운동장		○		○
9	5	희곡 선정	공연 의도에 맞는 희곡을 선택한다.			○		○
	26	희곡 읽기	배역을 정해 희곡을 읽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	○		○
10	10	희곡 읽기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읽을 수 있다.		○	○		○
	24	움직임 만들기	동작을 실제 상황에 맞게 표현 할 수 있다.			○	○	
11	7	움직임 만들기	희곡의 내용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1	연습 공연	공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충해서 마무리 한다.				○	
12	5	공연	공연준비에 맞게 연극을 공연한다.		○	○	○	○
	19	평가	공연 의도에 맞게 공연이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	○

표 62 방과 후 특기적성 사물놀이 연간 운영 계획(예시자료 : 전교생)

차 시	제 재	지 도 내 용	장소	준비물
1-2	사물놀이부 조직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	음악실	지 도 안 참 고
3-4	창극의 이해	창극의 기본 개념을 이해한다.	〃	
5-6	만남의 시간	서로를 이해하여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운동장	
7-8	이해의 시간			
9-10	발성 연습	발성 연습을 통해 대사 연기의 기본을 익힌다.	음악실	
11-12	발화연습	발화 연습을 통해 대사 연기의 기본을 익힌다.	다목적실	
13-14	신체 훈련1	다양한 놀이의 신체 훈련을 통하여 행동연기의 기본을 익힌다.	〃	
14-15	신체 훈련2			
17-18	창작마당극 감상	연극을 감상하고 분야별로 토론함으로써 연극 공연의 기반을 조성한다.	공연장 비디오	
19-20	창작마당극놀이	여러 가지 창작마당극 놀이를 한다.	운동장	
21-22	대본 선정	공연을 위한 대본을 선정한다.	음악실	
23-26	연극 공연 준비	연극 공연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하고, 공연 계획을 세운다.	도서실	
27-28	연극 공연 연습	공연을 위한 연습을 실시한다.	다목적실	
29-30	리허설	공연을 위한 리허설을 실시한다.	〃	
31-32	연극 공연	총연습 및 발표하기	〃	
33-34	연간 활동 종합 평가	연극 공연 및 연간 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보람관	

따라서 교사동아리의 연구는 교사들에게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통합적 교과 체험 학습을 통한 다양한 수업 모형의 적용과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활용하도록 하여 『가고 싶은 수업, 기다려지는 수업시간』을 만들어 가며 학습하는 방법을 깨닫는 학습을 통해 소인수 학급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개선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사와 지역문화단체, 지역주민대표를 구성하는 회원을 두어 서로 연계성을 갖고,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교실수업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축제로 정착하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연구 활동의 구성원을 보면 표와 같다.

표 63 본교 교사동아리 현황

성명	역할	비고	성명	역할	비고
김시욱	연구 통할(대표)	학교장	황영도	무대미술 지도	
은이수	총괄	교감	여진수	음향분야	3년담임
심영미	연구 기획(음악지도)	교무부장(회계)	양형심	조명분야	
한석웅	연구 추진	연출 지도	이치규	무대장치	1년담임
성금숙	대본 각색, 2년담임	연기 지도	윤인선	역사연구	

표 64 협조회원 현황

성명	역할	성명	역할
임선희	대본작가, 대본 지도	이진희	춤 지도
정대호	판소리, 민요 지도	김지희	음악 지도
이지원	모듬북, 연기, 연출 지도	이덕성	조명, 음향 지도
정대영	무대미술, 무대소품, 무대장치 지도		

표 65 지역 주민 협조회원

성명	역할	비고	역할
한기방	각종 홍보협조	학교운영위원장	춤 지도
조원숙	판소리, 민요 지도	학부모총회장	음악 지도
박선숙	모듬북, 연기, 연출 지도	운영위원	조명, 음향 지도

먼저 지역 문화일꾼의 역할로 ‘부론중학교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이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공연단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지역의 문화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¹¹⁾. 따라서 방과 후 활동 및 특기적성활동을 활용한 전통놀이 경험의 사물놀이부를 전교생으로 조직, 자기표현과 발표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고 1인 1악기 기능을 습득하고 판굿을 이용하여 협동심을 기르고 전통문화를 사랑하며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표 66 방과 후 특기적성 사물놀이부 교수·학습 전개안

일 시	12월 15일, 19일	차 시	23 - 26 / 34
활동 주제	창작마당극 공연 준비		
활동 목표	창작마당극 공연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하고, 공연 계획을 세운다.		
단 계	활 동 내 용		유의점 및 준비물
도 입	○대본 확인 •대본 분배 (전 부원) •대본 설명 (작가, 줄거리, 인물, 주제 등)		◇대본
전 개	○역할 나누기 •연기 부문 - 등장 인물의 나이, 성격,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 경험이 있는 경우 연기력을 테스트하기 - 스태프(staff) 부문		◇각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역할을 맡는 것이 공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것

11) ◎ 대외공연 활동하기

- 원주치악예술관 기획 공연
- 원주시 청소년 축제 참가
- 원주시 강원 감영제 및 전국 단위의 축제 참가
- 강원 민속 예술제 참가
- 강원 및 전국 민족극 한마당 참가

정 리	- 적성, 능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기 - 연출, 기획, 음악(음향), 무대장치(미술), 의상, 소품, 조명, 분장 등 ○활동 계획 세우기 ·각 부문별로 대본 분석하기 ·각 부문별로 활동 계획 세우기 ·각 부문별로 활동 예산 세우기 ·예산 종합한 후 정해진 금액에 맞게 조정하기 ○대본 읽기 ·내용 파악을 위한 개인별 묵독 ·장면별로 소리내어 읽기(dry reading) ·전체 읽기(인물의 성격, 나이 등을 생각하며 읽기) ·음량과 속도 조절하며 읽기 ·연출 노트 작성(연출 담당) 및 대본 수정 ○역할에 관한 소감 발표 및 강조 사항 ·공연을 위한 연습 철저히 할 것(개인별, 모듈별) ·각 부문별로 준비 철저히 할 것 ○차시 예고 ·연습 준비	◇녹음기
-----	--	------

그리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강사진은 모두골의 광대패가 협조하고 특기적성활동은 매주 월요일 7, 8교시 2시간을 운영한다. 사물놀이 부의 편성은 표와 같다.

표 67 사물놀이 편성표

학년	인원	악기명				비고
		쇠	장고	북	징	
1학년	9명	1명	4명	3명	1명	전교생 1인1악기 배우기
2학년	6명	1	2명	2명	1명	
3학년	10명	2명	3명	5명		



그림 62 사물놀이 연습모습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향목제를 경험으로 모두곶과의 한마당 잔치를 통해 강강술래, 차전놀이, 큰 줄다리기 등 전통놀이를 체험하여 협동심과 발표의 기회를 확대한다.



그림 63 전통놀이 연습모습

그리고 다양한 대외 공연 활동을 통해 원주시 및 강원도 내는 물론 나아가 전국의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학교의 특성을 알림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한다.

또한 부론중학교 축제를 지역축제로 만들어 가, 무, 악, 극을 활용한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행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됨에 따라 학교의 축제를 보다 다양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진행함으로써 부론면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여 학교의 축제 행위가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선도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4. 축제의 효과

창작마당극놀이 활용 수업을 위한 기반 환경 조성의 측면에서 교사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는 전통놀이를 활용한 수업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고 수업 개선에 효과적이다. 또한 창작마당극놀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 훈련 과정인 『마음열기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음악적, 신체적, 조형적 및 언어적으로 표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교사와의 유대 관계 및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창작마당극 놀이를 활용한 통합교과 교수·학습 모형 개발의 측면에서 볼 때, 창작마당극을 교과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 목표의 확인, 관련 단원 분석, 연간 지도 계획 수립 등을 교육 여건과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통합교과로 교사들의 연수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전통놀이 수업 활용은 교사들의 교재 재구성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자료 개발이나 교수·학습 모형 개발 적용은 교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고 자기 표현력의 영역을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음악적, 신체적,

조형적, 언어적 표현 활동으로 세분화한 것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존중하는 효과가 있으며,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자신감과 자기표현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통놀이 및 창작마당극놀이 체험활동을 전개하여 창작마당극놀이 관련 행사가 교사 주도에서 점차 학생 주도로 변화되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능동적인 체험 활동으로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여 계발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올바른 수용 태도 형성에 효과적이다.

한편 창작마당극 관련 행사 및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활동의 제공은 확산적 사고와 표현의 다양성을 갖도록 하며 연극놀이 표현활동에 흥미를 갖고 참여함으로써 창의적 표현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문화 단체 학부모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학교와 지역을 홍보하고 농촌지역의 학교 살리기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본교에서 추진한 연구는 창작마당극을 통하여 통합교과로 교과 시간에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시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창작마당극놀이를 통한 자기 표현력의 신장이 학교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전통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기량과 감성을 고양시키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통합교과 운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본교 특성화 교육으로 정착시킴은 물론,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따라서 창작마당극 예술 활동을 통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게 하며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인 농촌지역에서 학교가 그 지역의 전문 예술가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선도적 역할이 정착되도록 한다. 또한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업을 담당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교수 기술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계된 기술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연구가와 학교의 교육과정이 잘 연계되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력을 신장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실 수업에서 창작마당극놀이와 같은 활동적인 수업을 위하여 놀이 공간이 확보된 교실이 요구되며 창작마당극놀이를 운영에서 교사들의 연극놀이에 대한 지도 기술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사이버연수, EBS방송 등을 활용한 강의 개설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공연장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 등 전반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여건에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불균형은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열악한 문화예술교육 환경인 농촌 지역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인 체험활동을 통해(부론중학교 창작마당극공연예술단) 자기의 소질을 발견하고 계발할 수 있다.”는 점을 큰 교육적 효과의 하나로 꼽았다.

대도시 학교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려는 것과 비슷한 의도로, 부론중학교는 통합교과의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창작마당극 활동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부모와 친구들의 부모들, 그리고 이웃이며 교사들인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지

역 문화일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3절 교과과정과 지역 문화콘텐츠의 활용¹²⁾

1. 음악극 수업의 개요

음악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행 그리고 평가를 1년간의 교과과정 안에서 모두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다. 우선 본 수업은 음악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입시를 앞둔 3학년의 수업을 위한 제안에서 출발하였다. 우선 1학기에는 다양한 음악극 작품을 감상하여 음악극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음악극이 무엇인지, 어떤 음악극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취합한다. 그리고 그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데 가능하면 배우나 음악극 가수를 직접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기회를 마련한다. 장래에 음악극가수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좀더 이상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 연주회장이나 극장에 단체관람을 한다.

이렇게 음악극에 대해 쌓은 기초지식과 초청공연, 초청강연 등을 통해 2학기부터는 조를 짜서 직접 대본을 만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대본은 만들고 직접 공연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해 나가도록 지도한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연극 강사나 지역의 연기자 지망생 등이 학교에 일일교사로 와서 도움을 준다. 이런 시간들이 음악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준비작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교사는 이 시간을 예술체험 학습으로 마지막 평가를 한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직접 음악극 홍보를 위한 팜플렛, 포스터 등을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든 음악극이 무대에 오르도록 하는 일인데, 음향,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또 수용인원도 적은 학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학생이 나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나서서 지역에서 가능한 문화시설을 빌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 시설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만든 무대의상, 포스터, 전단지 등을 직접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통신문으로 보내고, 지역의 곳곳에 홍보를 한다.

공연당일은 2학기의 마지막 수업이 되는 셈이며, 이 공연은 한 학년 전체가 참여하므로 참여하지 않는 다른 학년이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도와주게 된다. 학부모는 물론 다른 학교의 학생들의 방문도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질서유지 방법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12) 인천 부평여자 중학교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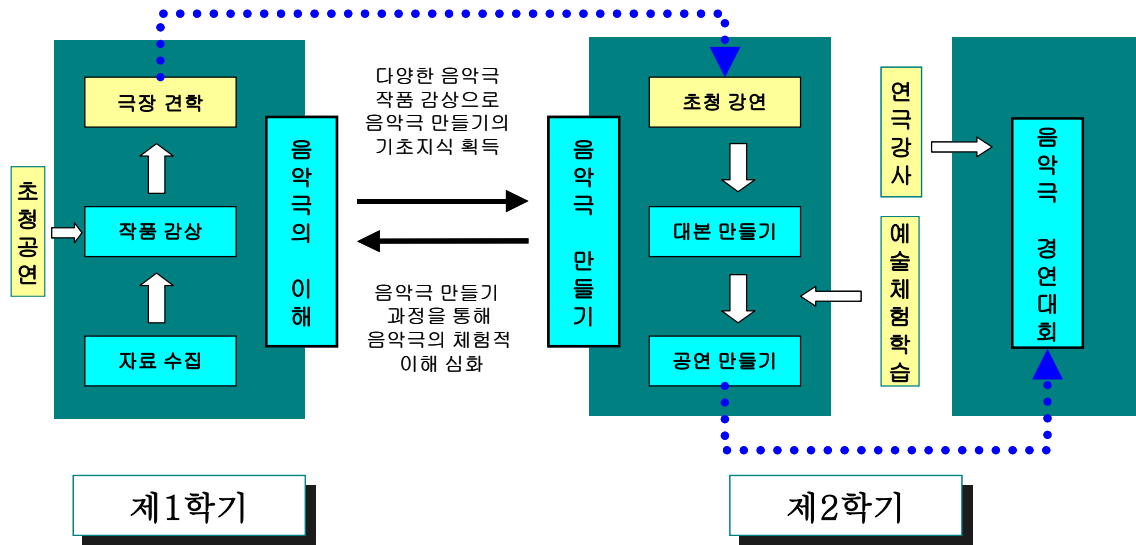


그림 64 수업진행흐름도

표 68 월별 프로그램 진행순서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우수사례 지원사업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프로그램활용	음악교과 정규수업	타교과와 협력수업(창재)	문화예술교육학교-지역사회연계 시범사업(부평문화원)
3월		극장견학및공연관람1	음악극 신문 만들기		
4월	'또랑광대' 초청공연	극장견학및공연관람2	판소리의 이해와 감상		
5월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6월			대중음악 속의 '고향'	연극놀이를 통한 자기표현학습	
7월		극장견학및공연관람3	뮤지컬의 이해와 감상1		
8월	연극놀이 워크숍		여름방학(수행평가)		
9월			뮤지컬의 이해와감상2	모둠별 주제결정	뮤지컬 가수 초청특강
10월			가창과 악-음악극노래	모둠별 대본쓰기	밀양연극촌연극워크숍
11월		극장견학및공연관람4	수행평가 음악극만들기	모둠별연습	댄스클리닉 참여
12월		극장견학및공연관람5	극장견학및공연관람5		뮤지컬 댄스 지도
음악극 경연대회					
1월	자료정리보고서작성				

2. 세부 수업진행 내용

1) 음악극의 이해와 감상

표 69 수업내용

구분	시간	수업내용
음악극신문 만들기	2차시	•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문으로 재구성해 보며 이해의 폭을 넓힌다.
판소리	3차시	• 판소리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하기 • 판소리와 창극을 비교 감상하기 • 판소리 한대목 배우기
오페라	3차시	• 오페라 감상하며 구성 이해하기 • 아리아 배우기 • 리코더로 연주하기
뮤지컬	4차시	• 하나의 주제로 된 뮤지컬 감상하기 • 유명 뮤지컬 넘버 감상하기 • 뮤지컬 넘버 배우기

표 70 판소리 이해와 감상 수업내용

시간	구분	내용	
1주	판소리에 대하여	판소리의 유래, 구성요소, 주요작품 소개	영화<서편제>중 부녀상봉대목 감상
2주	판소리 감상 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심청가>중 뽕덕어멈행실 대목 감상	감상한 장면을 학습지에 그림으로 표현
3주	판소리와 창극 비교감상	<춘향가>주 암행어사 출도 대목 감상	판소리음반과 창극자료감상 후 학습지에 기록

표 71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수업내용

시간	구분	내용	
1주	오페라의 구성요소1	베르디와 알트로바토레 소개, 1막 감상하며 오페라의 구성 요소 이해	줄거리 소개와 공연실황 감상
2주	오페라의 구성요소2	2막감상하며 관현악, 중창, 합창, 독창의 쓰임새와 흐름 파악하기	공연실황감상
3주	오페라의 흐름 따라잡기	3막 감상 후(결말) 상상해보기	인상 깊었던 곡에 대해 느낌 정리하기

표 72 뮤지컬의 이해와 감상 수업내용

시간	구분	내용	
1주	뮤지컬의 구성요소1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작품 비교감상	'웨스트 사이드' 감상하며 뮤지컬의 구성요소 설명
2주	뮤지컬의 구성요소2	극의 흐름에 따른 다양한 음악적 표현 감상	'웨스트 사이드' 감상
3주	뮤지컬 비교감상	시대별로 다르게 표현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 다른 표현 '전문극단', '학생동아리'

2) 극장견학 및 공연관람

- ◇ 시기 - 4월, 5월, 7월, 10월 연간 4회
- ◇ 대상 - 3학년 전체
- ◇ 목표 - 공연의 리허설 과정과 무대견학
실제 뮤지컬 공연 관람
공연 관람자세 익히기
- ◇ 견학장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3) 전문가와 만나기1- 초청공연

- ◇ 시기 - 판소리수업이 끝난 후
- ◇ 대상 - 3학년 전체
- ◇ 장소 - 학교 강당
- ◇ 방법 - <도랑광대>를 초빙하여 창작판소리의 '스타크래프트'를 감상
- ◇ 목표 - 실제 공연체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판소리에 대한 인식을 전환

4) 전문가와 만나기2- 초청강연

- ◇ 시기 - 2학기 중 (10월중)
- ◇ 대상 - 3학년 전체
- ◇ 장소 - 학교 강당
- ◇ 방법 - 뮤지컬 전문가(배우, 연출자 등)를 학교에 초빙하여 특강 청취
- ◇ 목표 - 음악관련 직업 탐색의 기회

5) 학교 밖 문화예술체험하기

- ◇ 시기 - 10월8일~9일(1박2일)
- ◇ 대상 - 희망자 40명

- ◇ 장소 - 밀양예술촌
- ◇ 방법 - 연극촌을 직접 방문하여 무대세트 제작 장면 작업실 견학, 공연관람 후 연출가 배우와의 만남, 발성 및 연기 춤 맛보기
- ◇ 목표 - 공연의 전 과정을 캠프를 통해 체험

6) 창제시간과 만나기

창의적 재량활동 교사와 협력하여 자기 표현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연극놀이>를 진행한다.

창제시간에는 주로 대본작업 등을 하며 음악시간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7) 음악극 만들기

교육과정에서는 2학기 수행평가로 학급 전원이 3-4개의 모둠을 구성하여 15분 이내의 공연을 만들어 본다. 학년행사는 입시전형이 끝난 후 12월 중 ‘틈새기간’을 이용하여 희망자 중심으로 뮤지컬 공연대회를 개최한다.

3. 음악극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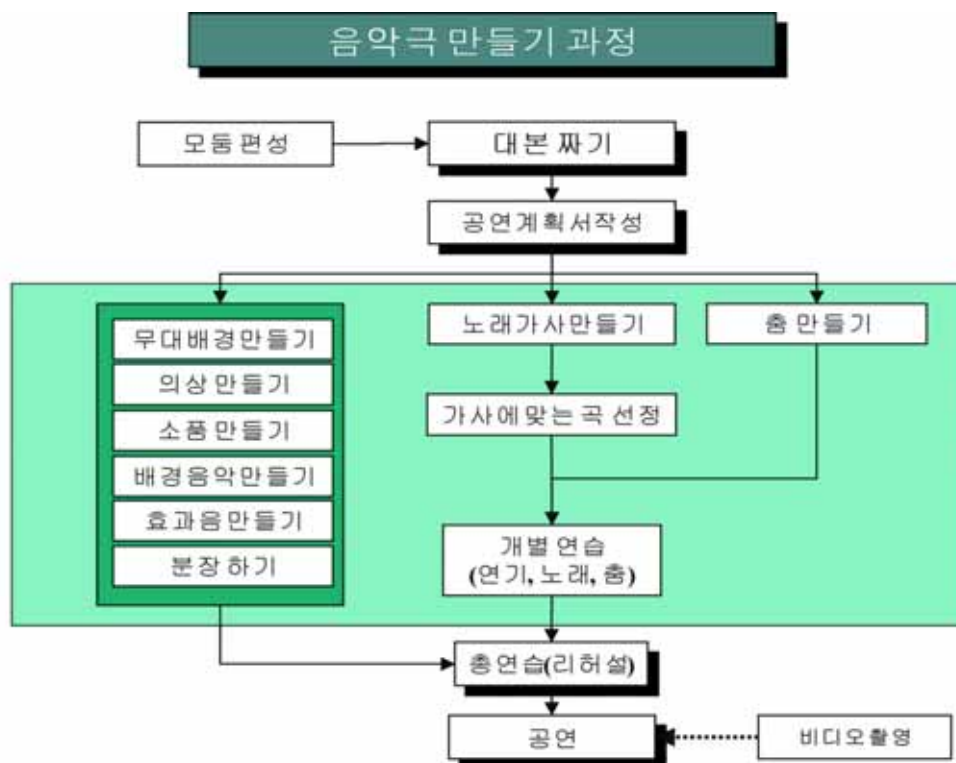


그림 65 음악극 만들기 과정

1) 경연대회준비- 축제체제로의 개편

경연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 별 대표작품을 선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수행평가로 공연했던 13개반 52작품 중 1작품을 선정하여 재구성하거나 보완하여 대표작품을 준비한다. 그리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팀을 구성한다. 경연대회를 위한 연습은 예선과 본선을 앞두고 1시간씩 전문연극강사의 지도를 받는 것으로 대신한다.

경연대회 준비에서 중요한 것은 홍보이다. 홍보를 위해서는 각 반에서 포스터를 제작한다. 그 외에도 걸개그림과 프로그램(리플렛)도 제작한다. 제작한 홍보물을 가지고 교육청, 신문사에 보도자료로 제공한다. 그 외에도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작업도 학생들이 스스로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연습과 홍보를 위한 작업과 더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공연장의 섭외이다. 학교의 시설로는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축제에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다시 한 번 자신의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공간적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부평 관내에 전교생이 관람할만한 규모와 음향설비가 갖춰진 공연장이 전무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주 성가대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교회 강당을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당일의 무대 진행은 총학생회가 담당하였다. 규모가 큰 만큼 객석의 좌석안내와 질서지도를 할 요원도 필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 3학년 선도부가 맡게 되었다.

2) 경연대회 개요

경연대회는 2005년 12월 27일에 개최되었다. 장소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주안장로교회 대성전(홀)이었다. 참여한 관객은 무려 총 2,500명에 이른다. 참여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평여중 전교생 1,500여명과 부원중학교 3학년 500여명, 부원여중 3학년 400여명, 학부모, 교사 100여명 등 본교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이웃 학교의 참여도도 좋았다.

본 경연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선과 본선을 거쳐야 했다. 먼저 예선에 참여한 팀은 부평여중 3학년 13학급의 대표 13팀이 출전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3팀 중 총 6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본선에 진출한 팀은 3학년 2반, 5반, 6반, 7반, 8반, 10반이었다.

그들이 만든 작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3 학생제작 작품소개

학년-반	제목	작품내용
3-2	‘꿈을 찾아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꿈을 찾아오라고 한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미래를 생각한다. 선교사가 되고 싶은 미연, 연기자가 꿈인 유련이 등등. 그들은 어떻게 꿈을 이루어 나갈까?
3-5	‘4인4색’	성적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와 관점, 다른 성격을 가진 각 4명의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해가며 겪는 갈등을 그린 이야기. 그들은 성적 때문에 서로 싫어하고 시기하게 되는데...
3-6	‘Queen’	부평여중 최고의 행사인 축제가 시작됐다. 그 중에서도 ‘퀸 오브 평순’은 최고의 퀸을 뽑는 행사이다. 3학년 6반 아이들도 역시 퀸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경쟁하는데...
3-7	‘진주목걸이’	건영이는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춘기 소녀이다. 건영이는 늘 엄마로부터 원래 받아야 할 양의 돈에 만원씩 붙여서 얻어내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아버지 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건영이는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는데...
3-8	‘외모 지상주의’	백마 탄 왕자님이 나오는 꿈을 꾸 미인. 허나 자신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왕자님은 자신에게서 떠나 버리고, 왕비는 구박하고, 일상으로 돌아 온 미인에게 못생긴 외모 때문에 돌아오는 것은 아유와 타박, 놀림들 뿐, 결국 미인은 절망하게 되고...
3-10	‘가족애’	고3인 주인공은 핸드폰이 없다. 그런 주인공의 심정을 모르는 듯 친구는 주인공의 속을 긁는다. 핸드폰을 사달라고 하지만 매번 안 된다고 하는 부모님. 결국 주인공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데...

3) 축제로서의 음악극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

먼저 본 음악극 경연대회를 평가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음악극 경연대회는 참여형 축제이다. 3학년 학생 전원이 수행평가부터, 예선과 본선 등의 전 과정에 동참하여 만든 축제(수행평가-예선-본선)이기 때문이다.

둘째 음악극 경연대회는 일체형 축제이다. 정규교육과정(음악, 창재, 3학년특색사업)과 연계, 연간준비가 이루어진 생활형 축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음악극 경연대회는 창의 표현형 축제이다. 학생 스스로 자기를 발견하고 표현하며, 숨겨진 끼를 발산하는 장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음악극 경연대회는 공동체형 축제이다. 마을교회가 공연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이웃학교가 관람을 오는 등 학생-학부모, 학교-지역사회가 연계되어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4. 전망과 과제

아직 첫 회밖에 거치지 않은 행사이지만, 학생들과 주변의 많은 관심과 기대에 힘입어 부평여자중학교에서는 매년 12월 정기행사로 추진하여 부평여중을 상징하는 행사로 정착시키기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운영 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관건이다. 좋은 프로그램, 비용, 학교행정 등 모든 면에서의 적절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 내에 녹아드는 축제 진행과정과 공연 공간이다. 공연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짓자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현황과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정규교육과정으로 기초과정을 준비하되, 마지막 1개월간의 음악극경연대회는 학교행사로서 분리하여 진행, 독립된 축제로서 정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4절 축제로 소통되는 학교와 지역사회¹³⁾

1. 안면 중학교 산길 축제

산길축제는 학생들과 학부모 혹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주어진 주제와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그 결과를 모아 축제로 발전시킨 사례였다.

처음은 국어와 미술교사가 함께 소규모 수업으로 시작했던 것에 지역사회가 동참하고, 교육청이 참여하면서 학교의 행사로 발전하였다. 주최는 학생회에서 했고, 비용은 4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다. 지역사회로는 안면청년회가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도왔고, 교과로는 과학, 국어, 학생부장 담당 교사, 그리고 동아리로는 풍물, 연극, 영상 동아리가 함께 했다.

1) 미술시간의 “학교길 그리기”

축제의 시작은 미술교과의 학교길 그리기라는 1시간짜리 간단한 수업에서 시작되었다. A4크기 재생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해서 그렸다. 그림은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또는 버스 터미널, 혹은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많이 가는 시장까지 가는 길을 비평을 곁들여 그리도록 했다. 비평의 기준은 좋아하는 곳, 자주 가는 곳, 싫어하는 곳, 무서운 곳, 고쳐져야 할 곳, 지켜져(보존되어)야 할 곳으로 나뉘 제시했고, 그중 적당한 것들을 그림에 덧붙이도록 했다. 그것은 학생들의 하루 중 오직 그들만의 공간인 학교에서 집 사이의 거리를 관찰해보는 수업이었다. 또한 그것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 무심결에 이뤄지는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비평의 계기이며 교사에게는 그들의 생활을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학교길이라는 학습과제를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 학생들의 진정한 욕망이 숨겨져 있으리라 추측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공간 즉 학교와 가정을 둘 다 벗어난 공간인 학교길은 어찌 보면 그들만의 가장 순수한 욕구가 꽃피는 공간일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비평함으로써 자신들의 일상을 읽어볼 수 있었고, 그것은 의외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은 그림을 통해서 상호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고, 서로의 감정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13) 안면중학교와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사례

그림들을 보면 그들의 생활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지만 무엇보다도 생략된 부분과 과장된 부분, 특별한 관심들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정서가 한눈에 드러난다. 그들이 그려내는 건물의 크기나 거리 등에서 하교후의 학생의 상황이 바로 드러나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감정과 정서가 어떠한지 한눈에 드러나 보인다.

그림들 속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을 찾을 수 있었고, 그곳은 본격적인 학습과제를 제시해 주었다. 이 학습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풍요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학생들의 그림에서 주로 비평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곳은, 산길 2002 PC방, 도서관, 학교, 보물상자, 터미널, 떡볶이집, 학교앞 슈퍼 등이었다. 그 중 산길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나타낸 곳이었다. 산길은 읍내로 가는 지름길(학교에서 읍내까지는 30분 가까이 걸어야 한다)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차길(차길엔 인도가 없다)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넓지 않은 산 고개 길이라는 데 남다름이 있었다. 그곳은 학생들의 감정이 가장 복잡한 곳이었다. 좋은 곳이기도 하고,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고쳐져야 하는 곳이기도 하며 또는 보존되어야 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고갯마루에 있는 무덤이나 산아랫마지에 있는 염소막과 작년까지 가끔 나타났다고 하는 변태아저씨의 이야기는 그것의 느낌을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산길에 대해 대체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만큼 그 길은 보기 드물게 사랑스러운 공간이었다. 학교 길에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지경이었다. 그 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직 학생들만의 전용공간이라는데 있었다. 그 길은 거의 일반인은 통행하지 않고 주로 학생들이 통학용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느 누구의 관심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었다. 그들만의 사랑스러운 공간 그러나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마저도 함부로 하여 그들 스스로 버린 쓰레기로 더럽혀져 있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길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안하였고,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공간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는 견해에 동의하였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대부분 안면중학교 졸업생인 학부모나 지역민들도 그 길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2) 교과 통합수업과 축제

이어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관련교과 교사들과 또 지역주민들과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주민들은 산길을 좀더 추억이 깃든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고, 관련교과 교사들도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 와중에서 국어교사의 제안에 의해 "축제"안이 나왔다. 국어, 미술, 과학과가 일단 수업에서 공동 단원을 설정하기로 했다. 국어과는 산길과 숲에 대한 느낌과 비평을 좀더 구체화하기로 했고, 과학과는 산길주변의

식물들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내는 수업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술과는 산길 그리기를 통해 그에 대한 스스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좀더 바람직한 산길의 모습을 제안하도록 했다. 또한 연극동아리는 산길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고 영상반은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기로 했다. ‘축제’는 자연스레 그러한 수업의 결과들을 모아 가능하다는 생각이었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가세했다. 주민들은 일단 축제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품과 산 속이라는 환경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한 그들은 무언가 자신들의 작업이 결들여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장승이나 산 길 지킴이 같은 것을 세우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해온 상태이다. 축제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구체화되었다.

3) 교육청의 지원

교육청 지원의 필요성은 본교 학생부장 선생님에 의해 제기되었다. 산길에서의 축제 계획에서 드러난 문제 중의 하나는 전기였다. 산 속이라 전신주가 없어 완전히 전기를 외부에서 끌어들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간단하나마 무대의 설치 등 부대시설이 필요했지만 예산은 절대 부족하였다. 주민들의 도움으로도 부족했고, 학교에는 예산이 없었다. 그 와중에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는 조건으로 태안군의 연례행사로 열리던 거리문화축제의 예산 일부를 쓸 수 있게 되었다. 그 조건은 거리문화 축제가 인근학교와 연합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면중학교만의 행사가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에서였다.

이에 행사의 본래 취지와 모양에 약간의 변질이 있기는 하지만, 경비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행사를 인근 학교와 공유한다는 것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해 행사는 추진되었고, 축제의 공식 명칭은 당초의 “산속축제” 또는 “산길축제”에서 “안면지역연합 학생거리문화 축제-산속축제”로 바뀌게 되었다.

4) 축제 기획안

표 74 축제 기획안

구분		내용
명칭		“안면지역연합 학생거리문화 축제 - 산속축제”
주최		안면지역 중고등학교 학생회
후원		태안반도안면청년회
일시		2002년 7월 16일 (화) 17:00~20:00 (예정)
장소		안면중학교 ~ 승언리 사이 산길
대상		지역 주민, 학생 및 관광객
행사일정	1부 : 17:00~19:00	① 이름나무, 벤치, 산길지킴이 세우기 또는 제막식(풍물과 함께) ② 쓰레기 줍기와 조형물 세우기 ③ 전시와 전시관람
	2부 : 19:00~20:30	① 개막 풍물공연 ② 초대인사와 내빈소개

구분	내용
	③ 시상식 - 산길 이름, 전시작품과 각종 공모 결과에 따른 시상 ④ 시낭송 ⑤ 노래 또는 악기연주 ⑥ 학생소리 퍼포먼스 발표 ⑦ 서승희씨 소리퍼포먼스 찬조공연 ⑧ 폐회

2.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학교축제

1) 학생과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

의정부 송현고등학교 학교축제의 사례는 기존 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던 학예회 수준의 학교축제 형태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학교축제가 진화하는 과정을 제시하기 위한 사례이다. 몇몇의 동아리 발표를 중심으로 한 일방적 소통에서 전 학급이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들의 주체적 참여의 근거는 학교축제 기획단을 조직할 수 있었던 계기이며, 본 사례에서는 주체적인 학교축제를 가능하게 했던 축제 기획단의 기획교육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학교축제가 가질 수 있는 자발적 문화생산자의 양성을 위해서는 그들을 동기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화교육, 축제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의정부 송현고등학교의 학교공간 꾸미기의 사례는 기존 학교 축제의 형식에서 벗어나 하루 동안 즐길 수 있는 이벤트적 형식에 일상적인 활동을 연결하는 작은 과정들이 학교축제의 형식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사례이다.

아래 제시되는 사례는 서울시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서 실시된 ‘문화로 놀이짱’의 프로그램 중 학교와 연결한 프로그램이며, 본 사례는 과정으로서의 학교축제, 그리고 작은 것에서 출발할 수 있는 학교축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2) 축제의 내용 및 진행

놀이짱 기획팀이 생각하는 디자인이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무언가를 설계, 기획, 구상 하는 것이다. 학교생활공간을 디자인하는 것 또한 단순히 멋지고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닌 나의 주변 환경과 공간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을 발견해 내고 그것을 좀 더 나은 무언가로 바꾸어 나가는 긍정적인 작업이라 정의한다.

일상예술 창작시장 프리마켓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교실환경 꾸미기 워크숍’과 ‘학교축제 무대공간 꾸미기 작업’을 진행한다. 아이들의 환경미화 시간을 좀더 아이들 중심으로 진행 해 보고자 시작한 디자인 워크숍은 실제 학교담당자와의 미팅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내며 더욱 풍성해 진다.

디자인 워크숍은 크게 두 가지 구성으로 진행되는 데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교실 공간을 꾸며

보는 “교실 공간 꾸미기 디자인 워크숍”과 다른 하나는 가을 축제 무대공간을 구상하고 꾸며보는 “축제 공간 꾸미기 디자인 워크숍”이다.

교실 공간 꾸미기 워크숍에서의 주안점은 해마다 주인이 바뀌는 교실이기에 반영구적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이다. 또 교실 안에서도 공적 공간(칠판, 게시판, 시청각기자재, 벽 등)과 사적 공간(사물함, 책상)을 인식하고,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원하는 방식으로 꾸밀 것인가였다. 작가들이 아이들과 사전 워크숍형식의 기획회의를 진행하고 교실의 컨셉이 될 수 있는 색과 꾸밀 공간들을 결정한 후 역할 분담을 한다. 이 후 반 전체 인원이 작가들과 기획팀과 함께 꾸미기 작업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축제 공간 꾸미기 워크숍은 가을 축제기간 무대 공간을 꾸미는 작업을 기획한다.

만화반 친구들과 함께 축제가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고, 전교생이 함께 만드는 무대 걸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다. 대형 천에 도안을 하고 이것을 반 개수에 맞게 자른 후 반에 나눠준다. 하루 날을 잡아 반별로 도안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의 재료를 활용하여 천을 꾸민 다음, 다시 만화반 친구들이 천을 이어 도안의 아웃라인을 잡아 줌으로써 작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이다.

사전 설문작업을 통하여 아이들의 교실환경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였으며, 워크숍 전 아이들과 작업내용을 공유하고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의 사례를 볼 수 있도록 작가들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였다.(creativeroom.cyworld.com) 이 후 교실공간의 변화된 모습 및 아이들의 작업모습을 사진으로 올려놓았다.

표 75 사전기획서

구분	내용	
주제	일상과 예술이 만나는 예술시장 프리마켓 작가들과 함께하는 문화로 놀이짱 “학교 생활공간 꾸미기 디자인 워크숍”	
목표	목 표	프리마켓 작가들과 워크숍을 통해 학교 공간 꾸미기를 기획하여 학교 안 생활공간을 예술적으로 장식
	기대효과	쉽고 재미있는 미술적인 창작활동을 통해 일상생활을 디자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생활공간을 좀더 특별한 공간으로 구성해 보는 계기 마련
개요	프로그램	학교 생활공간 꾸미기 디자인 워크숍
	주 최	청소년 위원회, 서울특별시
	주 관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문화로 놀이짱 기획단
	참가대상	수도권 내 중·고등학교 환경미화, 학교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
	일 시	2005년 9월 ~11월 학교와 협의 후 결정
	장 소	신청 학교에서 진행
소개	문화로 놀이짱	•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문화존의 신촌, 홍대지구 프로그램 • 청소년들에게 신촌, 홍대 앞의 다양한 문화적 공간들을 소개하고 신촌, 홍대의 청년 문화와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 창작, 체험, 관람활동을 하는 청소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구분	내용	
	프리마켓	• 프리마켓은 거리와 공원 등 일상의 열린 공간에서 다양한 창작자들과 시민들이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대안적인 자생예술시장이자 축제 • 일상과 예술의 거리, 작가와 시민의 벽이 없고, 작가들은 자신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가지고 나와 선보이며 시민들이나 다른 작가와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성장. 시민들은 작가와 작품을 만나 자연스럽게 다양한 창작세계를 체험하고 즐기며, 스스로 작가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와 힘을 얻어 누구나 자신의 개성이 담긴 창작품을 가지고 프리마켓에 참여해 작가로 활동 할 수 있음 • 우리가 만나는 작품은 일반적인 미술작품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들로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작품이자 물건이라는 인식 함양
진행방식	진행내용	• 교실 공간 디자인 (사물함 꾸미기, 창문, 커튼, 게시판 등) • 체육복, 실내화 디자인 • 학교 축제 꾸미기 (걸개 만들기, 축제 공간 꾸미기 등) • 총 2회 진행 - 1회- 공간구성 아이디어 회의 (프리마켓 작가와 함께 공간 구성, 재료, 역할 분담 등을 워크숍을 통해 진행)
	신청방식	• 문화로 놀이짱 담당자 ○○○ • 참가비 무료

표 76 강의계획서 <교실꾸미기 워크숍>

구분	내용	
소개	반영구적 소재인 시트지를 활용하여 공적 공간(게시판, 교실, 내부 등), 사적 공간(책상, 사물함)을 작가와 함께 구상하고 꾸며보는 시간	
기대효과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한 관찰과 이해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며, 생활공간을 기발한 아이디어로 꾸며보는 적극적 창작 태도를 함양	
진행개요	진행작가	디자인 스파르방
	일 시	2005년 10월 14,15,18,19일
	장 소	개웅중학교 2학년 9반, 11반
내용	진행내용	• 1차 워크숍 - 문화로 놀이짱, 프리마켓 소개, 작가소개, 교실꾸미기 워크숍 내용소개, 소재 제안, 교실 컬러 및 디자인 대상 선정, 디자인 구상 • 2차 워크숍 - 역할분담, 교실꾸미기, 사전설문지, 학교생활공간꾸미기 디자인 워크숍, 설문조사
	진행내용	※ 조사에 앞서 교실꾸미기 작업은 공간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닌 공간과 사물을 작은 아이디어들로 재미나고 보기 좋게 꾸며보는 작업입니다. 작가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손수 우리의 교실을 꾸며 본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세요. - 우리 교실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우리 반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우리 교실 공간 혹은 사물 중 가장 불편한 곳은 어디입니까? - 교실 공간 중 꾸며 보고 싶은 공간 혹은 사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교실 꾸미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야기 해 봅시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실꾸미기 작업을 위해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엿보고 작가들과 만날 수 있는 싸이월드 클럽을 만들었으니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평가와 시사점

이 점에서 제시한 두 개의 축제는 소박한 이유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학생, 교사, 지역민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축제로 표현된 사례이다.

축제는 반드시 대단히 특별한 주제나 소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두개의 축제는 우리 주변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모든 이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장이 되고 이것이 축제로 재창조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5

제 5 장 학교축제 발전방안 및 지원체계

5

제 5 장 학교축제 발전방안 및 지원체계

제1절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2005년 12월 29일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하여 2006년 6월 20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법의 내용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의 수혜대상은 크게 학교와 지역사회로 구분되며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교육계의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던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으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사업을 주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 놓았다. 이에 따라 학교와 교사,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졌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주체들을 함께 묶어내고 지원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여태까지 학교축제가 단지 학교 안의 행사로 끝나고 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면 향후 학교축제는 지역 사회 속에서 함께 자리 잡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지역주민 및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의무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과는 다른 조직체계와 사업내용, 이를 위한 예산확보 등이 뒤따라 주어야 한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근거가 될 조례제정이나 행정체계 개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공무원과 학교교사, 지역 문예일꾼이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이 가능해지고, 확보된 예산과 시설을 이용해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 학교교육 시스템 개선

입시경쟁교육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학교교육은 대학입시체제로 고착화 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입시교과에 비해 당연히 소홀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으

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축제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추진되더라도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 학교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던 많은 교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벽은 재론할 필요도 없이 입시교육 시스템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학교축제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삼기에는 본 연구과제의 성격과 연구범위, 그리고 실효성으로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입시경쟁교육과 사교육 광풍의 근원인 학벌주의와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축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서 학교운영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교축제는 학교교육 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역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학교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의지 없이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1) 학교의 민주적 소통구조 확보와 축제의 학교 교육력 평가 요소 반영

학교 교원의 구성은 교장, 교감, 보직교사(부장), 평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의 운영권이 학교장 중심으로 되어 있어 학교장의 인식정도에 따라 학교축제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축제에 열정이 있는 교사와 학교장이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야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축제를 위축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학교장 위주의 독점적 학교운영 방식이 아닌 학교주체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운영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교장(교감 포함) 자격연수에서 축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다른 한편으로 학교축제 활성화 사업이 학교 교육력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최소한 관리자의 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성의한 태도는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학교축제가 승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열심히 해도 축제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수에 의해서 공연히 불이익이나 당할 수 있다는 따위의 인식으로는 절대로 축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2) 교과교육 위주의 학교교육과정 개선

학교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성격과 목표, 계획과 내용, 평가, 행사활동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매뉴얼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무척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오랫동안 교과교육 일변도의 교육활동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는 왜곡된 학력관에 의한 입시경쟁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인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학생자치활동, 각종 행사활동 등은 학교교육의 주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학교축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특히 학교축제의 근거가 되는 행사활동은 원칙상 특별활동 교육과정 속의 다섯 영역(자치, 계발, 봉사, 적응, 행사활동) 중 하나로 규정되어 정규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교과 운영을 대신하여 특별히 기획,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동떨어진 학사일정으로 잡히는 경

우가 많다¹⁴⁾. 다시 말해서 교과교육은 입시준비를 위한 주입식 지식교육으로 이행되고 학교축제는 교육과정과 동떨어져서 지친 학생들에게 잠시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는 식으로 운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축제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렸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학교축제를 단지 행사로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활동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교육과 특별활동, 학생자치활동, 행사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이의 중요한 해법으로서 학교 운영시스템과 학교 밖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3) 행정체계 개편 : 교육청과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담당 전담부서 배치

[그림 66]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구도를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 등 모두 3개의 국을 두어 교육행정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평생교육국에는 직업진로교육과, 학교체육보건과, 평생학습진흥과, 과학교육활성화지원단 등의 부서가 있다¹⁵⁾. [그림 67]의 서울 남부교육청 기구도에서 보듯이 서울의 지역교육청은 학무국 밑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 중등교육과에는 중등교육 전반에 대한 업무와 별도로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평생교육체육과에서는 평생교육행정, 평생교육지도, 체육청소년, 학교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¹⁶⁾.

어느 때보다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 체계 속에서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망이 구축된다는 것은 담당인력 배치와 별도의 예산편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14) 200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세훈 외

15) <http://www.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구표

16) <http://www.nambuedu.seoul.kr/>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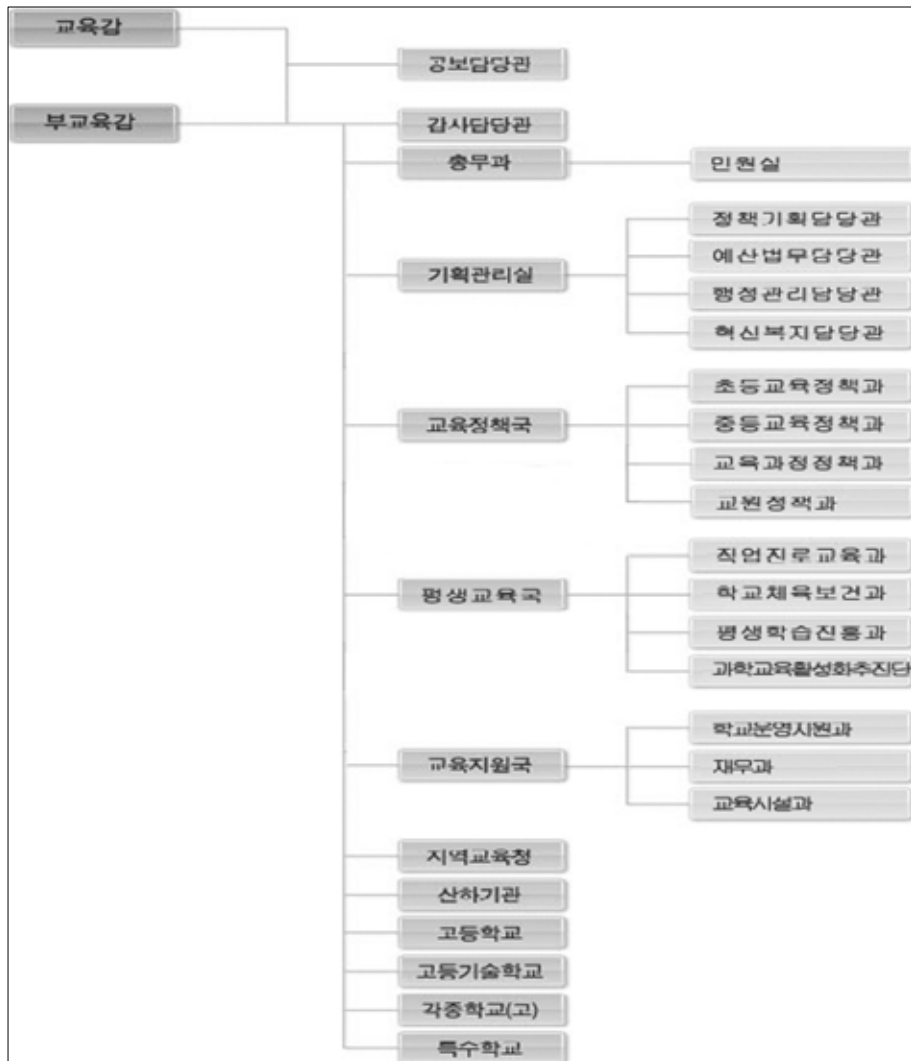


그림 66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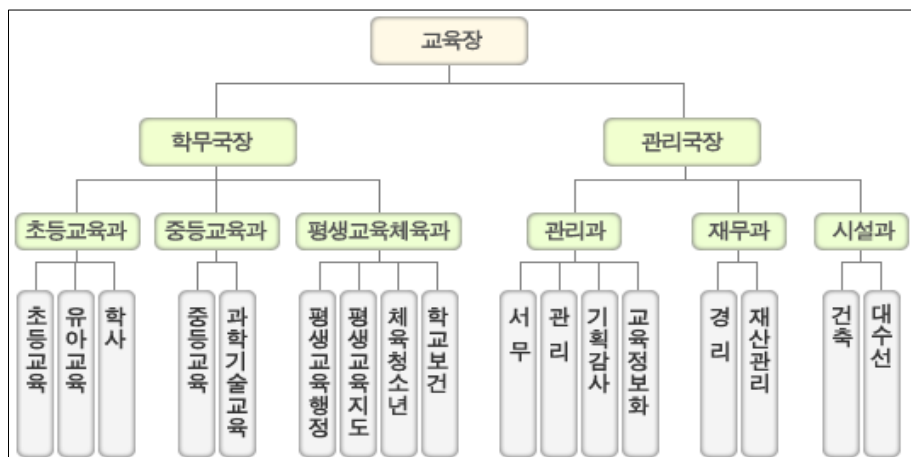


그림 67 서울시 남부교육청 기구도

이와 같은 문제는 학교교육 체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조직 시스템이 교육활동보다는 행정업무 편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는 교무기획부, 학생생활부, 연구부, 서무실 등의 부서체계에서 학교규모와 특성에 따라 학년부, 교육정보부, 진로상담부, 체육부, 학생복지부, 특별활동부, 언어교육부, 인문사회교육부 등과 같은 편제로 행정업무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부서편성에서 학교축제나 학생들의 특별활동, 학생회 등은 주로 학생부에서 주관하거나 특별활동부 등에서 주관한다. 그러나 각 부서별 업무분담의 성격이나 실제 내용 등을 볼 때 학교축제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여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각 부서의 업무분장이 현실적으로 교육활동 보다는 공문서 등의 서류처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현실적으로 학교업무가 교과수업과 행정업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영역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클럽활동 부서 배치 및 평가업무 정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지와 별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수년간 학교축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서울 경인중학교의 행정체계는 타 학교에서 볼 수 없는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업무분장이 있어 참고할 만하다. 경인중학교는 1999년부터 해마다 비교적 큰 규모로 축제를 개최해 왔는데 이를 위해 특별활동부에 축제를 전담하는 행사계가 배치되어 있으며 클럽활동계와 방과후교육계, 학생자치계 1과 학생자치계 2 등이 서로 협력해서 축제를 준비한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학교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행정체계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담당 교사와 학생회 담당교사 및 클럽활동 담당교사, 방과후 학교 담당 교사등과 같이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축제 예산의 확보 지원 및 시설/기자재 확보

1) 학급수와 학교시설, 급별 기준 등을 고려한 목적사업비 편성

아무리 축제추진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보려 해도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축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은 예산 확보와 예산지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축제를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교는 축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인색한 반면(표 78)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9).

표 78 학교축제예산 충분도 조사표

			충분한 편이다	약간 부족하다	대단히 부족하다	무응답	계
		사례수	%	%	%	%	%
[전 체]		(480)	12.9	59.2	25.2	2.7	100.0
학교 소재지	서울시	(172)	15.7	67.4	13.4	3.5	100.0
	인천시	(76)	7.9	60.5	27.6	3.9	100.0
	경기도	(232)	12.5	52.6	33.2	1.7	100.0

표 79 소속 학교 축제 만족도 조사표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그저 그렇다	불만족스럽다	기타	무응답	계
		사례수	%	%	%	%	%	%	%
[전 체]		(480)	9.2	58.3	19.0	2.1	3.8	7.7	100.0
학교 소재지	서울시	(172)	12.8	62.8	12.8	1.7	2.3	7.6	100.0
	인천시	(76)	7.9	65.8	25.0	0.0	0.0	1.3	100.0
	경기도	(232)	6.9	52.6	21.6	3.0	6.0	9.9	100.0

표 80 학교축제예산 규모 조사표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4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모름/무응답	학교축제별 예산 (평균·만원)
		사례수	%	%	%	%	%	%	%	Mean
[전 체]		(480)	11.7	33.5	23.5	15.6	8.1	9.2	6.0	308.1
학교 소재지	서울시	(172)	16.9	39.0	26.2	14.5	5.8	10.5	5.8	298.2
	인천시	(76)	6.6	26.3	21.1	28.9	9.2	3.9	5.3	303.8
	경기도	(232)	9.5	31.9	22.4	12.1	9.5	9.9	6.5	316.9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축제 예산규모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축제의 결과에 만족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척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해본다면 예산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을 축제 담당교사의 헌신적인 열정과 노동력으로 해결했다는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교사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추진되기 어려운 행사이기는 하나 학교축제가 모든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학교축제 행사 자체의 예산뿐만 아니라 축제 추진과정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 역시 행사로서의 축제에 소요되는 예산 이상으로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한다. 학생회 자치활동을 통한 축제에 대한 교육과 협의 비용은 기본이고 상설 동아리 활동 육성 및 외부 강사와의 협력에 필요한 비용, 시설 및 기자재 구입 및 이용에 따른 비용 등 그 범위는 참으로 많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학교축제 예산의 적정규모

에 대해 파악해보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480여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 축제 예산으로 평균 3,081,000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3,169,000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의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80). 물론 학교의 학급 수 규모와 학교의 연간 예산 규모 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단순히 비교 평균 수치만으로 계산해본다면 수도권 중학교의 적절한 축제예산 규모는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표 78]의 통계가 말해주듯 축제를 담당했던 교사의 84.5%는 축제 예산규모가 약간 부족하거나 대단히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편성 규모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84.5%의 교사라고 한다면 축제를 담당하는 교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학교축제는 예산규모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축제를 오랫동안 선도적으로 잘 운영해온 학교의 축제예산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표 81 2005년도 서울 경인중학교 축제 예산 (단위: 원)

항목	산출근거	계
1. 운영비	• 협의회비 20명×4회×2,000원(학생회 예산) • 30명(학부모, 학생, 교사 등)×1회×15,000원 • 축제기간 지도비용 및 운영에 따른 기타 경비	800,000
2. 동아리 발표	• 공연작품지원비 6개팀(연극, 코스튬, 무용 등)×50,000원 • 연극작품 및 상설 동아리 지원비 400,000원 • 15개 동아리 연합×20,000원	1,000,000
3. 영역별 경연대회	• 예능 경연대회(음악, 무용, 댄스, 유머극, 미술 등) • 학생회 캐릭터 및 기타 경연대회	220,000
4. 특별 이벤트	• 선발된 6학급×50,000원 • 각종 놀이 준비물품 및 상품 • 알뜰장터(사회교육부), 먹거리 장터(상담부) • 페이스 페인팅, 영화상영 등	900,000
5. 벽오동의 밤	• 앰프, 스피커, 마이크, 오디오, 라인, 믹서 등 • 24평무대 및 철골구조물 • 조명기기 및 철골구조물+발전차 • 교사노래모임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 50명(관악대 40명+모듬북 5명+사물놀이 5명)×6,000원 • 문화상품권 20매×5,000	3,200,000
5. 홍보비	• 현수막 2매(1m × 9m)×40,000원 • 팜플렛(안내장) 2,500권×100원=250,000원 • 입장권 2,000매(학교인쇄) • 포스터 4절지 100매=170,000(경희인쇄소)	500,000
6. 기타	• 의자임대 및 좌석배치 / 피아노 운반 • 예비비	880,000
총계		7,500,000

위 [표 81]은 2005년도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의 경인중학교 축제 예산이다. 예산 지출항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종합공연 성격의 ‘벽오동의 밤’으로서 대부분 무대설치 및 조명, 음향 등 총 320만원을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동아리 활동 및 학급별 이벤트 등에는 200만원 남짓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운영비 및 경연대회, 홍보비 등을 합쳐서 모두 7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경인중학교의 경우는 학교 내에 강당과 같은 공연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대설치 등 시설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래의 [표 82]은 2005년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의 상경중학교 축제 예산으로서 이 학교는 학교에 전교생 수용이 가능한 강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82 2005년도 서울 상경중학교 축제 예산 (단위: 원)

분야	지출액	지출내역
전시마당	1,277,500	전시장 설치비 757,500 아크릴 명패 6,500원×20개=130,000 액자비 70,000원 + 소모품비 320,000
참여마당	400,000	재료비 및 강사비 4종목×100,000=400,000
놀이마당	627,500	소모품비 165,000 구매권 200원×2,000명=400,000 학부모 진행 도우미 식대 25명×2,500=62,500
종합공연 및 대동제	400,000	찬조출연료 50,000 / 불글씨 100,000 형광팔찌 250,000
떨린 행사	136,000	작은 음악회 기념품 50,000 상경 콘테스트 상품비 50,000 축제 만화 그리기 대회 상품 26,000 축제 사진 콘테스트 상품비 10,000
경품비	100,000	5모듬×20,000=100,000
행사장 설치비	1,640,000	현수막 45,000 + 걸개그림 355,000 조명 및 음향 770,000 풍선 장식 100,000 + 꽃다발 40,000 체육관 도우미 식비 및 간식 130,000 각종 소모품 200,000
진행경비	630,000	놀이마당 진행도우미 간식비 140명×1,000=140,000 학생준비위원 식대 30명×4,000×2회=240,000 교직원 전체 평가회 50×4,000=200,000 기타 50,000
협의회비	410,000	교사준비위원 기획 협의회비 10명×15,000=150,000 학생준비위원 평가 협의회비 19명×5,000=95,000 교사준비위원 평가 협의회비 11명×15,000=165,000
기타	975,000	초청장 인쇄비 300,000 내빈 기념품 1,500×250=375,000 행사진행 도우미 조끼 130장×2,000=260,000 개막식장 준비 400,000
	6,596,000	

상경중학교는 경인중학교에 비해 예산지출이 약 100만원 정도나 적지만 강당이 있기 때문에 행사장 설치비에서 무려 200만원 가까이 예산절감을 하고 있다. 대신 전시마당 및 참여마당과 놀이마당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학교 축제에서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학교의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650~750만원 정도가 학교축제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이라 볼 수 있다. 다만, 학교의 학급수와 강당 확보여부와 같은 시설규모, 지역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준안이 마련될 수 있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에 힘입어 학교축제를 보다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 종합적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상계제일중학교의 경우 올해로 4년째 교육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축제를 추진해오고 있는데 학교예산과 별도로 축제 행사 예산이 1,000만원을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상주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복지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동아리 활동, 상담활동, 자치활동,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교육을 뛰어넘는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축제에 있어서 적정 예산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1999년부터 시행했던 목적성 경비로서의 특별활동 활성화 사업예산 편성 지침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¹⁷⁾. 당시에 유인종 교육감은 서울 학생 동아리 한마당을 한겨레신문사와 서울랜드 등과 함께 추진하면서 학교에 특별활동 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그 결과 서울의 학교에는 학생의 특별활동을 전담하는 행정부서로서 ‘특별활동부’가 생겨났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실 2000년도 이전에 중학교에서의 축제행사라는 명칭은 상당히 생소한 것이었고 축제는 고등학교에서나 하는 것으로 치부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CA 전시회라 해서 학생들의 미술작품이나 공예작품을 전시해서 학급별로 줄맞추어서 시간대별로 관람하는 정도였는데 어쨌든 유인종 교육감의 학교 특별활동 활성화 장려정책은 중학교에서 공연형태의 축제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학교 축제 활성화로서의 유효한 지원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며 그 첫 번째 선결과제는 목적성 경비로서의 학교축제 활성화 예산을 확보해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2) 축제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방안

학교축제를 기획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확보 못지않게 시설 및 기자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경인중학교의 예처럼 학교 내에 강당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운동장에 무대를 설치하거나 외부의 공연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공연시설을 확보

17) 1999년 이후 서울시 관내 학교에 목적성 경비로 지정해서 특별활동 활성화 예산으로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하는 것이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이동 무대차를 들 수 있다. 대형트럭을 개조해서 무대와 조명, 음향장비 등을 구비해서 이동 무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상당수의 학교에서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그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000명이 넘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하기에는 무대규모나 음향장비 등이 충분하지는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개방형 축제를 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외부 업자를 통해 무대와 음향시스템을 설치하게 된다.

야간에 공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명시스템 및 발전차까지 이용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꼭 공연에 필요한 무대시설이 아니더라도 소요되는 시설 및 기자재 역시 만만치 않다. 요즘은 멀티미디어 시대라 해서 영상제작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가 크며 문화예술분야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이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웬만한 학교가 아니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연극이나 뮤지컬, 분장연기(코스튬플레이), 댄스 등에 필요한 의상이나 소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표 83]에서 보여주듯이 수도권 지역의 축제담당 교사 480명이 응답한 결과를 보더라도 학교축제 예산에서 기자재 및 시설비와 재료 및 운영비에 각각 68.5%와 63.5%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축제를 몇 년간 계속해본 교사라면 이러한 실태가 매년 반복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매 번 축제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 그리고 자질구레한 재료 등을 어떻게 하면 무료 또는 싼 비용으로 빌릴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축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재료 등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장기적으로는 학교공간에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을 세우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 강서구의 공향중학교나 서울 노원구의 상경중학교의 예처럼 학교부지에 문화공간을 만들고 민간이 위탁 경영하게 하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재정보조에 보탬이 되고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서도 활용할 수 있어 학교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표 83 축제예산 항목별 지출비율 비교표 / 복수응답

			기자재 및 시설비	기획가 섭외비	전문 연예인 섭외비	동아리 활동비	재료 및 운영비	주변 문화 기반시설 사용료	기타	무응답
		사례수	%	%	%	%	%	%	%	%
[전 체]		(480)	68.8	7.5	5.2	19.2	63.8	16.3	1.9	1.3
학교 소재지	서울시	(172)	61.0	4.7	4.1	25.6	66.3	19.2	2.3	1.7
	인천시	(76)	68.4	5.3	1.3	25.0	60.5	18.4	0.0	1.3
	경기도	(232)	74.6	10.3	7.3	12.5	62.9	13.4	2.2	0.9

3. 학교 평가에서의 학교축제 및 특별활동 운영 우수학교 인센티브 부여

대체적으로 학교장 및 교감의 경우 학교축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축제가 의미 있고 내용 있게 치러지기 보다는 조용하고 별 탈 없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축제는 내용을 만들어 가는 과정보다도 결제 과정에서의 갈등이 더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은 대체적으로는 사립학교 보다는 공립학교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그 학교의 전통이나 건학이념, 그리고 학교의 이미지 등에 대한 표현의 장으로 학교축제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공립학교보다는 축제를 통한 학교문화가 좀 더 잘 정돈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가 축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크게 두 가지로 보여 지는데 하나는 교사의 정기전보 시스템으로 인해 소속 학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공립학교 중심의 학교평가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쉽게 말해서 학교축제는 학교평가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축제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면학분위기 저해 및 생활지도 상의 문제, 안전사고, 민원제기, 복잡한 업무 등으로 오히려 잘해봤자 본전밖에 안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학교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학교장이나 교감으로서는 축제가 달가울 리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학교축제를 비롯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성과를 학교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가령 1년 단위의 학교운영계획을 통해 축제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평가해서 예산을 증액 한다던가 학교장 및 교감의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던가 해서 어떻게 하든 결과적으로 학교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적어도 학교축제에 대한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제2절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1. 학교축제 교육과정 형성의 의미와 가치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Curriculum’의 어원은 말(馬)이 달려야 할 과정 즉 경주로를 의미하는 라틴어 ‘Currere’이다. 말이 경주로를 달릴 때 달리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과제나 장애물을 넘어 도달해야 할 목표를 향하는 것처럼 교육과정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고 규정한 일종의 교육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수준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에 관계된 정책결정, 창안, 계획, 설계, 개발, 채택, 시행, 비판, 정당화, 질 관리, 평가 등의 모든 활동이 교육과정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변천되어 왔다. 교과중심교육과정은 각 교과에 자체의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도 체계적으로 전개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학교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의 경험’, 즉 사회적 행동, 조작적 행동, 탐구실험적 행동, 예능발표적 행동을 중심으로 하여 말하기, 듣기, 발견하기, 창작하기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학생의 흥미와 필요를 토대로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한다.

학문중심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각 학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일반적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면 학습의 진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학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학문의 구조와 기본요소를 중요시한다.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학교가 개인에게 만족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기본 가정 아래 학교교육은 학습자가 하나의 전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험을 학습자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균형 있는 전인적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에이스너는 그의 저서에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학생의 사고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학생들이 가져야하는 학습의 기회를 규정하며 지적인 문화에 학생들이 접하도록 한다. 우리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은 사실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하나의 프로그램인 것이다.”(Eisner, 1999)¹⁸⁾라고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2002년부터 중학교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나 교육청으로부터 주어진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가 학교의 여건과 학교교육공동체의 바람을 토대로 학교장의 경영의지, 학교의 교풍 등 학교문화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융통성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인 10교과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량활동은 선택교과 재량활동과 교과의 심화보충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활동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의 5영역으로 구성되고, 학교가 영역 간 활동내용과 시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은 우선 새 학년의 달력을 놓고 입학부터 졸업까지 달력속의 휴업일을 제외한 공란들에 학교의 다양한 행사들을 조각을 끼워 맞추듯 배치하는 퍼즐게임 같은 작업이다. 이 게임의 규칙은 우선 법정 기준이 되는 최소 수업일수와 최소 수업시수를 꼭 지켜야 한다는 점과 학교 교육력 향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와 공급자인 교사가 균형 있는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 실천을 위한 상세계획을 통해 학교예산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학교 축제는 교과학습을 기본으로 하고, 집중이수 등 유연한 편성과 운영이 가능한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영역을 구조적으로 설계하여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교과영역과 연계해

18) 엘리엇 아이즈너 저, 이해명 역, 『교육적 상상력』, 단국대출판부, 1999

서 축제적 성격을 갖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학의 달과 연계한 과학축제, 독서의 달과 연계한 독서축제, 교내미술실기대회, 교내합창대회, 체육대회, 통일축제, 체험수학한마당, 영어존극공연 등을 들 수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과 영역에서는 아나바다 장터 등 환경축제,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한 성문화축제를, 특별활동 영역에서는 계발활동과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을 연계한 다양한 전시, 공연 등의 발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학교축제를 이루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배치하여 편성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한 축으로 축제가 자리 잡거나,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성취결과 발표의 장으로 축제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성장세대인 학생들의 정신적 능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중요한 문화적 자원을 경험하고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축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다양한 영역의 문해형식(forms of Literacy)이 의도적인 교육활동과 비의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발달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므로 교육과정의 각 부분들이 학교교육공동체의 관심을 모으고, 학습의 밀도를 높여 학교 교육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위계적으로 조직되고, 목표 지향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학교 축제의 교육적 효과 중 가장 큰 것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학교 축제의 큰 축을 이루는 예술교육에 대하여 한명희는 “예술적인 인식, 예술적인 ‘앎’이란 단순히 서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아는 것이며,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아는 것이다. 서술이나 개념, 이론 분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술 특유의 형식, 즉 다른 형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감정이입적 지식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서는 인간의식을 확대시키고, 취향을 세련시키며, 인간 행복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한명희, 2002: 104)¹⁹⁾고 말하였다. 학교 축제는 학생들의 자발성과 신명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축제과정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여 참여한 축제의 다양한 경험들이 유의미한 체험으로 내재화하면서 새롭게 성장하게 된다.

2. 특별활동 교육과정의 보완

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한다. 국가 교육과정은 공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규정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지만 교과 교육과정 이외의 특별활동 교육과정은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애매해서 입시경쟁 체제의 한국사회에서의 특별활동은 결과적으로 허약한 구조와 내용을 갖게 된다.

현재 7차 교육과정 상의 특별활동은 크게 자치활동, 계발활동, 적응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축제는 소풍, 수련회, 체육대회, 합창대회, 사생대회 등과 함께 행사활동의 한 부분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교육과정 상에서 학교에서의 학교

19) 한명희, 『교육의 미학적 탐구』, 집문당, 2002

축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내용을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축제가 특별활동 교육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청 단위 및 학교단위 교육과정에서의 축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연성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사례를 중심으로 이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축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사례

2002년부터 연성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신나는 교실 · 즐거운 학교 · 창의적인 학생’을 모토로 신나는 교실을 위해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성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을 정하였다. 소질과 특기를 살리는 1인 1기 교육은 특별활동, 특기 · 적성 교육 활동, 체육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하므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길러지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축제가 있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과학축제(4월), 통일의 날(6월), 교내미술실기대회(8월), 독서축제(9월), 체육대회(11월), 가을음악회(11월), 연성제 · 특별활동발표회(12월) 등 체험 중심의 축제를 통한 신명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2003학년도엔 일부 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66 전시회 모습

2004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월1회 주5일 수업제 우선시행학교를 운영하면서 교과학습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배치하고 토요일엔 특별활동과 재량활동, 교과와 연계된 축제 등 행사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학교교육과정 편성 목적으로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창의적인 교육 실현,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 실시, 여유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하였다. 또한 학습의 집중도와 학습밀도를 높여 학교교육의 수월성 추구, 가족 간 유대 증진과 사회 체험을 통한 바람직한 인성 함양,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노력을 통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에서 학습중심의 주기와 축제 등 행사활동의 주기를 교차 배분하므로 학습의 집중도를 높여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축제가 있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

고자 노력하였다.

2)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한 학습축제

2004년엔 학생들이 개인 또는 모둠별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계획, 실천, 보고하는 형식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지도위원과의 지도협의를 통해 꾸준한 노력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학습주제를 정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르도록 창의적 재량활동과 연계한 자기주도적 Project 학습을 추진하고 이를 학년말에 자기주도 학습 축제로 운영하였다.

학습주제는 환타지 소설의 독서 실태조사, 수학에서의 역설에 대한 조사 등 조사 연구 활동, 승기천의 수질오염 실태조사, 우리학교의 소음도 측정 조사 등 관찰·탐구 기록 활동,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흥미를 느낀 부분을 더욱 심화해서 공부하기 등 교과와 연계된 심화학습 주제, 우리 가족 홈페이지 만들기, 뮤직비디오 영화 만들기 등 정보통신 기술 활용 저작물 만들기, 기타 배우기, 할아버지 초상화 그리기, 만들기 등 자신의 소질 계발과 관련한 주제, 해리포터 원서로 읽기, 영어단어 5,000단어 외우기, 중학생 필독도서 50권 읽기, 아버지와 함께 백두대간 등반하기, 명심원 주1회 방문하여 봉사하기 등 스스로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의한 목표, 기타 지도위원의 지도 협의에 의한 연중 꾸준한 실천이 가능한 자유 주제 중 한 가지를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 부모님, 친지,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중에서 자신의 선정주제를 이해하고 후원하며 이끌어 주실 분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자기주도적 Project 학습의 전 진행과정에 대한 지도를 받도록 하였다.



그림 67 학생작품

수능이후, 3학년 기말고사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의 학습자세가 이완되고 학교교육의 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수결과물들을 모아 발표하는 자기주도 학습 축제를 통해 발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수결과물 중 연구보고서는 2004 연성 Project 연구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기타저작물은 학교 홈페이지 자기주도적 Project 학습코너에서 전시하였다.

표 84 자기주도적 Project 학습의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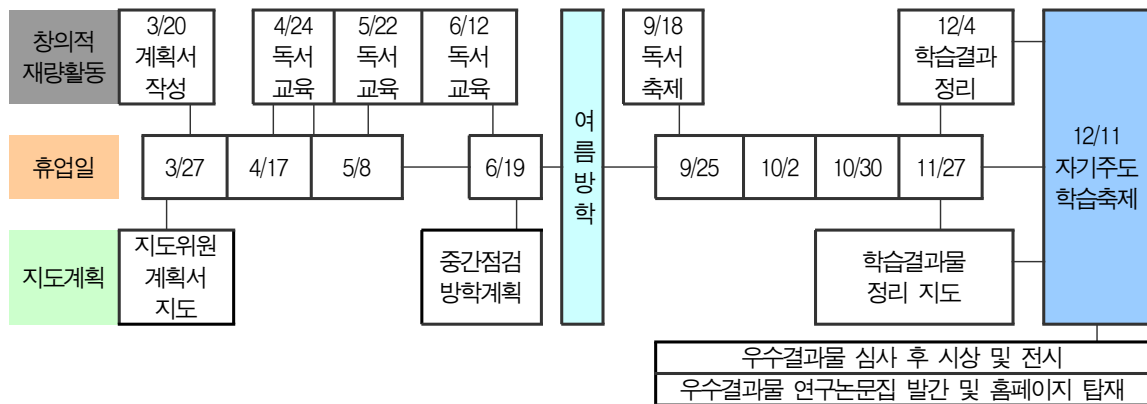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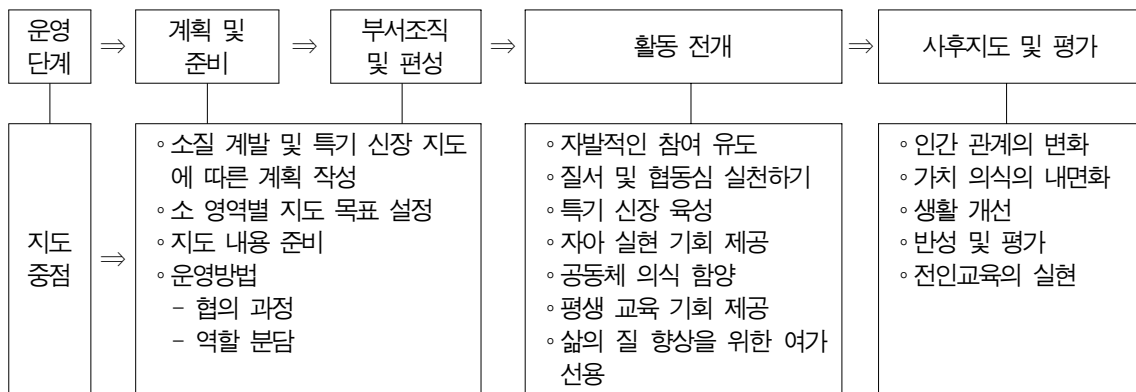
표 85 2004 창의적 재량활동 운영 일정

구분	월/일	영역	시간	학습내용	담당
1학기	3/6	예절교육	2	1교1덕목 '인사잘하기'와 연계된 예절교육 실시	학생부
	3/20	자기주도학습	2	자기주도학습법 안내 Project 계획서 작성	연구부
	4/10	창의성 교육	2	과학축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발명, 상상 등 창의성 교육 실시	과학과
	4/24	독서교육	2	바람직한 독서습관에 대한 교육 Project와 연계된 자율 독서 교육	국어과
	5/22	독서교육	2	Project와 연계된 자율 독서 교육	도서관
	5/29	환경교육	4	청량산 환경 등반 승기천 정화활동 하수종말 처리장 탐방 등 실천 중심의 환경 교육 실시	환경부
	6/12	독서교육	2	Project와 연계된 자율 독서 교육	도서관
	6/26	통일교육	4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마음가짐에 대 한 체험적 교육 실시	도덕과
2학기	8/28	문화교육	2	교내미술실기대회 및 미술전람회 관람 예절 교육	미술과
	9/10	예절교육	1	1교1덕목 '인사잘하기'와 연계된 예절교육 실시	학생부
	9/18	독서교육	2	독서의 달 독서 축제 참여 Project와 연계된 자율 독서 교육	국어과 도서관
	10/23	진로교육	4	진로, 직업교육	진로상담부
	11/13	정보통신윤리교육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사례중심교육	교육정보부
	11/20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4	양성평등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 교육	진로상담부보건실
	12/4	자기주도 학습	2	Project 학습결과물 정리 및 제출	학년부
계			36		
행사	12/11	자기주도 학습 축제	행사	학습결과물 발표회	교무부
후속사업	연성중학교 자기주도 Project 연구논문집 발간 (05년 1월)				연구부
	우수 Project 학교 홈페이지 탑재 (05년 1월)				교육정보부

3) 특별활동영역과 연계한 축제

특별활동 중 계발활동은 6차 교육과정의 클럽활동과 같은 활동이다. 부서별 조직을 통해 주기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더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특기와 적성·진로와 연계하여 부서를 선택하고 활동한 후 부서의 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한 활동 자료, 작품 등을 정리하여 축제 때 발표하도록 하였다.

표 86 계발활동 운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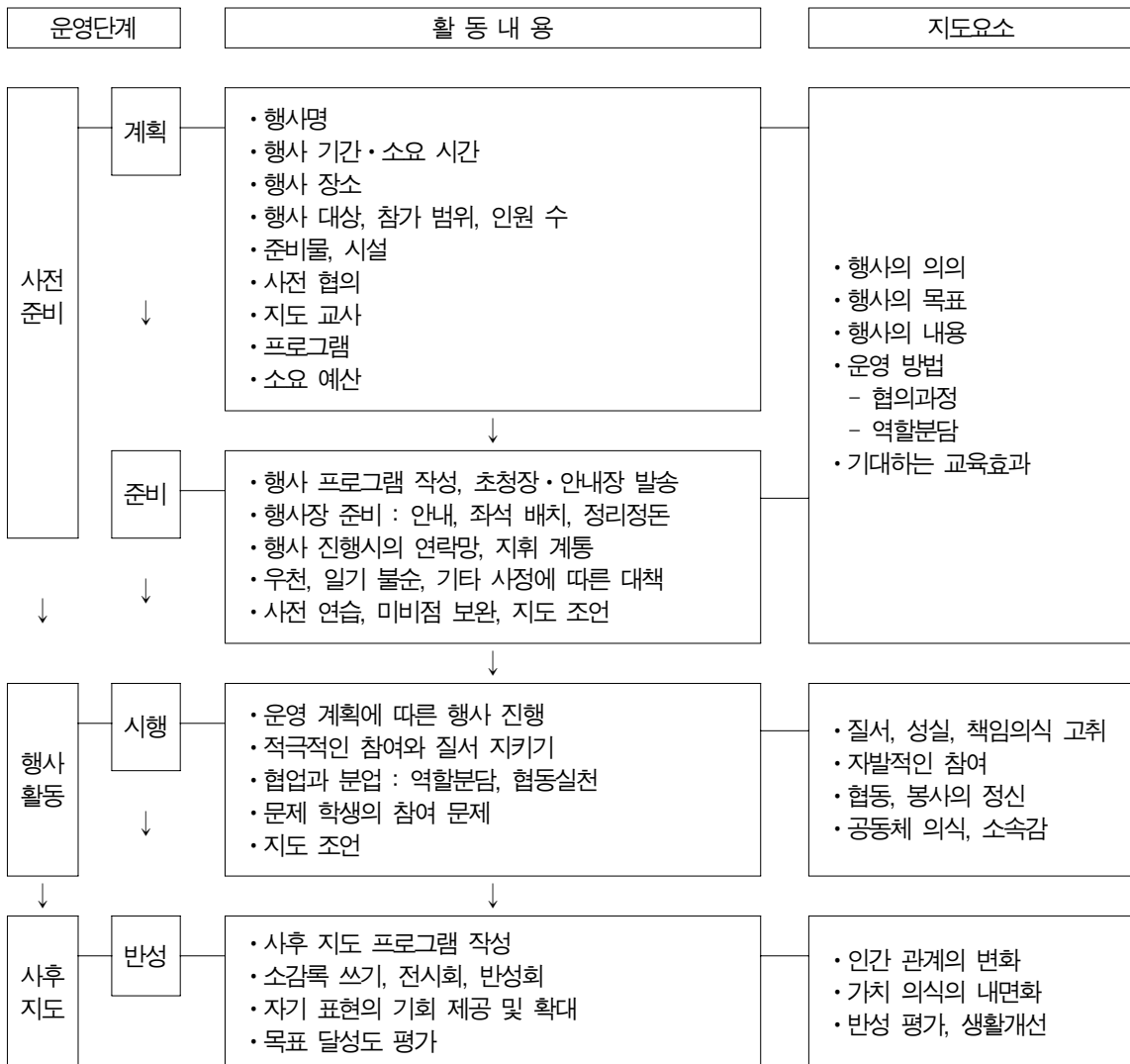


또한 특별활동 중 자치활동, 적응활동을 통해 학급 내 동아리 조직을 만들어 연중 활동하면서 그 결과를 축제 때 발표하거나 소규모 학급단위의 축제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계획되는 축제는 대개 가을에 이루어지며 체육대회, 작품발표회, 공연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축제로 학교의 행사활동 중 가장 규모가 큰 행사이기도 하다. 학교의 축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다양하며 실천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를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림 68 학생전시회 작품

표 87 행사활동 운영의 절차



축제를 위한 축제가 아닌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해 계획되고 운영과정에서 충실히 실천되어 준비된 내용을 축제를 통해 발표하고 이를 통해 학교교육공동체가 공동의 신명을 창출하는 선순환이 반복되면 학교 교육력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주5일 수업제의 확대에 의한 교육과정의 개정이 진행되면서 여가시간이 늘어난 만큼 학교교육에서 교과학습의 비중이 커지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도 여유있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되면서 중학교의 경우, 현행 주당 34시간에서 32시간으로 수업시수 감축이 이루어지면 주2회의 주중 7교시가 이루어져야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영역에서 각각 34시간의 감축이 예상된다. 이는 학교 축제를 위해 활용되었던 전통적인 영역이 축소되는 것이며 주중 학습시간의 확대에 동아리 활동 등 자발적인 특기 · 적성 신장 활동을 위한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3절 지역내 학교축제 담당 인력 양성체계 및 인적자원 활용방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 학교와 학교 밖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해방이후 줄곧 교과교육 중심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문화예술교육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으로 필요한 활동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국가 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해 왔어도 대학교의 교원양성과정 단계부터 재교육 시스템까지 교사들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거의 대부분 교과교육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 교사들은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 학교에서의 특별활동 영역의 면면을 들여다볼 때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이 된다. 학교 축제의 의미가 학생들이 1년간 익히고 경험했던 모든 교육활동이 총체적으로 결집되는 문화소통의 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중학교에서 축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별활동에서의 계발활동(CA)이나 자치활동,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 및 상설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한 관리책임이 학교 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교과교육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동안 학교 내 역량만으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해왔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외부 문예일꾼과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극복되어질 수 있다.

서울 북부 노원구 소재의 상계제일중학교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사가 참여하면서 그동안 중학교에서 볼 수 없었던 축제의 모습을 3년째 보여주고 있다. 계발활동, 그리고 상설 동아리 활동 등과 같은 영역에서 학교 교사가 아닌 학교 밖의 공인된 자격을 지닌 전문가와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면 학생들의 문화예술영역에서의 체험기회는 확대될 것이고 이를 통해 축적된 결과들이 학교축제의 내용을 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학교는 학교 저마다의 특색이 있는 문화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 학교에 일정기간 문화예술교육 기획 전문가가 파견해서 근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최근 독서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해서 사서교사제를 시행 한다던가 학교급식을 위해서 영양사를 배치한다던가 하는 사례를 생각해본다면 문화예술교육 역시 고려해볼 근거가 충분하다.

표 88 지역사회 연계방향

방안	내용
공간, 환경의 지원	- 청소년, 교사들의 일상적인 문화활동 공간으로서 개방성 필요 - 장비, 공연장 등 시설의 일상적인 지원
지역사회 전문성 지원	- 교사, 학생들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강사팀 등의 구성과 지원 - 축제기획워크숍 등 전문교육과정 개발과 지원
지역사회 다양한 지원의 연계	- 음악, 미술, 문학, 과학, 체육 등 지역사회 전문가 그룹과 학교와의 연계 - 지역의회의 공원, 도로 등 공간과 시설에 대한 연계

1.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세계화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정관리 메커니즘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과 정부, 지방과 지방, 혹은 지역(정부)과 시민사회가 더욱 돈독한 상호 협력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세계화의 방향이 중국에는 지역화에 달려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들은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지역 이미지 고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축제 등의 개발을 통하여 세계 속에 자기 지역을 홍보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고자 한다. 이제 지역자치체는 지역이라는 알에서 깨어나 세계를 향하여 진일보하고 있으며, 그 행보 속에서 지역 자치는 이제 문화자치로 이어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에 있어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은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며, 개인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그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적 인적자원 정책만큼이나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개발활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학교 안팎의 교육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는 기존의 중앙 집권 주의적 교육과정운영 및 지식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인간양성을 목표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인간의 평균 수명과 여가 시간의 증가, 가치관 및 생활양식의 변화, 지식과 정보의 증가로 인하여 평생에 걸친 교육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가고 있다.

이렇게 질적·양적 학습권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동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이다. 평생교육 시대를 맞이하는 지식기반사회, 세계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축제’를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은 학교와 지역공동체 이루어내는 교육공동체 구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도 놀이와 즐거움을 매개로 일어나는 소통 행위라고 가정할 때 축제와 교육은 모종의 유

기적 관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축제와 지역 축제에 대한 연구, 축제 문화를 교육용 콘텐츠로 전환하는 연구, 이들을 지역학습 차원으로 활용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주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 지역 내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축제를 연결하는 연구로 발전시켜나가야만 할 것이다.

축제를 활용한 교육은 지역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육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 영역을 아우르게 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주민들이 지역학교와 지역자치단체가 연계되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 한다는 것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편향적 흐름에 다소 소외되는 ‘지역화(localization)’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2. 지역 내 전문 인력 활용의 필요성과 방안

지역 내 전문 인력의 학교축제 활용의 필요성은 평생교육차원의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지역과 학교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휴식 전문 인력 활용으로 인한 인력창출, 학교 축제의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점에 있으며 나아가 학교축제와 지역축제의 연결로 인한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가치창출로 이어져서 문화강국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문화자원이자 교육자원인 학교축제는 그간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만을 위한 소극적인 축제의 형태가 대다수였다. 대부분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마스게임, 운동회, 전람회, 음악회, 오픈하우스, 퍼레이드, 바자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각 학교마다 연례행사로 거행하는 학교축제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지역과 협력하여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인력, 교육과 문화, 교육과 지역이 절연 고립되고 있는 현 학교시스템을 축제라는 매개체로 이어 지역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지식의 효과적 이전을 위한 지역체제 구축, 평생교육체제 기반 확립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현 교육체제의 폐쇄성과 인재 육성 및 활용에 대한 전략 부재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창조적인 세계시민 양성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또한 지역의 낙후와도 이어져서 지역의 인재손실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학교를 벗어난 연령의 인재들은 이제 고령화 사회와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넉넉해진 여가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자기만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평생교육의 목표인 최대한의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능력 개발 차원에서 지역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얻고, 이를 다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순환구조의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축제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은 다양한 전공과 특기를 가진 인력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축제의 인력구성은 행사기획, 홍보, 디자인, 회계와 축제의 주가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작품을 생산해내는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학교축제의 주체가 학교임을 감안할 때 학교장이 집행위원장 혹은 추진위원장이 될 것이며, 모든 교사가 집행위원의 역할을 할 것이고, 축제 담당교사가 사무국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즉,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학교축제의 주축이 되고 작품을 생산해내는 전문가, 작가 집단이 학생이 된다는 것이다. 외부인력이 학교축제에 활용될 경우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는 방안으로 일부 집행위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학교축제와 지역축제의 시간과 공간 등 역할분담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있는 인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축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학생들을 학교축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교육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축제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전공자를 섭외하여 학교의 재량학습이나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

축제를 위한 수업은 아니지만 프랑스의 공교육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강화차원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례를 들어보면 지역의 신문기사를 초빙하여 재량활동시간(아뜰리에 수업)에 신문에 대해 한 학기 동안 토론과 학습을 한 후, 신문이나 언론에 대한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을 결정한 후에는 그에 맞는 현직 전공자나 휴직 전공자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부모 중에서 희망자에게 특별활동이나 상담 혹은 기타 특수목적에 위한 학부모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인력을 단기간으로 활용하고, 학생 졸업 후에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으며, 학교의 학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인력손실이 따른다.

결국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구성의 현행 학교시스템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인력구성이자 인력활용방법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고, 보다 선진화되고 21세기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맞게 변화해야 함이 틀림없다.

지역과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학교로 끌어들이 이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도록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해야 한다.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협력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①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의 파트너십 체결, ②학부모교육 활성화, ③학교개방(운동장, 컴퓨터실 등), ④지역민을 위한 문화교실 실시(스포츠, IT, 문화교실 등), ⑤학교교육의 특성화 및 지역민 대상 특성화 교실, ⑥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학습 (미디어센터, 박물관, 체육관 등) 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위의 제안들 중에서 특히 “①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체결”은 학교축제가 실시될 경우 가장 많은 후원과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며, “⑥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학습”은 학교교육의 확장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가장 전문적인 인력지원과 기자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또한, 공동체구성으로 형성된 인력자원에 대한 관리가 절실한데, 지역관청인 동사무소, 구청 차원에서 지역인력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사

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지역에 봉사하려는 인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나 관청을 통해 전문가들이나 이를 보조하고 지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열린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의사들의 봉사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나 환경보호를 위한 “그린피스”같은 시민단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지역이나 학교에 봉사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창구마련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인력 활용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가나 자원 봉사 인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인력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들 인력에게 필요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현재 한국의 학교교육 사정상 학교를 무한정 개방하거나 문화교실을 적극적으로 여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입시에 민감한 고등학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지역과의 네트워크, 관의 협조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미 지역의 구민회관, 구청 및 사설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강좌들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아마추어를 위한 공간들이며 새로운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것들이다. 이제 문화 선진국을 향한 사설 혹은 국·공립기관들은 아마추어에서 전문가까지 그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문화시설을 갖추나가야 한다.

3. 지역전문인력 활용 및 재교육 해외사례

실제로 프랑스의 미디어교육과 미디어센터와의 관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으로 그 예를 설명해 보면 프랑스의 ‘학교 안 교육’은 각 교과간의 연계를 통하여 혹은 각 교과목의 통합교과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밖 교육’으로서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멀티미디어를 배우고, 제작할 수 있는 ‘퍼블릭 액세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미디어센터는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적 역량까지도 펼칠 수 있는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센터는 21세기 소통체계의 핵심인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는 공간이며, 개인과 개인이 소통하며 미디어를 통한 공동체 개발이라는 목적을 갖는 곳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곳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활용기술을 가르키고, 전문 제작 도구들을 대여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미디어의 비판적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

프랑스의 미디어교육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안팎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든 대중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21세기형 ‘문화의 집maison de la culture’인 미디어센터를 주목하고자 한다. 미디어센터는 대중들에게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여러 응용프로그램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더 전문적인 도구들을 사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화예술적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열린 공간이다.

1998년부터 프랑스의 문화부는 멀티미디어문화공간(ECM, Espaces Culture Multimédia)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의 멀티미디어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CM은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창작 계획에서부터 일반인들의 멀티미디어 입문, 교사들의 재교육까지를 관장하고 있다. ECM의 목적은 국가는 멀티미디어문화공간에 최대한의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여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접근 도구로서의 정보통신 기술을 교육시키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게 하는데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특히 멀티미디어를 사용하여 문화 및 예술작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에 ECM 라벨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 기관을 이용하고 이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998년 프랑스의 국가정보화 프로그램(PAGSI)의 실행과 함께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의 한 방안으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격증(TIC)제도를 학교와 연계하여 수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특히 ECM 프로그램에 소속된 프랑스의 우수한 멀티미디어공간 중 하나인 이씨-레-몰리노(Issy-les-Moulineaux)시의 르 큐브(Le Cube)는 디지털 창작을 위한 전용공간이다. 이곳은 1988년부터 디지털 예술분야의 활동을 선도하고 있는 예술가협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곳은 프랑스의 멀티미디어 문화공간(ECM)과 디지털 공공공간(Espaces Publics Numériques) 조직망 중 하나로서, 멀티미디어의 적용, 디지털 예술의 보급 그리고 창작지원 등 3가지 분야의 활동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프랑스의 미디어센터는 디지털예술창작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대상도 전문가나 청소년 등 특정 계층을 위주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Le Cube는 365일 모든 이에게 문이 열려 있으며 초보에서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수준에 맞춘 입문과정과 아뜰리에를 통하여 모든 연령층의 관객, 아마추어, 전문가에게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의한 문화적·예술적 실천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교사들과 연합하여 학교교육활동의 일부를 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의 예술적인 표현의 다양성을 추진하고 그 다양성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시회와 회담, 상영, 강연과 같은 특별행사들을 규칙적으로 기획하기도 한다. 특이한 점은 작가들에게 창작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술가 숙소²⁰⁾를 원하는 예술가들에게 심사를 거쳐 숙소(아뜰리에)를 제공하고, 강연과 전문 학술회를 기획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 제작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창작중심(Le Pôle Création) 프로그램은 Le Cube가 실행하고 있는 창작아틀리에, 정기세미나, 특별전시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디지털 표현의 새로운 양식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 분야의 예술가들과 전문가들을 위한 활동들로 이루어진다.

20) hébergement des artistes는 숙식을 겸하는 숙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제작활동을 할 수 있는 아뜰리에를 말한다.

4. 지역축제와 학교축제의 연결

이벤트로서 축제는 지역 자치단체들에게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다irect 효과, 커뮤니케이션 효과, 판촉효과, 파급효과, 홍보효과, 인센티브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크고 작은 지역축제들과 학교축제가, 혹은 학교축제 간 연합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내실을 기한다면 지역축제가 가져오는 효과들은 현재의 배가 될 것이다. 이 방법은 학교와 지역이 가장 효과적으로 네트워킹하여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고, 축제 진행 노하우를 축적하여 가장 성공적인 축제인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축제의 입장에서 학교 축제와의 연계나 학교와의 공조는 축제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표 89 이벤트로서의 축제의 효과

구분	내용
다irect 효과	- 축제의 생산자인 주최 측이 소비자와 직접대면을 통해 얻어내는 직접 효과를 말함 - 경제적 효과 : 입장료 수입, 행사장 내 상품판매액 등 집객효과로 얻어지는 직접적 효과 - 간접적 효과 : 축제를 주최한 관계자들이 경험으로 얻어지는 학습효과 등
커뮤니케이션 효과	- 대중매체에 의한 홍보와 이벤트가 이끌어내는 효과 - 주최자의 인지도 향상, 이벤트 내용의 이해, 공감대 형성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되며, 쌍방향 소통이 가능
판촉효과	- 직접 소통에 따른 공감대 형성으로 구매의욕 촉진 - 지역의 특산물 및 지역의 기업에 대한 신뢰감과 호감도가 증가하여 매출로 이어짐
파급효과	- 직접파급효과와 간접파급효과로 구분 - 직접파급효과는 축제 참가자 혹은 정보 접촉자들에게 전달되는 구전적인 효과 - 간접파급효과는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술문화 보급, 사회의식 개발 효과로 지역진흥 촉진 등의 효과
퍼블리시티 효과	- 대중매체 등에 의해 보도되는 것 - 축제에 대한 대중매체의 논평, 해석 등에 의해 대중들의 신뢰도를 획득하는 효과
인센티브 효과	- 기업이나 학교 등 단체를 둘러싼 조직체에서 발생하는 관계개선 및 관계촉진효과, 구성원 결속을 통해 외부까지 영향 파급

예를 들어, 2004년부터 시작한 인천 주안역 주변에서 매해 열리는 주안미디어문화축제의 경우, 주요프로그램 중 하나인 미디어아트전시에 주변 미디어센터나 아트센터 등의 협조 하에 시민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제작하게 하여 전문가들의 작품과 함께 전시하는 참여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때 이들 시민 작품들을 지도하는 인력들은 지역의 전문가 그룹이며, 시민 작가들은 학생에서부터 주부,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력들로서 그 능력에 있어서도 초보에서 전문가 수준을 갖춘 아마추어까지 다양한 능력을 가졌다. 또한 인근 중·고등학교의 미술교사들의 협조 하에 수업시간에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위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한다. 또한 주안 미디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인천지역의 미술과 교사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미디어아트전시와 영화제에 학생들과 단체관람을 실시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주안미

디어문화축제와 인근 학교들과의 관계처럼 학교축제와 지역축제의 관계는 아직 소극적이다. 하지만 학교축제가 성격이 비슷한 지역축제와 연결된다면 지역축제는 더욱 성대해질 것이고, 지역축제가 가지고 있는 보다 성숙한 진행과 프로그램이 학교축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4절 학교축제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

1. 학교축제에서의 교원의 역할

학교 현장에서의 축제는 수준 있는 공연자와 구경꾼에 의한 행사가 아니라, 작고 소박한 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진 자리이다. 그 과정에 함께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실수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객관적인 견지로는 수준 미달의 작품이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땀방울들과 가능성을 보게 되어 감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견지가 없이는 시끄럽고, 수준 낮고, 엉터리라는 속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는 기획단의 구성부터 도우미의 활동까지 학교의 구성원들이 고루 참가하여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과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 행사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똑같은 레퍼토리에 지쳐 있는 선생님, 그러나 학생은 매년 변한다. 한 학교에 몇 년 근무하다 보면 축제의 레퍼토리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교사들은 식상해 하고 재미없어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매년 새로 입학하고 졸업을 하고 있다. 교사에게 식상한 레퍼토리가 학생들에게겐 신선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점을 교사들이 잊기 쉽다. 사실 반복되는 레퍼토리의 책임은 학생의 창의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창의력에서 비롯되기 쉽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축제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만들고 창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놀이 = 게으름>이란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축제는 교육이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만 하는 통과의례쯤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하루 또는 이틀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에 의해 학교 축제는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축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을 교육시켜주는지 교사는 무엇을 교육시키겠다는 자세로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창의력을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올바른 축제에 대한 의식, 특히 학교 관리자의 올바른 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소에 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동아리의 활성화이다. 학생 동아리가 없거나 그 숫자가 적다면 축제의 발표 무대는 썰렁해지고, 결국 축제를 기획하는 선생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외부 찬조공연 일색으로 발표 무대는 채워지게 되고 아이들은 축제라는 공간에서도 객체가 되어 버리게 된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동아리가 많이 활동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교사의 헌신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방과후 학원으로 바빠 끌려가는 아이들과 만날 수가 없게 된다.

정규교과 시간에 보장된 특별활동에 교사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학생들을 만나 꾸준히 1년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규교과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특별활동 시간만으로 축제의 발표를 준비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일상의 문화예술의 활동 없이는 꽃피우기 힘든 것이다. 학생 동아리 활동, 교사 동호회, 학부모 동호회, 일상적인 지역 사회와의 교류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며, 교사 동호회 활동에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동호회 활동을 할 경우 그 파장은 학생들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하는 교사들이 많아졌을 때, 학생들도 풍부한 문화예술의 경험을 하게 되고, 열정적인 교사의 활동에 의해 학교 동아리도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분야 교사 동호회간의 경진대회나 문화한마당 등을 교육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시도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자치활동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는 '선거'라는 계기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 이외에 어떠한 자치활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학생회장이 선출되고 학생회 임원들이 만들어져서 그저 선생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선도부라는 이름으로 다른 학생들 앞에 위협적인 존재로 우월의식만 키워주는 학생회 활동으로는 성공적인 축제를 기획할 수도 없고 교사와 학생을 주체와 객체로 묶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생회 임원을 주체와 객체로 묶어, 감동할 수 없는 행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2. 축제담당 교사 양성 및 지원 방안

1) 학교축제 담당교사의 업무실태

학교에서의 축제업무는 문화예술교육에 각별한 애정이 없는 한 대체적으로 기피대상 1호에 해당된다. 다른 업무와 달리 일의 성격상 교육활동의 모든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교장 및 교감과 행정실 직원을 비롯한 모든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복잡한 관계 맺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축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복잡한 업무처리 등은 웬만한 각오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아래의 [표90]을 보면 학교축제를 담당하는 교사의 56.7%는 1~3년 사이에는 축제지도 업무를 하다가도 그 이후가 되면 급격하게 다른 업무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0 학교축제 지도 경험 횟수

			1-3회	4-10회	10회 이상	경험 없음	계
		사례수	%	%	%	%	%
[전 체]		(480)	56.7	16.9	5.4	21.0	100.0
학교소재지	서울시	(172)	54.7	21.5	7.0	16.9	100.0
	인천시	(76)	53.9	21.1	9.2	15.8	100.0
	경기도	(232)	59.1	12.1	3.0	25.9	100.0
학교소재지 규모별	특별시	(172)	54.7	21.5	7.0	16.9	100.0
	광역시 지역	(71)	53.5	22.5	7.0	16.9	100.0
	시지역	(215)	58.6	12.1	2.8	26.5	100.0
	군지역	(22)	63.6	9.1	13.6	13.6	100.0
학교형태별	남녀공학	(370)	55.1	16.2	4.9	23.8	100.0

그런데 축제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보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축제업무의 지속성과 특별한 전문성, 그리고 축적된 경험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결과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축제를 담당하는 교사가 보다 연속성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축제는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 혹은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가? 아래의 [표91]을 보면 35.6%의 비율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는 예체능 담당 교사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수학 및 과학, 국어(한문), 영어(외국어), 기술가정, 기타교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축제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전시영역과 공연영역이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개는 미술교과와 음악교과 담당교사가 어떤 형식으로도 축제에 관여하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자기가 담당하는 교과수업 이외의 행정업무 중에서 많은 시간투자를 필요로 하고 복잡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축제업무는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업무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대개는 축제는 예술관련 교과 담당교사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고 이도 아니면 떠넘기듯이 경력이 짧은 교사나 새로 전입해온 교사가 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업무에 따른 과도한 노동부담은 학교축제의 활성화에 걸림돌임에 틀림없으며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다.

교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한다 하더라도 일의 성격상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업무가 있고 상대적으로 편한 업무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 업무분배를 할 때 2년 이상 같은 업무를 맡지 않는다면 과중한 업무 담당교사는 수업을 줄여준다거나 담임배정에서 빼주거나 하는 등의 배려가 불문율처럼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축제업무는 안타깝게도 그 대상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다. 아마도 학교행정의 무게중심에서 축제는 오랫동안 비켜있었고 실제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그다지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학교축제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학교현실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요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학교 자율의

합의에 의해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을 풀기 위해서는 축제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1 축제 담당교사의 과목

			국어 (한문)	영어 (외국어)	수학 및 과학	사회	예체능	기술 가정	기타	계
		사례수	%	%	%	%	%	%	%	%
[전 체]		(480)	13.5	9.6	15.6	11.0	35.6	7.3	7.3	100.0
학교 소재지	서울시	(172)	13.4	13.4	16.3	14.0	29.1	7.0	7.0	100.0
	인천시	(76)	18.4	11.8	11.8	7.9	35.5	6.6	7.9	100.0
	경기도	(232)	12.1	6.0	16.4	9.9	40.5	7.8	7.3	100.0

2) 축제담당 교사의 양성과 지원방안

축제는 잘하고 싶다는 열정 하나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축제는 교사들에게 강렬하고 인상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제를 담당하게 되면 무척 헌신적이며 의욕적으로 일을 벌여나가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대개는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면서 좌절감을 맛보거나 아니면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쉽게 지치게 되어 결국은 학교축제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거나 단절되어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만 심어주게 된다. 이는 축제에 대한 철학적 고민부터 축제의 기획, 관리, 구성과 내용, 예산,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지도, 학교행정 및 교사집단의 역학관계, 지역문화 및 사회의 이해, 학부모 집단의 특성이해와 교류, 학교 밖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정보와 활용, 시설과 기자재의 활용, 연출능력 등에 이르기까지 숱한 과제들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결국 최소한 축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것이 축제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축제를 열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우선 당장 유효할지는 몰라도 학교축제를 기피하는 현실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 어느 정도 애정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주저 없이 학교축제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학교 교사 승진구조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하고 축제를 추진한 활동경험 및 성과 등이 승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학교에 행정체계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다면 최소한 부장담당 교사가 가져야 할 조건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축제를 위해서는 학교문화에 대한 철학적 인식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1988년 올림픽 유공자나 전국체전 등의 실적 등으로 승진한 체육교사 출신의 교장승진 사례를 일반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일이다.

3. 교원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학교축제의 전문성 향상

현재 교원연수는 일반적으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그리고 자율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자격연수는 교장/교감 자격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으로 구분되는데 교장/교감 자격연수는 학교경영과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교양과 교직, 교과전공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 임용 후 주로 3~5년차 이내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직무연수는 교육청이나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국가기관 및 교원연구단체나 사설기관 등에서 추진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한 직무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심화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 외에 교육청 인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자율연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국가주도로 목적의식과 체계성을 갖고 관리하는 연수는 자격연수라 볼 수 있다. 교장/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해서는 학교교육의 근본적 성격과 목표에 따른 국가정책의 이해와 학교 경영능력에 대한 소양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전인교육의 구체적 실천근거와 방침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교경영권자로서의 학교장 및 교감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축제를 새롭게 의욕적으로 하려 해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시설사용 및 학생지도 활동까지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축제업무를 점차 기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교사들이 늘어난다. 이러한 경험이 학교사회에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입시경쟁 분위기와 맞물려서 일반적으로 학교축제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또한 냉소적이거나 복지부동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학교문화예술 활성화로서의 축제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자격연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1정 자격연수를 한번만 이수해서 평생 교단에 설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서 교직생애에 따른 기초과정, 정착과정, 발전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²¹⁾. 각 단계별 자격연수 프로그램에서 교사의 경력과 수준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배치함으로서 교사의 인식과 수용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전방위적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학교 축제 활성화에 우호적인 학교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한편, 최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에서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격·직무연수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리더쉽 및 직무수행 능력 개발을 위한 실무실습을 강화하고 교장자격연수 기간을 현행 6주에서 12주로 연장하는 한편 직무연수의 경우에는 5년을 주기로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자격연수의 경우, 최소한의 공통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된다²²⁾. 이는 국가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제시함으로써 자격연수의 질과 수준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상과 같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루

21) 2005. 1. 문화관광부. 『음악분야 중등교원 양성 및 재교육 방안 연구』, 세계음악연구소

22) 2006. 8. 26. 한국교직원신문

어지는 연수제도 개선 국면에서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해 교사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전문성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교원연수 영역 및 단계에 따라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후속연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4. 교사연수프로그램의 지향점

1) 축제에 대한 교사의 편견 극복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축제와 놀이에 대한 편견을 수정시켜줄 수 있는 연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인간 삶에 있어서 축제는 무엇이며, 축제가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해 왔기에 지속되고 있는가 등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으로부터 시작해서 축제가 갖는 일탈성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 축제날에도 교복을 고집하는 경직된 교사들의 시각으로는 결코 축제가 축제다워지기 어렵다.

아울러 축제를 통해 얻게 되는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바로 알려 교육적인 신념을 갖고 축제라는 현장에 교사가 뛰어들 수 있도록 연수를 기획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학교의 관리자가 축제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갖고 있을 경우 창의적인 활동에는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된다. 교장, 교감 연수에 축제나 동아리활동 등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 주는 연수가 기획되어야 한다.

2) 국내의 우수학교 축제사례 연수 및 경험조사

우리의 축제는 우리의 생활과 문화가 반영되어야 제 맛이다. 그렇다면 선진적인 학교 문화를 갖고 있는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이국의 학교 축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의 그들의 교육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그러한 사례를 찾아 공부한 사람이 연수를 진행하거나, 실제 기획자를 초빙해 와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은 연수 내용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 우수학교축제 사례에 대한 경험자, 기획자의 강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축제기획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축제 기획력의 향상

교사들은 축제 기획을 경험한 기회가 적어 축제 기획의 담당 업무가 맡겨지게 되면 지난해에 진행되었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기 쉽다.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을 길러주고 그 기획에 대한 실천의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어야 학교의 축제가 새로운 그릇에 담겨지게 된다.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획의 전문가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워크숍 형태로 교사들이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연수가 될 것이다.

4) 학생들이 축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노하우를 길러주는 연수

학교의 축제의 기획에서부터 당일의 행사 하나하나 학생들이 자신 스스로 움직여 축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학교 축제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축제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에 교육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학생들을 어떻게 주체로 세울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의 의식을 가꾸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

5. 담당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일상의 학교 공간에서 교사가 자발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이 연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연수내용이 흥미롭고 현장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연중심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워크숍 등 활동 중심, 사례 보고 등에 충분한 시간이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무 연수로 개설하여 이수 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즉 직무연수에 등록하여 참여한 자에게 이수증과 이수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인센티브의 종류로는 평가점수에 반영하거나 연수참여비용을 지불하고 축제기획력향상과 아이디어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지역축제 및 학교축제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학교축제담당 교원의 연수는 연수일 수, 연수내용의 난이도, 연수대상자의 유형, 연수시기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학교축제를 담당하는 교원 또는 학교축제 기획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연수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부분들을 항목별로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구체적인 연수 프로그램은 현실적 상황에 따라서 변경 가능할 것이다.

1) 축제의 의미와 종류

표 92 축제 유형 분류표

대분류	소분류	명칭	내용
축제의 의미	정의	축제의 의미	- 축제의 기원 - 현대 사회에서 축제가 가지는 의미와 현대적 변형 - 축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축제의 종류	소재	자연환경형 축제	- 지역의 자연물을 중요 소재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축제
		조형물형 축제	- 지역에만 독특하게 있는 시설, 거리 등의 특정한 조형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
		역사 및 인물형 축제	- 지역의 역사나 신화적 혹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실시하는 축제
		음식형 축제	- 해당지역에만 있는 특성화된 음식을 주제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문화행사형 축제	- 각종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대분류	소분류	명 칭	내 용
	목표	민속행사형 축제	- 지역의 전통제례나 민속행사를 소재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내부지향형 축제	- 지역민들의 애향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내 고장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 시키며, 단결과 단합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지역사회 내부를 목표로 하여 실시되는 축제
		외부지향형 축제	- 지역의 정체성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관광 및 산업 발전 등 주로 지역 외적에서 그 효과를 거두려고 실시하는 축제
		쌍방향 축제	- 내부지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외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방식의 축제
	운영 방식	국가중심형 축제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축제
		지방자치단체중심형 축제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축제
		민간주도형 축제	- 추진위원회 등의 민간조직을 결성하여 민간조직이 중심이 된 축제
		주민중심형 축제	- 주민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하는 순수 주민형 축제
		대행사중심형 축제	- 전문대행사가 모든 행사를 기획 운영하는 축제
		네트워크형 축제	- 주민, 자치단체, 대행사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 운영하는 축제
	형식	설치/전시형 축제	- 거리나 시설물을 전시하고 관람객들을 주로 전시 물건들을 관람하는 방식의 축제
		공연형 축제	- 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기회 연출된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의 축제
		참가형 축제	- 행사에 직접 참가하는 방식의 축제
		종합형 축제	-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치, 공연, 참가 등을 적절히 조화롭게 연결하여 실시하는 방식의 축제

2) 학교축제의 의미와 가치

표 93 학교축제의 의미와 가치 및 특성

구분	명 칭	내 용
의미와 가치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축제의 의미	- 학교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반영해야 하기는 하지만, 학교축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벗어나서는 안될 것임
	교사들이 생각하는 학교축제의 의미	- 축제의 기본원리를 학교축제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개념에 대한 정리 필요
목표	청소년의 축제모델 제작	-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한 모델 제작 - 축제 기획에서부터 운영, 평가까지 직접 실행함으로써 주도성과 성취감을 갖게 함 - 학교축제운영 조직에 명분으로 존재하던 학생 기획단이 실제 활동하고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 점검 - 기회교육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기획과정을 목표로 함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문화활성화 구축	- 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축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강사파견, 컨설팅 등을 지원 - 학교의 인력체계로 해결할 수 없던 부분을 도움 - 학교별 축제기획단 계획한 부분에 대해 예산지원

구분	명칭	내용
유형적 특성	학교축제의 소재	• 일반적인 학교축제의 유형 - 전시회, 음악회, 체육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형 - 한국이나 전 세계 민속춤 공연, 다양한 문화소개 등 민속 행사형 -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이 많음
	목표	• 학생들의 단결과 단합 및 학교 공동체 의식함양이 목표 - 문화예술에 바탕을 두고 실시 - 내부지향형 축제가 대부분
	운영방식	- 학생을 주축으로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형 축제 - 주체는 단일학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형식	• 다양한 편 - 설치, 전시형 축제 - 공연형 축제 - 참가형 축제 - 종합형 축제

3) 학교축제의 기획 및 프로그램

표 94 학교축제의 기획 및 프로그램

구분	내용
기획	- 학교축제의 교육적 의미 - 학교축제 기획을 위한 바람직한 관점과 피해야 할 생각 - 기획의 변화를 통한 축제의 참 모습찾기 (사례를 중심으로) - 축제담당교사, 기획전문가, 축제연구전문가 등이 말하는 학교축제기획 - 축제기획 프로그램의 실제 : 학교 축제에 학생들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행
교육	• 학교축제 속에 교육 내용 녹여내기 - 체험학습 교육내용 구성
프로그램	목표 • 먹거리, 전시, 단순 공연 형태 벗어나기 • 기성의 대중문화 모방에서 벗어나기 •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축제 속에서 풀어내기
	방향 •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학생참여 확대와 내시화 - 학생축제기획단의 구성, 역할, 권한
	사례 체험교육내용의 사례
	주 제 명 사 례 주 제 개 관 “지역축제를 활용한 사회과 지역학습”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학습의 현황 - 교과서 중심, 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대안 - 지역축제는 지역 문화의 총체적 산물임과 동시에 유희적 성격을 갖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이해를 위해 지역 축제를 활용하고자 함 - 축제의 주제·성격에 따라 지역문화교육, 다문화교육, 전통문화교육, 환경교육, 정치·경제 교육으로 나누어 이용가능

구분		내용
	활동목표	○ 학생들이 내 고장의 문화 학습을 통해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함 ○ 우리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해 세계화에 기여하고, 타문화에 대한 객관적, 균형적 시각을 갖도록 함 ○ 문화축제 체험학습은 교사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건전한 인격 함양을 유도 ○ 공동 생활의 경험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 향상의 기회가 되도록 함
	지도상유의사항	○ 교사는 인천 지역 축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료화하고, 이를 전통문화교육, 다문화교육, 환경교육, 지역문화 교육 등 세분화 된 교육목표를 정하여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 교사는 학생들이 축제행사 체험학습 안내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 ○ 교사는 지역 축제 행사 담당자와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개발하도록 함 ○ 학생들이 축제행사 후 토론 과정을 거쳐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학교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여 학생들 스스로 새로운 축제 정보망을 구축하도록 지도

4)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평가

표 95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평가

구분		내용		
연계방안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	- 지역사회 공간, 환경의 지원 - 학생들의 자율활동에 대한 지역적 지원 - 지역 내 시설활용 및 대여의 편의 제공 - 지역사회는 예술가, 문화전문가, 청소년 지도자 등을 활용한 축제 기획단 재교육 - 축제담당교사에 대한 지역차원 재교육 및 자료 제공	
구축방안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도 계획 사례	영역	축 제 명	교수·학습 활동	장소
	지역 문화 교육	강화 고인돌 축제	- 강화 고인돌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한다. - 고인돌 축조, 개천대제, 성돌이 행사를 중심으로 축제를 체험한다. - 강화 고인돌 축제의 장·단점을 찾아본다. - 강화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찾아내고, 특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본다.	강화도 일대
	다문화 교육	인천 중국의날 문화축제	- 개항장 문화와 역사에 대해 조사한다. - 차이나타운의 역사와 현재를 체험한다. - 중국공연, 중국절, 중국음식, 중국학교, 중국 사람들을 체험하여 인천 속에 차이나타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인천시 중구
	전통 문화 교육	서해안 풍어제	- 서해안 풍어제의 역사에 대해 조사한다. - 서해안 지역의 뱃노래 특징과 기원을 체험한다. - 무형문화재의 소중함과 전승 방법을 생각해본다.	인천시 일대
		부평풍물축제	- 도시 속 대동놀이를 체험한다. - 풍물경연대회에 참가 한 풍물반 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인천시 부평
	환경 교육	인천녹색 포럼	- 환경영화, 디카 환경 사진전, 환경 이야기 마당 등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안다. - 인천 지역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본다.	인하대

구분		내용	
정치 경제 교육	인천 지역 축제	- 인천 지역 축제의 특성과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 인천 지역 축제가 지역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컴퓨터실
평가	평가방법	- 축제만족도 - 학생대상 만족도 설문지 - 축제평가지표작성	

5) 교원연수프로그램 진행 내용

표 96 교원연수프로그램 진행 내용

구분		내용
내용	교류	- 각 학교의 축제 내용 및 정보교환의 기회로 활용
	사례발표	- 진행경험이 있는 축제의 사례를 발표하여 토론의 기회마련
	문제점 공유 및 해결방안 제시	- 학교간 공통적인 문제점의 확인과 학교의 특성설명
	축제기획안 제작	-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학교축제의 질적전환이 가능한 기획안 작성
	소속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조사 및 학교축제와의 관련성 유도	- 각 학교 주변의 지역의 문화예술자원에 대한 정보교환
진행	1회차 : 여는 마당	- 소개의 시간: 워크샵 소개, 참가자와 강사소개 - 친해지기 - 축하공연(강사들의 공연) - 각 분야별 모임(강사와의 인사 및 일정 안내)
	2회차 : 분야별 워크숍	• 의도, 개요 또는 동기부여를 위한 준비된 교육 예: 밴드 워크숍 - 밴드(rock)음악의 뿌리는 어디인가? - 음악활동에 대한 의미 나누기 (영역에 따라 3회차로 늘어날 수 있다.)
	3회차(이후) : 기능 워크숍	- 3회차 에서 6회차까지 총 5회 진행 - 공연을 할 수 있는 진행으로
	7회차 : 교류 캠프	- 워크샵에 참가자들간의 교류 - 공연 및 전시를 위한 막바지 전체연습
	8회차 : 거리공연 및 전시	- 거리공연과 연합발표회를 합쳐서 하는 것도 방법
	워크숍 평가	• 각 영역별 또는 종합평가 - 청소년은 영역별 평가(설문지 등), 강사는 별도의 평가시간을 갖고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
	워크샵(이후)	• 연합발표회 '추락' - 모든 참가자들이 관객을 모아 연합발표회 '추락'상연

제5절 실천 지침으로서의 학교축제 매뉴얼 연구 및 작성

학교 축제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학교축제의 성격과 의미 파악부터 기획단계, 조직편성, 추진 계획, 축제의 내용과 형식, 예산편성과 집행, 학생 자치활동 교육, 특별활동 및 동아리 활동, 방과

후 학교와의 연계, 지역사회 및 시설, 인적자원과의 연계 방안, 기타 축제의 세부 영역별 내용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 활용 등에 대한 방대한 내용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축제는 단순한 행사 성격 이상의 의미와 내용을 갖고 있으며 학교 교육계획상의 총체적 활동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축제는 체계적이지 못하여 단지 행사를 위한 축제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축제의 성격은 무엇이고 어떤 목적과 목표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교육활동으로서 학교축제의 추진방향과 형식, 그리고 그 내용구성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축제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한 기초적인 제반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학교축제 길잡이로서 매뉴얼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뉴얼은 단순한 행사진행의 지침서에서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학교축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절차에 의한 실제적 실천방안까지 함께 고민해주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 학교 교육계획(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축제 매뉴얼을 별도의 인쇄본으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의 형식은 아래의 포맷을 띠고 있다.



5. 학교축제 실행

5-1
Page 3

1. 축제 홍보기와 실행

축제행정의 실행

축제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학교축제를 고내 뿐만 아니라 교외에까지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현수막, 안내 팸플릿, 초대장, 포스터 홈페이지 공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제를 홍보한다.



1기 : 학교 축제 기획과 준비 - 축제행각



그림 69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축제 메뉴얼” 본문 중에서

결

론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이며 이를 위한 실천이념으로 ‘전인교육’을 내세우고 있다. ‘홍익인간’이라 함은 공동체 사회에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인격, 건실한 몸과 마음을 갖춘 교양인을 지칭한다. ‘전인교육’이라 함은 바로 이러한 인간상을 학교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지표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전인(全人)’의 한자적 의미가 ‘완전한 인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면 이 때의 전인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기본능력과 가치태도를 갖게 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역할은 기본적인 지식교육과 함께 상상력과 창의력, 문화적 향유능력, 공동체적 사회에 부합하는 인격형성과 가치태도,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교육의 본질적 성격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 시스템과 학벌 지상주의는 학교교육을 교과교육 위주의 지식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사교육비 지출이라는 폐해를 낳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학교축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으며 축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역시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교육 선진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과교육활동 이외에 다양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식능력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이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활동은 크게 교과교육과 계발활동 및 자치활동 등으로 이루어지며 ‘학교축제’는 이러한 활동의 총결산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축제는 학생회, 계발활동과 상설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자치활동을 매개로 해서 극대화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나아가서 학교 공동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과정과 경험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자아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역점을 두고 강조되어야 하는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학교축제가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축제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 연구단체에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축으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 자생적 교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축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물론,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지방행정과의 유기적 연계도 함께 고민되어

야 한다. 아울러 축제의 내용에 있어서 교과활동과의 연계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축제가 단순히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놀게 해주는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과활동의 결과로서 축제로 표출되는 구체적 방안과 내용 형식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활동을 통한 축제의 지역연계 방안은 학교 교육활동이 지식위주의 교육과 학교 안에서만 소통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교과교육으로 개선되어지고 학교와 지역이 함께 소통하고 상호 문화예술자원을 공유하게 하는데 대단히 효율적인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 김영삼, “청소년을 위한 학교 축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16권, 제162호, 2001
- 김한석, 『고등학교 축제 발전 방향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뒤비노 저, 류정아 역, 1998, 『축제와 문명』, 한길사, 2003
- 류정아, 『축제인류학』, 살림출판사, 2003
- 선상배, 『학교축제의 내용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이상일, 『축제의 정신』, 성균관대 출판부, 1998
- 이종각, 『청소년 축제문화 활성화 방안』, 교육부, 1999
- 임연복, “사회공동체 형성에 밑거름이 되는 학교 축제 운영”, 『부산교육』, 제298호, 2001
- 정유성, “청소년 축제 문화— 새천년, 새교육, 새놀이”, 공청회 자료집, 강원대학교, 1999
- 청소년 문화교육 연구소, Ace Ventura, 『축제공작소: 우리손으로 직접 축제 만들기』
- 허정태, “학교축제 행사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문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 『부산교육』, 제305호, 2003
- Bakhtine, M. *Esthétique et Théorie du roman*, Gallimard, Paris, 1978
- Durkheim, Emile, *Les formes élémentaires de la vie religieuse*, Paris, Puf, 1985
- Freud, S., *Totem und Tabu*, in *Studienausgabe*, Bd. IX, Frankfurt a/M., 1974
- Getz, D.,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Van Nostrand Reinhold, 1991
- Event management and event tourism*, Elmsford, NY: Cognizant Communication, 1997
- Leach, Edmund, “Time and False noses”, in *Rethinking Anthropology*, London, Athlone, 1961
- Turner, Victor, *The Ritual Proces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9
- Drama, Fields, and Metaphor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1991

1992

부 록1 : 교사설문용 질문지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교축제 담당자 설문지

--	--	--	--

안녕하십니까?

평소 많은 열정으로 교육활동에 정진하시는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현재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중인 “지역과 연계한 학교축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과제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실제 학교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생산적인 축제의 장을 열어가기 위하여 자료를 얻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본 설문지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달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선생님들의 의견은 우리나라 학교축제의 발전은 물론 학생과 교사,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성의껏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 응답은 보내드리는 파일에 직접 표기하시어 kspark@kctpi.re.kr(박검숙: 과제담당연구조원, 02-2669-9873, 010-2715-4751)으로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24 류정아 올림

[조사주관] 문화관광부

☎ 02-2669-9839 /

[조사수행]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www.kctpi.re.kr)

011-9702-7687

연구책임 : 류정아(문화예술정책연구실 문화정책팀장)

✉ ryooja@kctpi.re.kr

☞ 본 조사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 ☎ (02)2669-9839 / (02)2669-9837

응답자 이름			
현직 및 소속			
응답자 연락처	① 집 전화번호 :	② 핸드폰번호 :	
	③ 이메일주소 :		

[기본사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학교에서 귀하의 직책 또는 직위는 무엇인가요?

① 학교장 ② 교감 ③ 부장 ④ 교사 ⑤ 기타_____

3. 귀하의 교육경력은 몇 년이십니까?

① 1년 미만 ~ 5년 이하 ② 5년 이상 ~ 10년 이하
③ 11년 이상 ~ 15년 이하 ④ 16년 이상 ~ 20년 이하
⑤ 20년 이상

4. 귀하의 담당 교과목은 무엇입니까?

① 국어(한문) ② 영어(외국어) ③ 수학 및 과학 ④ 사회
⑤ 예체능 ⑥ 기술가정 ⑦ 기타 _____

5. 귀하는 몇 학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특수학급
⑤ 비담당 ⑥ 기타 _____

6. 귀하가 재직하고 계신 학교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① 남녀공학 ② 남자중 ③ 여자중 ④ 특수학교
⑤ 대안학교 ⑥ 기타 _____

7.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시 ④ 군
⑤ 도서지역 ⑥ 기타_____

[축제 현황 파악]

8. 귀하가 학교축제를 진행하셨거나 지도하신 경험의 횟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1-3회 ② 4-10회 ③ 10회 이상 ④ 경험 없음

9. 귀하가 진행했던 학교 축제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학예발표회 형태 ② 체육대회 형태 ③ 경연대회 형태 ④ 복합 형태
⑤ 기타 _____

10. 귀하가 진행했던 학교 축제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스럽다
⑤ 기타 _____

[축제의 기획]

11. 귀하의 학교에서 취하고 있는 축제의 기획방침은 어떤 것입니까?

- ① 기획담당이 따로 없고 우리학교 전통을 살려 해마다 내려온 형식을 따른다.
② 축제 담당교사가 주축이 되어 기획한다.
③ 몇 몇 관심 있는 교사가 주도하며 기획한다.
④ 지역사회의 도움을 얻어 전문가에게 맡긴다.
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협의를 거듭하며 기획한다.
⑥ 기타 _____

12. 귀하의 학교 축제에서 만족스런 축제기획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교집행부의 충분한 예산지원 ②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③ 축제 프로그램의 적절성 ④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⑤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⑥ 기타 _____

13. 귀교의 학교축제 발전에 가장 저해가 되는 요인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학교집행부의 적은 예산지원과 무관심 ② 축제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비적극적성
③ 축제 프로그램의 부적절성 ④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결여
⑤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결여 ⑥ 축제 콘텐츠 개발의 적극성 결여
⑦ 일반 교과과목 이수 의무와의 갈등 ⑧ 기타 _____

[축제의 주관 부서]

14. 귀교에서는 축제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십니까?

- | | |
|----------------|----------|
| ① 교무부 또는 교육연구부 | ② 학생생활부 |
| ③ 진로상담부 | ④ 체육부 |
| ⑤ 문화예술부 | ⑥ 지역사회단체 |
| ⑦ 기타_____ | |

15. 현재 귀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축제의 핵심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 | | | | |
|----------|-----------|-------|--------|
| ①학생회 | ②동아리대표 | ③지도교사 | ④축제기획단 |
| ⑤지역사회전문가 | ⑥ 기타_____ | | |

[축제의 예산]

16. 귀교의 학교축제예산은 얼마나 되십니까?

- | | |
|------------------------|-----------------------|
| ① 없음 | ② 100만원 이하 |
|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④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 ⑤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⑥ 1000만원 이상 |

17. 귀교에서 학교축제 예산의 충분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한 편이다. ② 약간 부족하다. ③ 대단히 부족하다.

18. 귀교의 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정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 | |
|------------------------|-----------------------|
| ①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②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 ③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④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
| ⑤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⑥ 1000만원 이상 |

19. 귀교의 축제 예산의 지출항목 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을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① 기자재 및 시설비 | ② 기획가 섭외비 |
| ③ 전문 연예인 섭외비 | ④ 동아리 활동비 |
| ⑤ 재료 및 운영비 | ⑥ 기타 _____ |

[축제의 장소와 시기]

20. 귀교의 학교축제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 ① 학교 안
- ② 학교 밖
- ③ 학교 안과 밖 모두
- ④ 학교 외부의 특정시설(시민회관, 문예회관, 교회 등)
- ⑤ 기타 _____

21. 귀교의 학교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는 주로 언제입니까?

- ① 봄
- ② 여름
- ③ 가을
- ④ 겨울

[축제의 개최 횟수와 기간]

22. 귀교에서 축제가 개최되는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년에 한번
- ② 동아리 별로 정해진 날짜에
- ③ 때에 따라 여러 번
- ④ 없음

22. 귀교의 축제는 보통 한 번에 몇 일간 열리나요?

- ① 1일
- ② 2일
- ③ 3일
- ④ 없음
- ⑤ 기타 _____

[축제의 성격과 형태]

23. 귀교에서 축제가 지향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학생들의 자기표현 기회를 갖고 정서적인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한다.
- ② 학생들의 특기계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전인교육(평생교육)을 실천하고자 한다.
- ③ 학생이 주체가 되어 학생들만의 문화를 계발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 ④ 학생이 학교생활 및 교사와의 친밀한 사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⑤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의 기초가 되고자 한다.
- ⑥ 기타 _____

- ① 지역의 문화 인프라(문예회과, 대학, 도서관 등)의 사용의 어려움
- ② 지역 내의 문화예술 활동가와의 연계 부족
- ③ 학교 축제 운영 인력이 지역활동에 무관심함
- ④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한 정보 부족
- 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⑥ 기타 _____

[축제의 문제점]

29. 귀교의 축제를 운영할 때 나타난 문제점을 2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① 축제에 대한 개념공유 부족
- ② 축제기획의 전문적 소양 미비
- ③ 입시제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감
- ④ 학생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 ⑤ 교사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 ⑥ 지역 주민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 ⑦ 예산의 부족
- ⑧ 기타 _____

부 록2 : 학생설문용 질문지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생들의 학교축제 수요조사 설문지

--	--	--	--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학생들의 학교축제에 대한 관심과 희망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는 설문지입니다.

설문지를 통해 여러분이 답변해 주신 내용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연계된 생산적인 학교축제의 장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의 조사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달리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나라 학교축제의 발전은 물론 학생과 교사, 학교와 사회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설문지의 응답 칸에 해당 번호를 직접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한 설문이니 성의껏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0월 10일 류정아 드림

[조사주관] 문화관광부

☎ 02-2669-9839 /

[조사수행]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www.kctpi.re.kr)

011-9702-7687

연구책임 : 류정아(문화예술정책연구실 문화정책팀장)

✉ ryooja@kctpi.re.kr

☞ 본 조사에 관해 문의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27 ☎ (02)2669-9839 / (02)2669-9837

응답자 이름			
현직 및 소속			
응답자 연락처	① 집 전화번호 :	② 핸드폰번호 :	
	③ 이메일주소 :		

[축제 참여 경험과 관심도]

1. 학교축제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응답

- ① 없음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2. 축제에 참여해 본 결과 어느 정도 재미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 ① 매우 재미있음 ② 약간 재미있음 ③ 보통
④ 재미없음 ⑤ 전혀 재미없음

3. 학교축제가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 ① 매우 많음 ② 많음 ③ 보통
④ 적음 ⑤ 전혀 없음

4. 본인이 참여했던 학교 축제의 형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된 것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응답

- ① 학예발표회(공연) 형태 ② 체육대회 형태
③ 경연대회 형태 ④ 계발활동(CA)전시회 형태
⑤ 복합 형태(예 : 공연과 체육대회, 공연과 경연대회 등)
⑥ 기타 (직접 써주세요) _____

5. 본인이 참여했던 축제 내용 중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응답

- ① 학예발표회(공연) 형태 ② 체육대회 형태
③ 경연대회 형태 ④ 계발활동(CA)전시회 형태
⑤ 복합 형태(예 : 공연과 체육대회, 공연과 경연대회 등)
⑥ 기타 (직접 써주세요) _____

6.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 실시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응답

- ① 1년에 2회 ② 1년에 1회
③ 2년에 1회 ④ 기타 (직접 써주세요) _____

7. 학교축제에 대해 교내 학생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응답

- ① 매우 많음 ② 많음 ③ 보통
④ 적음 ⑤ 매우 적음

(☞ ④번과 ⑤번 항목을 선택한 사람은 7-1번 문항에 답해주시고, 그 외 답변자는 8번 문항으로 이동하세요)

7-1. 축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된 것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응답

- ① 학업 성취에 따른 시간 부족 ② 축제 담당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부족
③ 축제 프로그램의 낙후 ④ 학교의 일방적인 축제 기획

[축제의 기획]

8.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는 누가 기획하고 있습니까?

응답

- ① 축제 담당교사가 기획 ② 몇몇 관심 있는 교사가 기획
③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기획 ④ 학생들 스스로 협의를 통해 기획
⑤ 모름

9. 학교축제를 기획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응답

- ① 학교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관심 ② 학교 선생님들의 성실한 지원과 관심
③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④ 축제 프로그램의 적절성
⑤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⑥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⑦ 학생들의 의견 및 자율성 존중여부
⑧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10. 학교축제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세요.

응답

- ① 학교의 적은 예산지원과 무관심
② 축제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소극적 태도
③ 방과 후 학원 수강에 따른 시간 부족

- ④ 흥미를 끌지 못하는 축제 프로그램
- ⑤ 학부모들의 참여 및 지원 결여
- ⑥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결여
- ⑦ 교과공부 위주의 학교현실
- ⑧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와의 갈등
- ⑨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축제의 주관 부서와 기획]

11. 재학 중인 학교에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응답

- ① 교육연구부 ② 학생생활부 ③ 진로상담부
- ④ 체육부 ⑤ 문화예술부(특별활동부) ⑥ 학생복지부
- ⑦ 예체능교육부 ⑧ 학교축제기획단 ⑨ 지역사회단체
- ⑩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12. 학교축제의 핵심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응답

- ① 학생회 ② 동아리대표 ③ 지도교사
- ④ 축제기획단 ⑤ 지역사회전문가
- ⑥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13. 학생들은 축제기획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응답

- ① 축제기획, 준비, 예산집행, 행사 진행, 사후평가 등 모든 부분에 참여
- ② 축제준비와 예산집행, 행사 진행에만 참여
- ③ 축제준비와 행사 진행에만 참여
- ④ 행사 진행에만 참여 ⑤ 참여하는 바 없음

[축제의 장소와 시기]

14.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응답

- ① 학교 안 ② 학교 밖
- ③ 학교 안과 밖 모두 ④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15. 현재 학교축제의 장소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응답

- ① 적당하다 ② 적당하지 않다 ③ 잘 모르겠다

(☞ ②번 적당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에는 15-1의 문항으로, ①번 적당하다고 답한 경우에는 16번 문항으로 이동해주세요.)

15-1. 학교축제의 장소로 적당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 ① 지역의 문화회관 ② 지역 내 문화공원 ③ 지역 내 광장 및 공터
④ 인근 도로 주변 ⑤ 수련회 장소
⑥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16. 축제의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응답

- ① 3~4월 ② 5~6월 ③ 7~8월
④ 9~10월 ⑤ 11~12월 ⑥ 1~2월

17. 축제 기간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응답

- ① 하루 동안 ② 이틀간
③ 3일정도 ④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축제행사의 참여]

18. 학교축제 행사에 교내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응답

- ① 전교생이 행사에 참여함
② 일부 학생들만 행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관람함
③ 축제의 내용에 따라 다름

19. 다음 중 학교축제의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응답

- ① 학생들만의 흥겨운 축제
② 교사와 학생들이 어우러지는 축제
③ 학생, 교사, 학부모가 어우러지는 축제
④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어우러지는 축제
⑤ 어떤 형태든 관계없다.

[축제의 성격과 형태]

20.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가 지향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응답

- ① 자기표현의 기회 제공
- ② 특기 적성 개발, 동아리 활동
- ③ 학생 자치를 통한 문화와 소통의 장 마련
- ④ 학생과 교사가 좀더 친해 질 수 있는 기회 마련
- ⑤ 학생,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 만들기
- ⑥ 휴식과 학교생활의 즐거움 제공
- ⑦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21.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는 다음 중 어떤 성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응답

- ① 학생 자치를 통한 청소년 문화축제
- ②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우러진 축제
- ③ 학생과 교사,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
- ④ 지역축제에 학생, 교사가 동참하는 축제
- ⑤ 학교가 준비하고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적인 축제
- ⑥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22. 다음 중 학교축제의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응답

- ① 학생 작품 전시행사
- ② 학생 창작 공연행사
- ③ 학생들 솜씨 및 장기자랑
- ④ 체육대회
- ⑤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가의 활동 소개
- ⑥ 교사와 학생들의 공동공연
- ⑦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참여 행사
- ⑧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행사
- ⑨ 다른 학교의 유명한 학생이나 연예인 초청 공연

23.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는 어떤 형태입니까?

응답

- ① 공연 중심의 축제
- ② 공연, 놀이 중심의 축제
- ③ 공연, 놀이, 각종 전시 중심의 축제
- ④ 공연, 놀이, 전시 및 학습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축제
- ⑤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지역사회와의 연계]

24.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에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응답

- ① 모든 프로그램이 연관됨
- ② 일부 프로그램이 연관됨
- ③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재로서는 없음
- ④ 연계 프로그램 없음

(☞ ①번과 ②번을 선택한 사람은 24-1번 문항에 답변해 주시고, ③번과 ④번을 선택한 사람은 25번 문항으로 이동해 주세요.)

24-1. 학교축제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응답

- ① 지역 내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활용
- ②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과 연계하여 축제 기획
- ③ 학생-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 ④ 학교-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구성
- ⑤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25. 학교축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획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응답

- ① 지역 내 문화 시설(문예회관, 대학, 도서관 등) 사용의 어려움
- ②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가와의 연계 부족
- ③ 지역 내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 활동가에 대한 정보 부족
- ④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무관심 증폭

- ⑤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 ⑥ 잘 모름
- ⑦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축제의 문제점]

26.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응답

- ① 축제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 부족
- ② 축제기획의 전문성 미비
- ③ 입시제도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한 부담감
- ④ 학생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 ⑤ 교사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 ⑥ 지역 주민들의 낮은 참여와 관심
- ⑦ 예산의 부족
- ⑧ 축제의 준비기간과 축제기간의 축박함
- ⑨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27. 재학 중인 학교의 축제기획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됩니까?

응답

- ① 거의 반영되지 않음
- ② 대표 학생들의 견해만 반영됨
- ③ 되도록 많은 학생들의 견해가 반영됨
- ④ 참여를 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됨
- ⑤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지역연계 학교축제 활성화 방안

발행인	김 명 곤
발행처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TEL : 3704-9114, FAX : 3704-9119 www.mct.go.kr
인쇄일	2006년 10월
발행일	2006년 10월 30일
인쇄처	(주)크리홍보